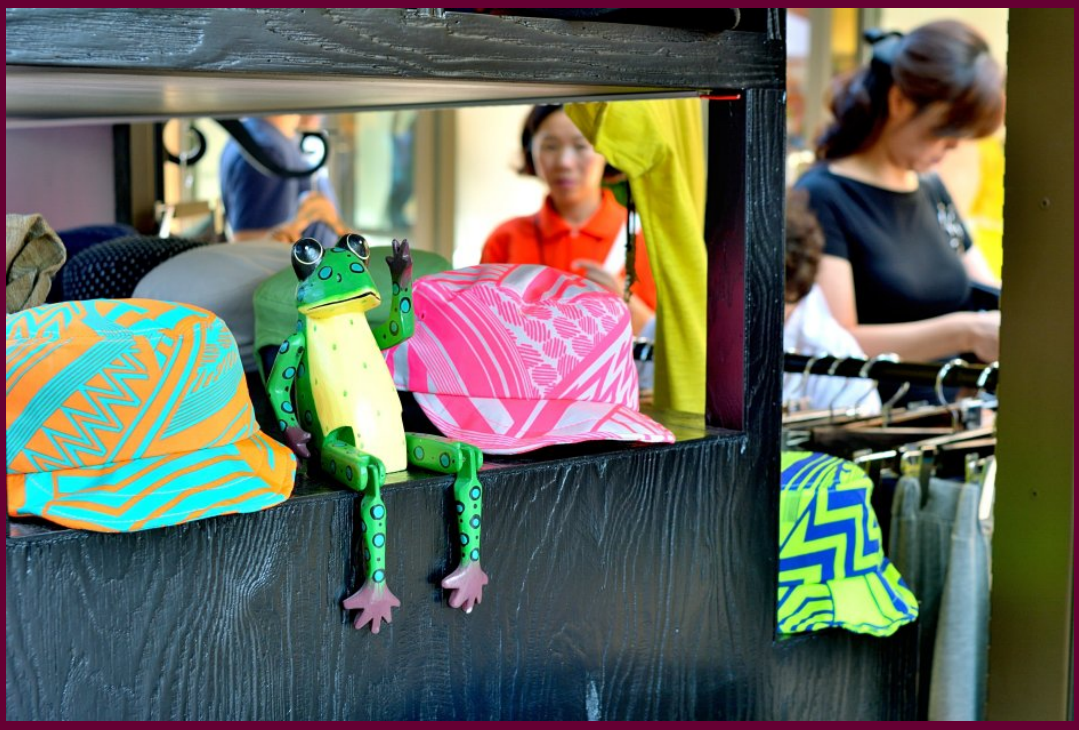


사진감성..고맙습니다

BlackCat

소개글

2013년 우수블러거가 되었네요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차

1 멀어지는 가을빛에 마음이 물들어가다 *5*

2 늦가을 고독에 반하는 시선 속에서 *25*

3 겨울을 기다리는 시선들[무주리조트] *42*

4 가을에 그냥 풍덩 빠지는 그런날 *61*

5 은밀하게 위대하게 가을에 빠지다[대구가톨릭대학교] *81*

6 경주 밤 빗속을 달리는 빛들의 향연 *100*

7 저무는 가을이라도 열정은 남아있다 *119*

8 비오는 경주의 밤거리를 헤매다 *138*

9 풍락제 가을 바람을 즐기는 방법 *157*

10 바스락 바스락 가을길의 매력을 거닐다[영남대학교] *175*

11 [다음뷰]좀더 잘살기 위해 바쁜 걸음을 걷다(DAY 6) *195*

12 [다음뷰]루돌프신드롬.. 곁에 머물길 바라는 마음(DAY 5) *207*

13 [다음뷰]하늘빛 겨울강이 아침을 흐르고(DAY 4) *229*

14 [다음뷰]당신과의 소통으로 행복했던 2013!(DAY 3) *249*

15 [다음뷰]계절은 겨울속으로 걸음을 걷다(DAY 2) *288*

16 그냥 조용히 바라보고픈 풍경에서(DAY 1) *307*

17 가끔 그런날이 있습니다...지금이 그런 날입니다(DAY 0) *318*

18 D-1 잊지않아요....잊지말아주세요 *325*

19 D-2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344*

20 D-3 오랜고민....그리고 고민 *360*

21 혼자인게 때론 외롭더라(DAY 15) *378*

22 하얀 눈처럼 순수하게 좋아합니다(DAY 14) *392*

23 거리가득 쌓인 발자국 소리(DAY 13) *407*

24 세상은 가진자에게 더 많은것을 보여준다(DAY 12) *422*

25 [2013다음우수블로그]이웃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DAY Happy) *437*

26 빙그레 웃음이 나는 설원위에서(DAY 11) 483
27 도시가 아름다움을 입을때(DAY 10) 498
28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어 지는건..(DAY 9) 512
29 즐기는 것에 한계는 없다 용평 D-Container(DAY 8) 525
30 [다음뷰]심플하고 단순하게 그것이 멋진것(DAY 7)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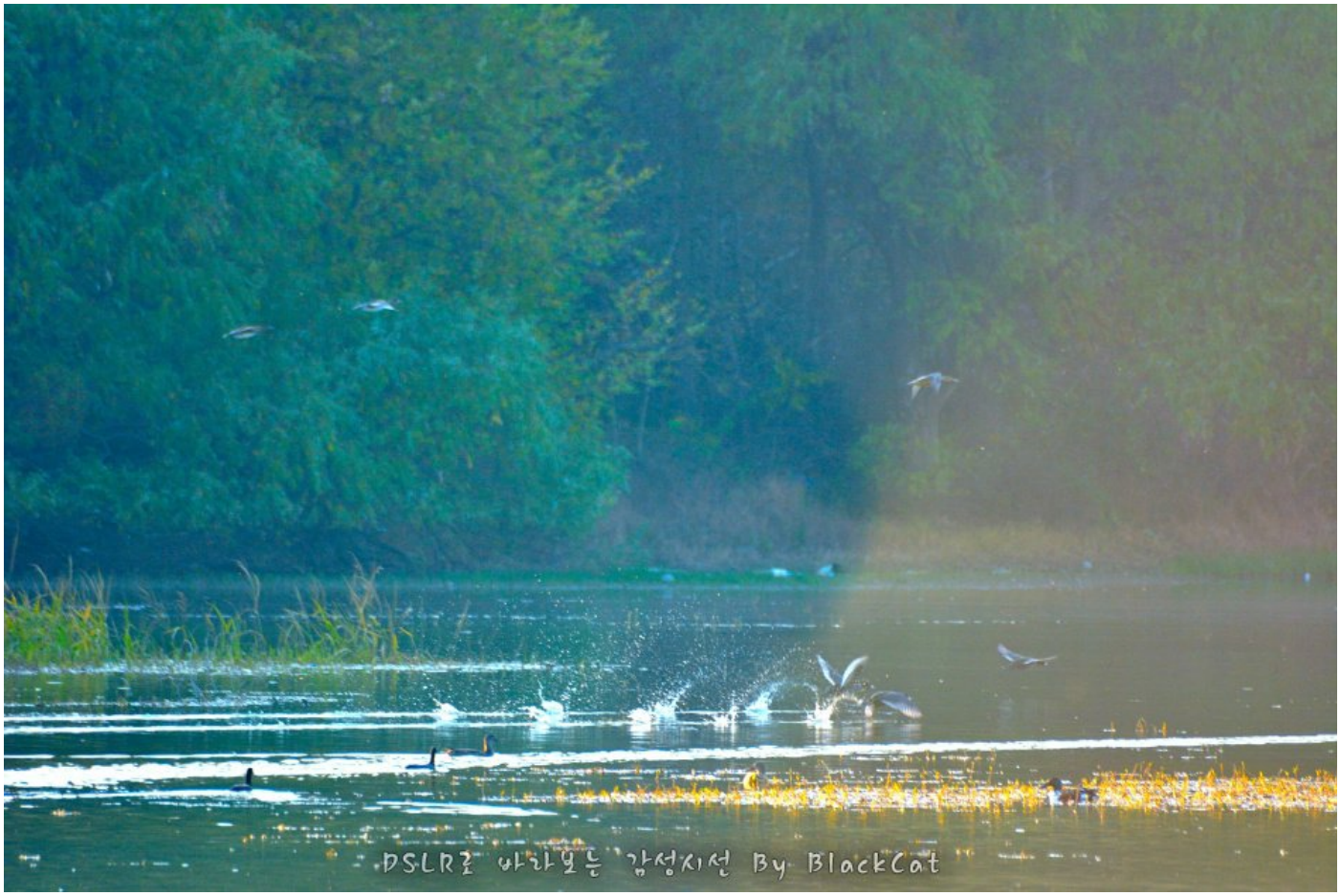
01

멀어지는 가을빛에 마음이 물들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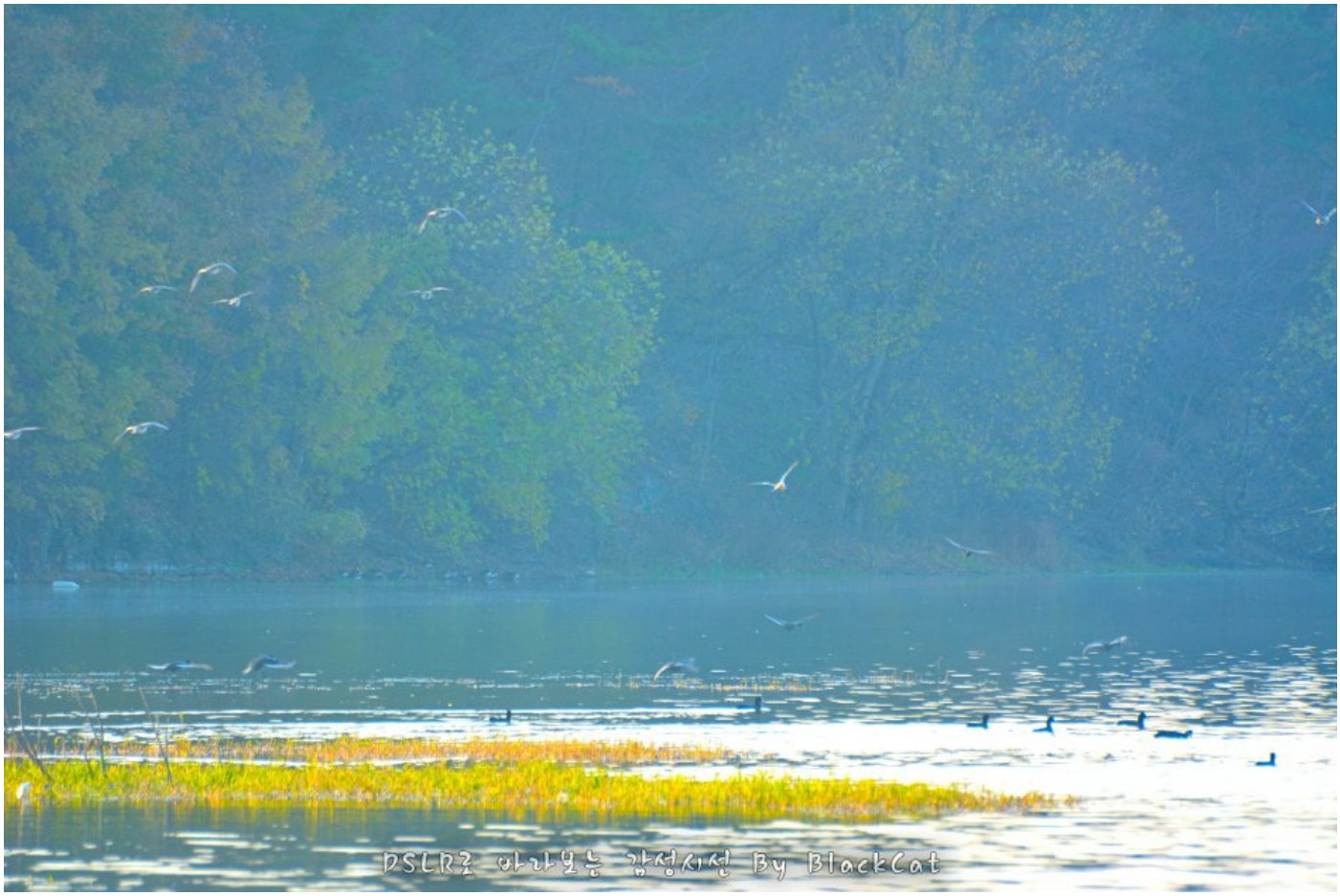
마지막 가을은 그렇게 생명의 싹을 허공으로 날려보내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연못의 가장자리는 언제나 분주함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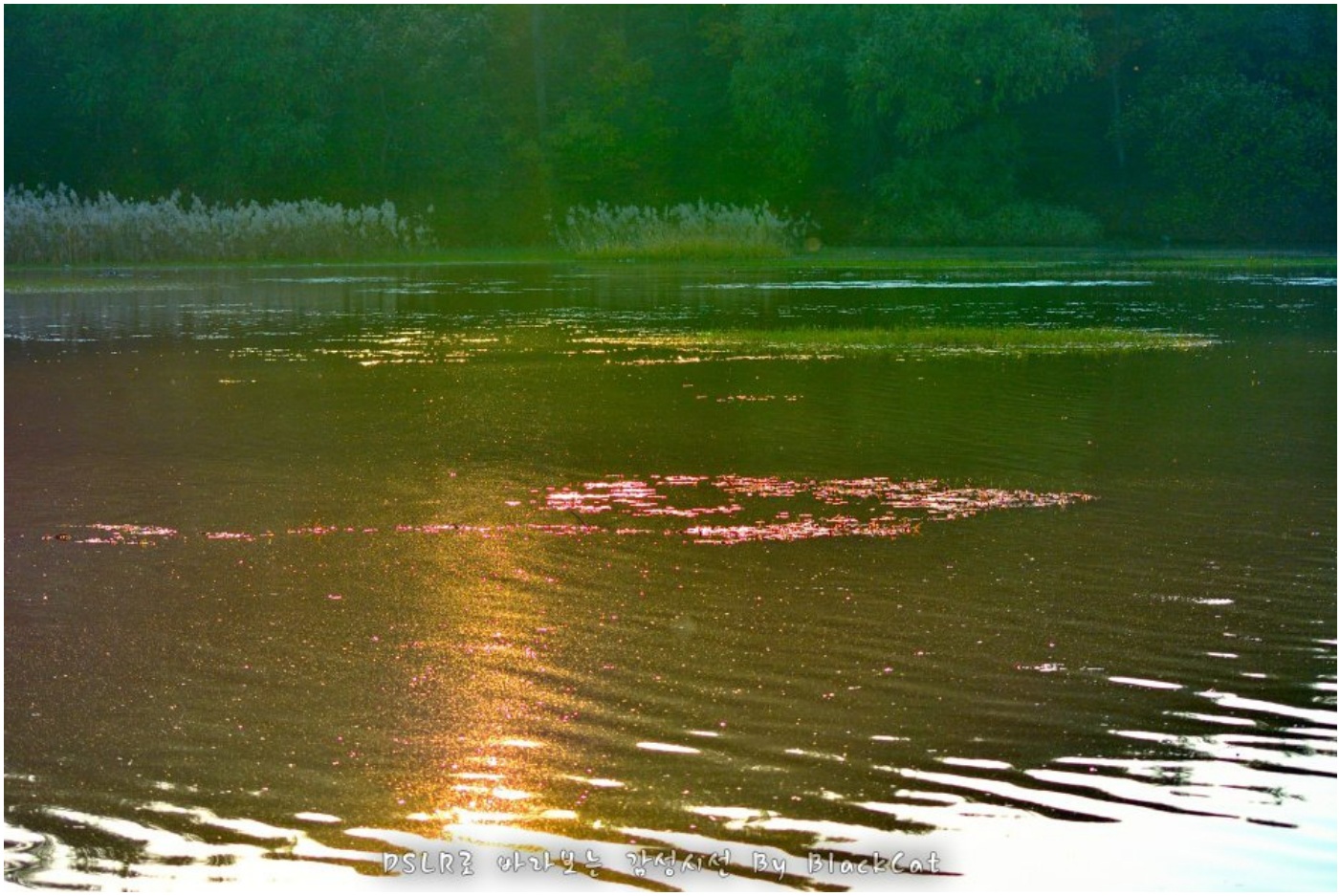
텅비어버린듯.... 제품의 모든것을 꺼내 두었지만



비어진 그 공간의 틈바구니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또다시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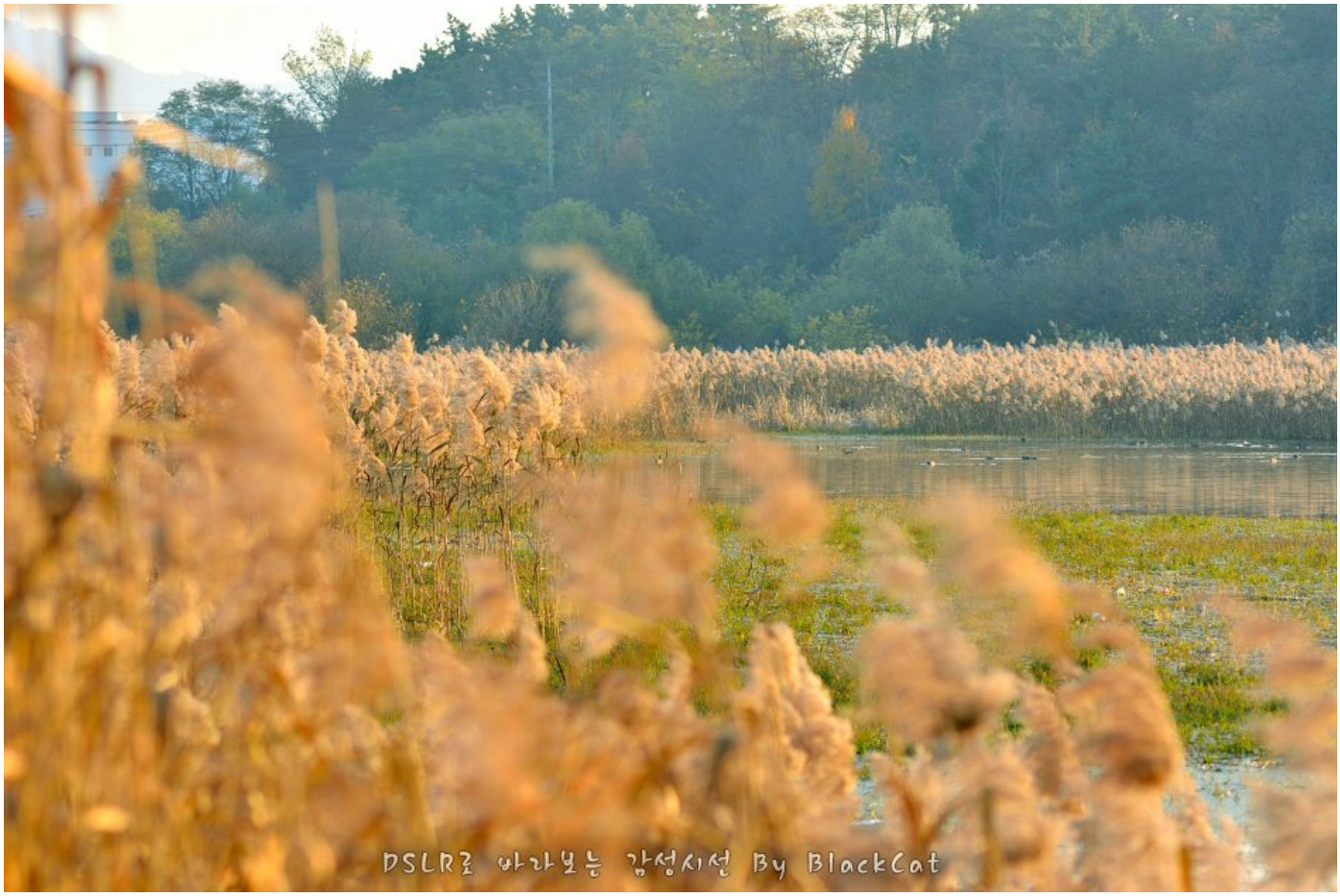


한여름.. .태공들의 마음을 빼앗은 그곳엔 겨울철새들의 보금자리로



혹은.... 또다른 계절을 준비하는 수많은 알수없는 생명들이 싹을틔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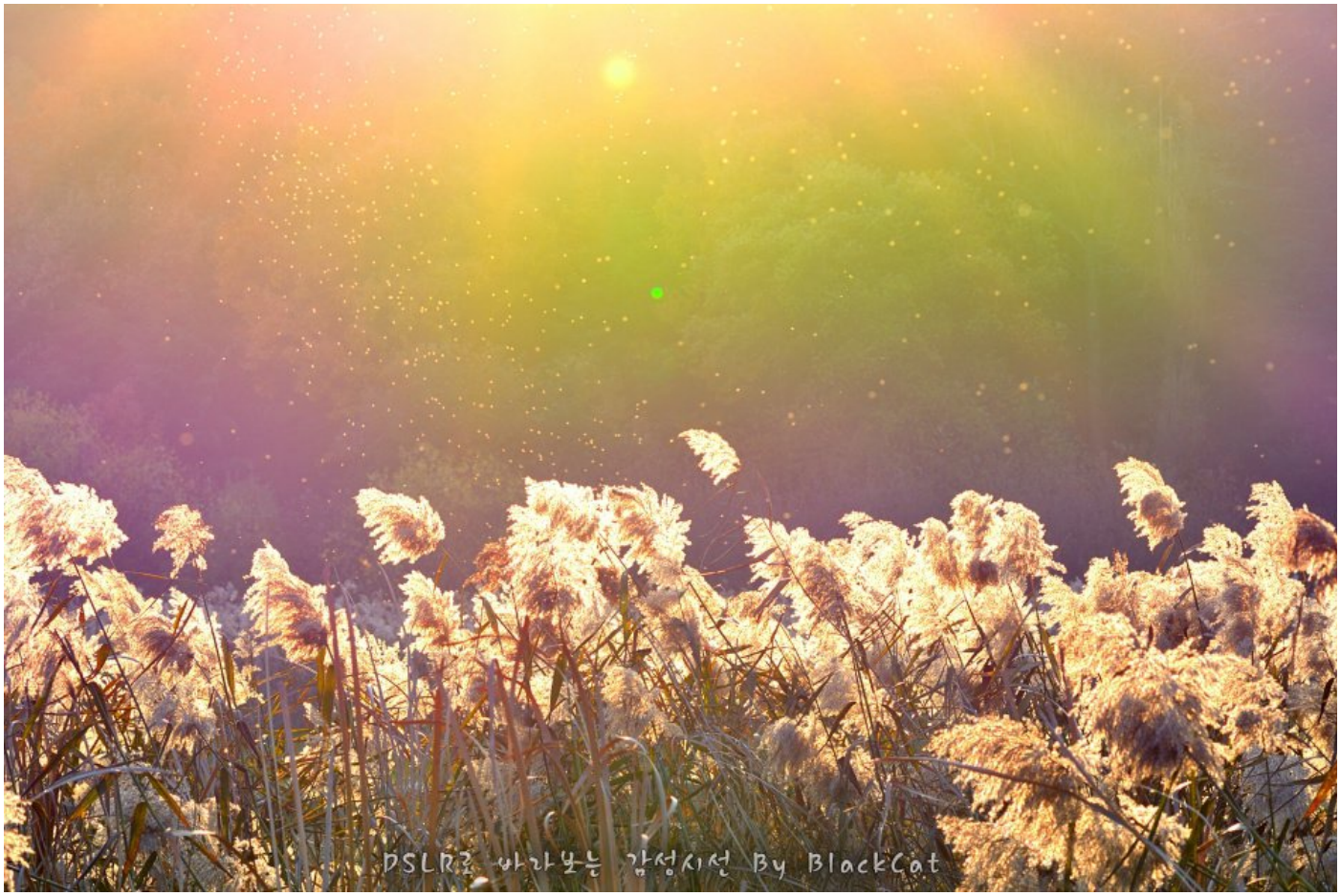
보이지 않을.. .아니 보려하지 않은 그곳의 치열한 삶은 아직도 끝이없다



단순히 그져 우리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이해하려 아니.. 평가 지으면 안된다

계절의 끝이란 마음은 그저 우리의 잣대일뿐

분화하듯.. 끝없이 자신의 생을 더한 바람을 뿜어내는 그들의 모습에



생을 재삼아 생을 피워내는 그들의 끝없는 삶을 엿보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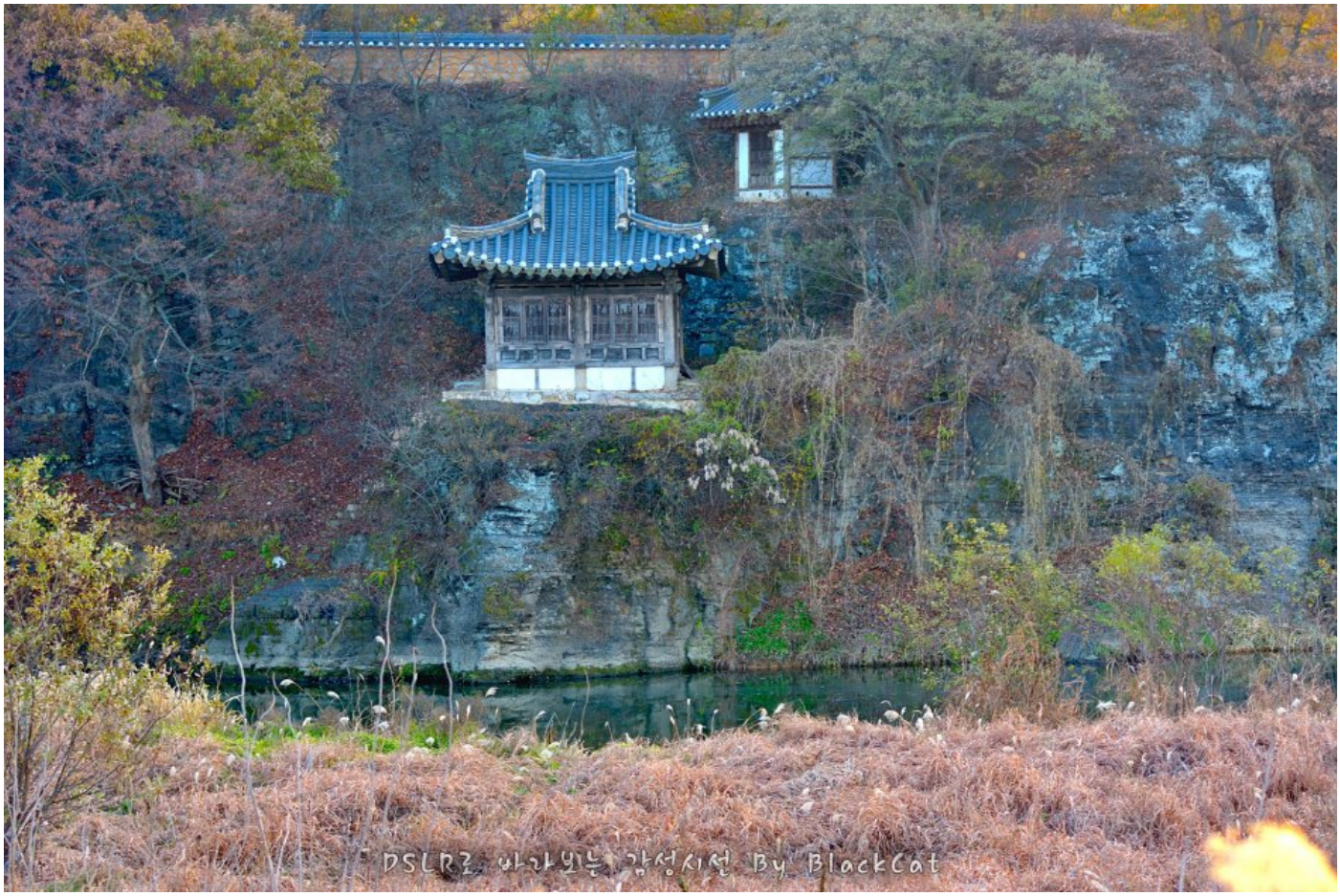
얼마남지 않은 계절이라 마음을 생각을 단정하지 말자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이란 말처럼...

그저 제 모습을 잠시 바꾸고 있을뿐.... 삶은 끝이 없다

멀어지는 가을을 떠나보내며..... 또 다시 돌아올 모습을 기다리며

아직 나누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아쉬움을 품고



몇억년의 세월이 그러하듯.. 다시 돌아올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

멀어지는 가을속 풍경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의 명장면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행복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아쉬운 가을을 바라보는 시간속에서(문천지인근)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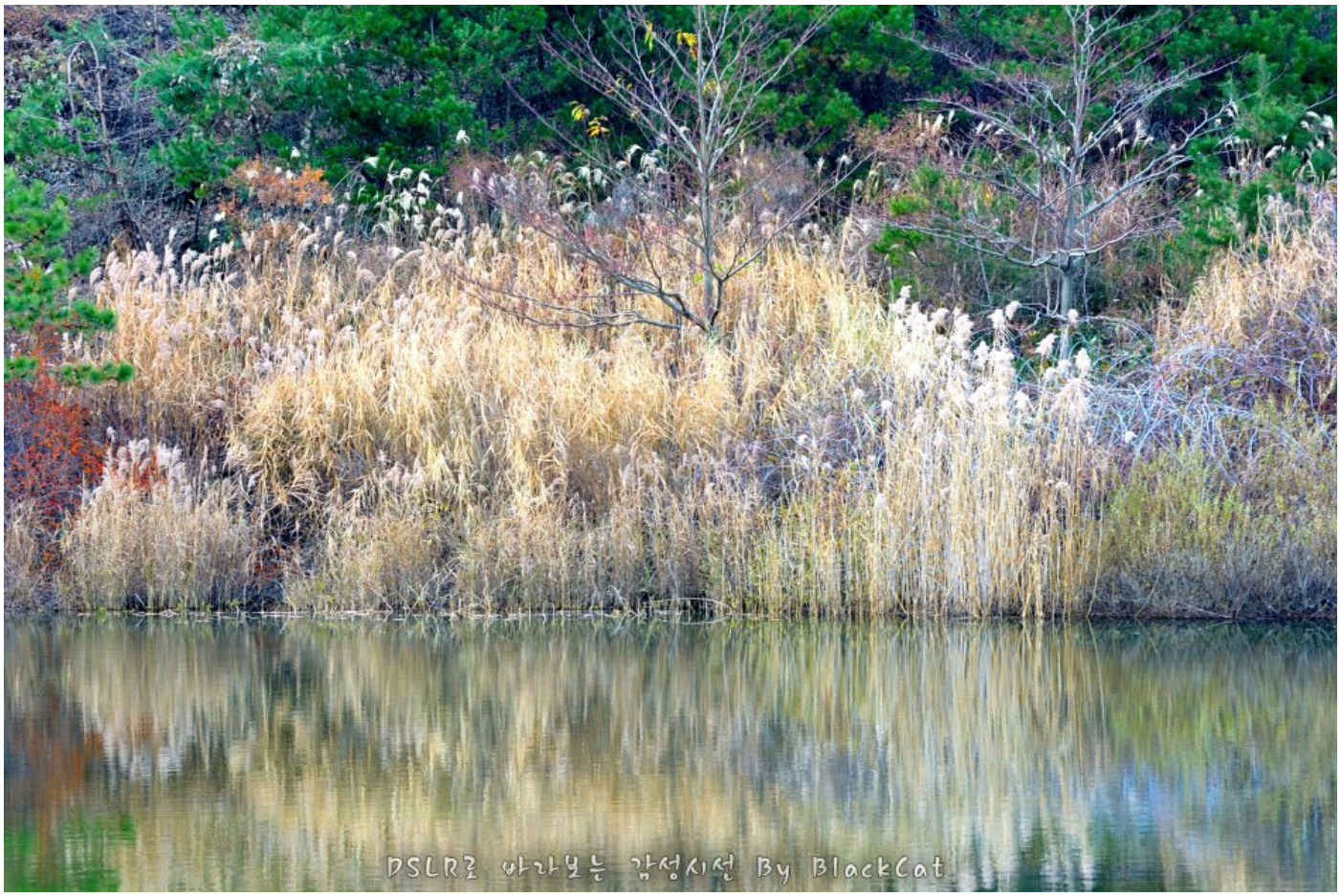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02

늦가을 고독에 반하는 시선 속에서

늦가을 고독에 반하는 시선 속에서

2013.11.20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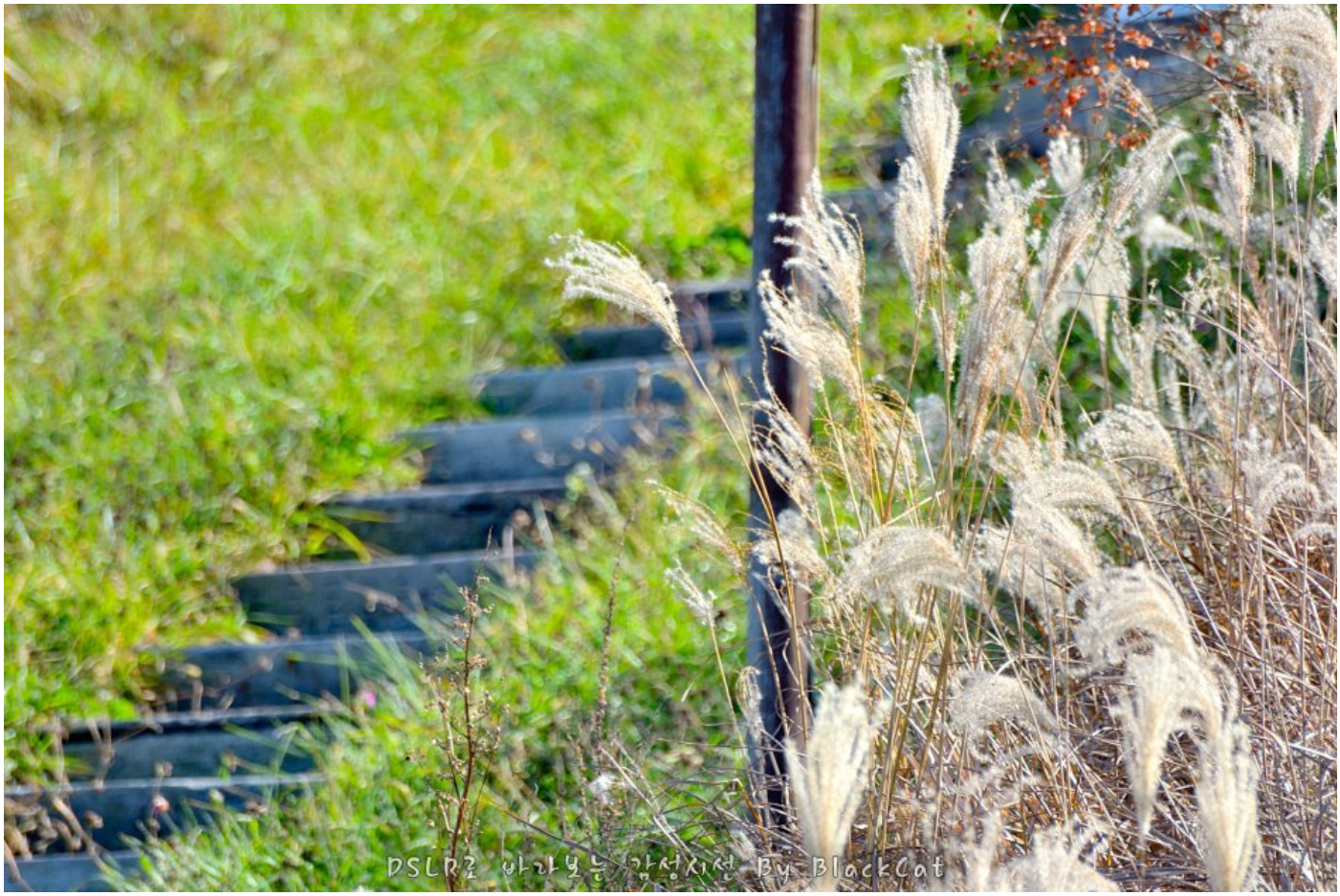


낙엽을 모두 떨어뜨린 가지는 이는 바람에 홀로 외로움과 노닐고

추수를 끝낸 텅빈 논엔 시리도록 차가운 하늘만 내린다

산허리를 휘감은 알록달록의 단풍들이 곧 이별을 예감하듯

그저 앞만보고 달려온 세월만큼 아쉬움이 가득한 이 가을의 소경



텅 비어가는 가슴한켠엔 외로움이 똬리를 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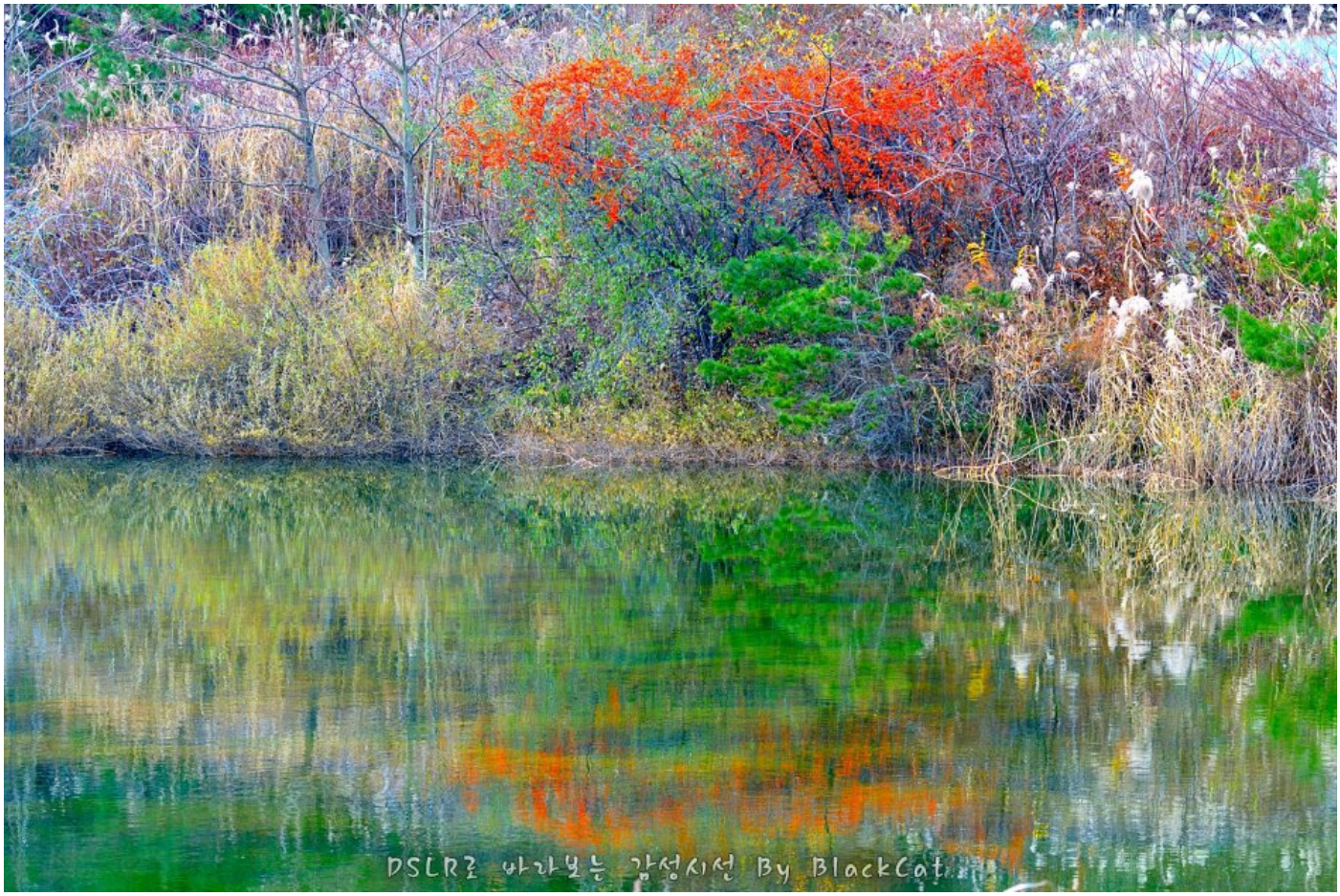
익숙하지 않을 고독 속으로 그리 홀로... 가을은 기을 떠나고

텅비어버린 어둠속에서... 아직 마음은 빈방을 찾아 둥지를 틀지 않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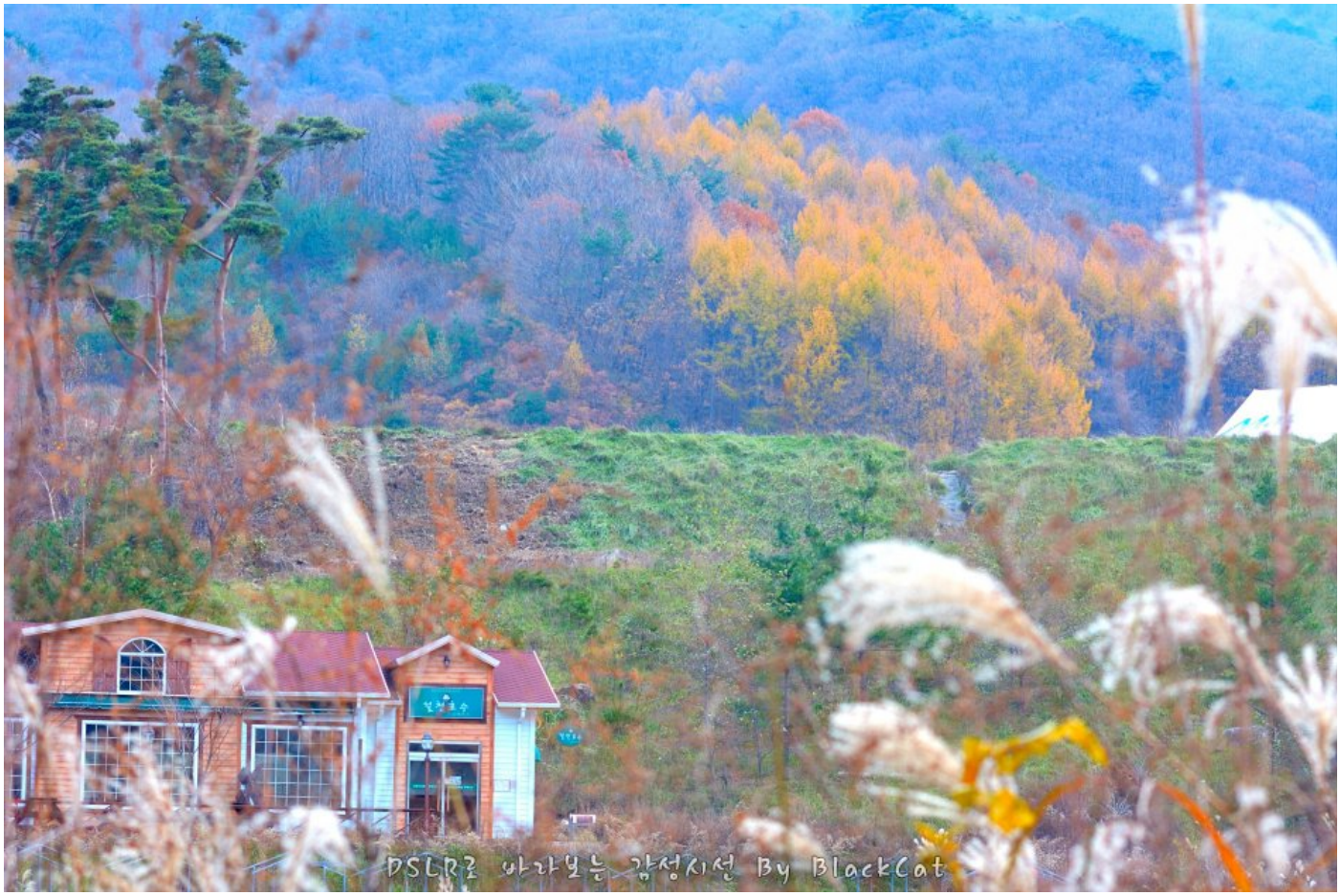
시린 늦가을의 밤하늘엔 저마다 외로운 별빛만이 반짝인다

남겨진것.... 남아야 하는것... 그리고 이별속에 마주선 그림자들이

아직 제 이름한번 불려보지 못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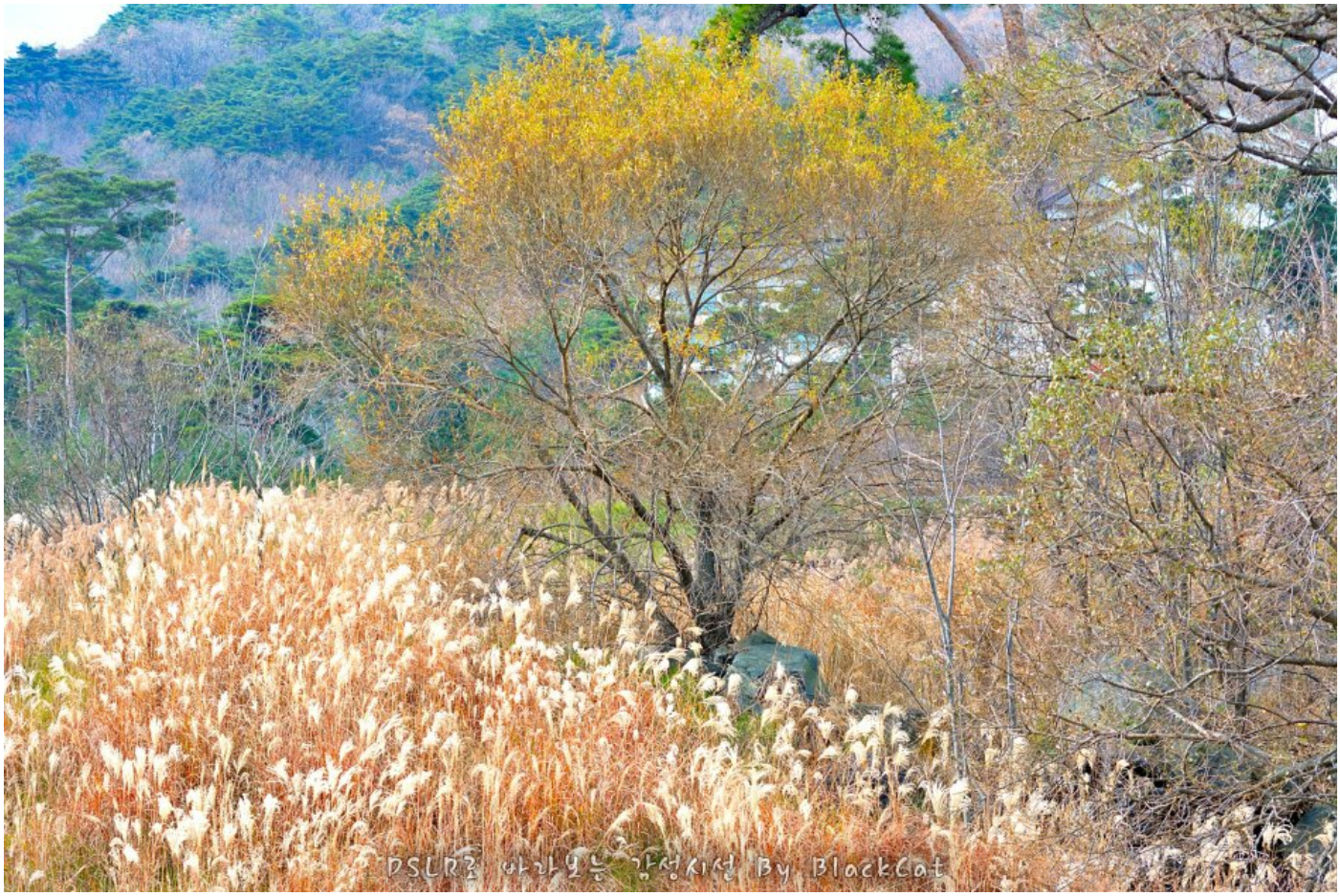
설천호... 그 푸르른 호수위로 머리를 늘어뜨려



아쉬운 가을의 눈물을 씻어낸다

아직도 피어내지 않은 소중한 인연과 이야기들을 머금고

늦가을.... 계절은 조용히 함구와 무심한 바람만 쏘아보내는 날



나는 늦가을의 품으로 조용히 길을 걸어간다

그가 떠난 길가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어 평안의 안부를 물으며....

가을... 그 늦은 인사를 건네고 있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가을에 물들어 가는 무주리조트에서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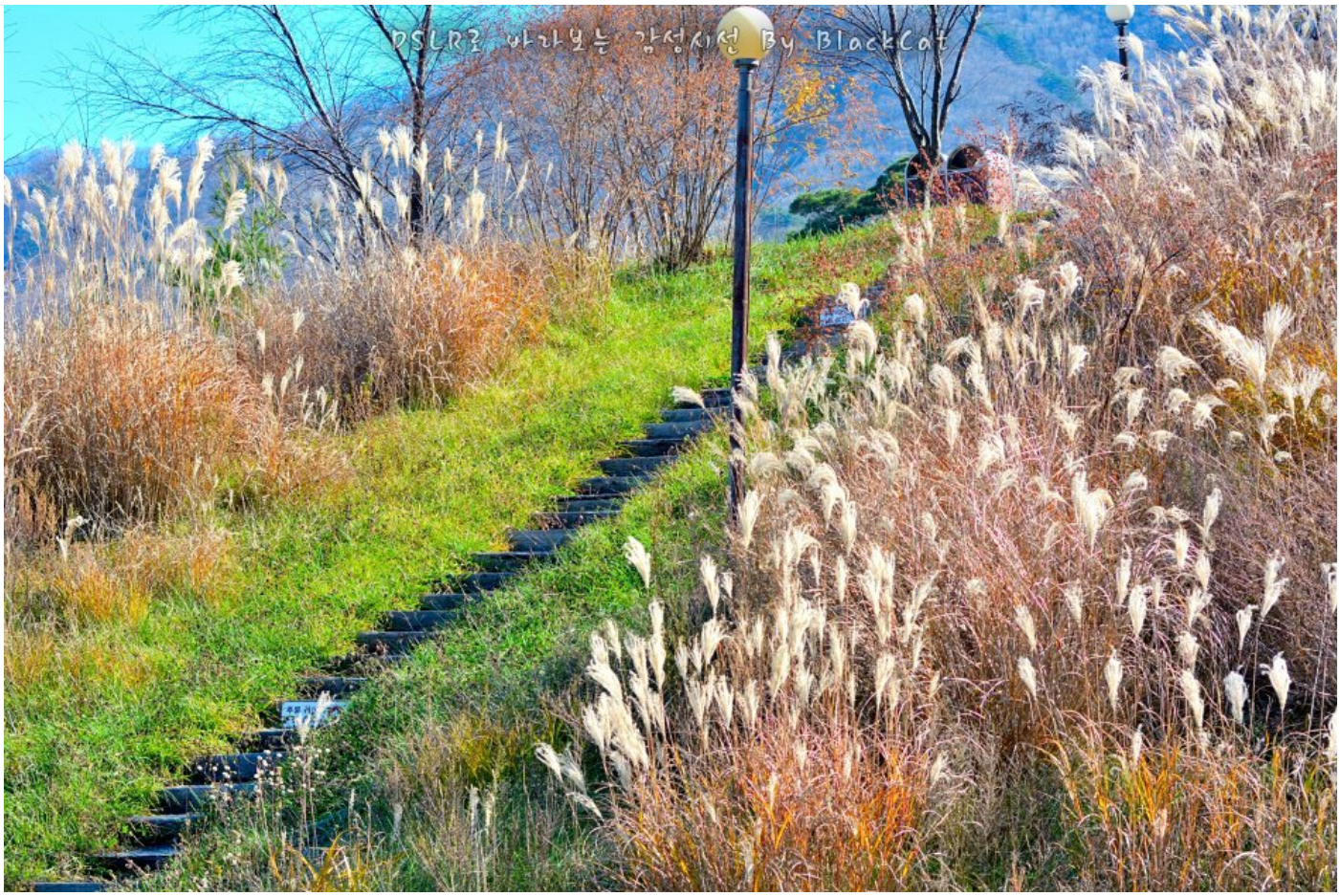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03

겨울을 기다리는 시선들[무주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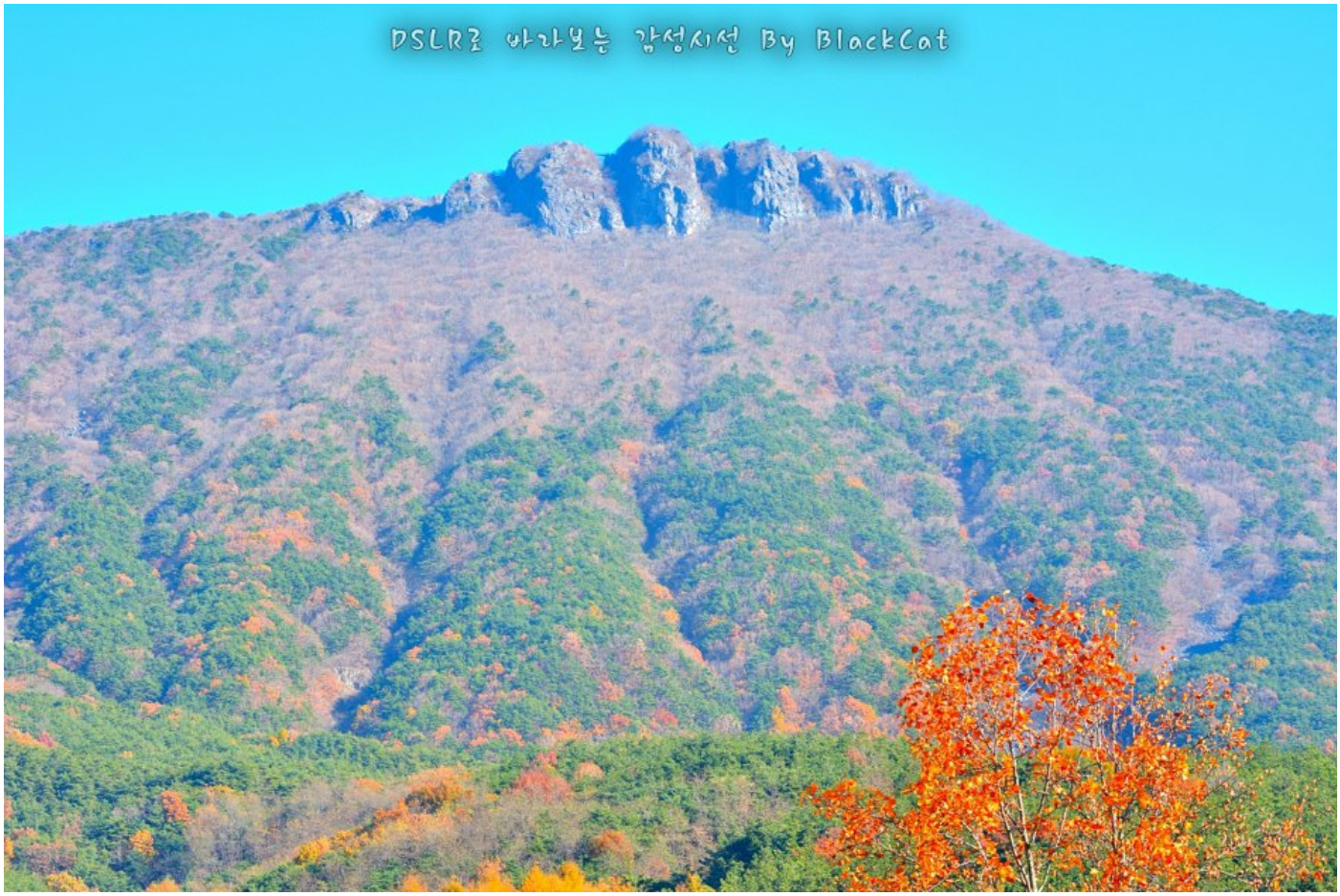
겨울을 기다리는 시선들[무주리조트]

2013.11.19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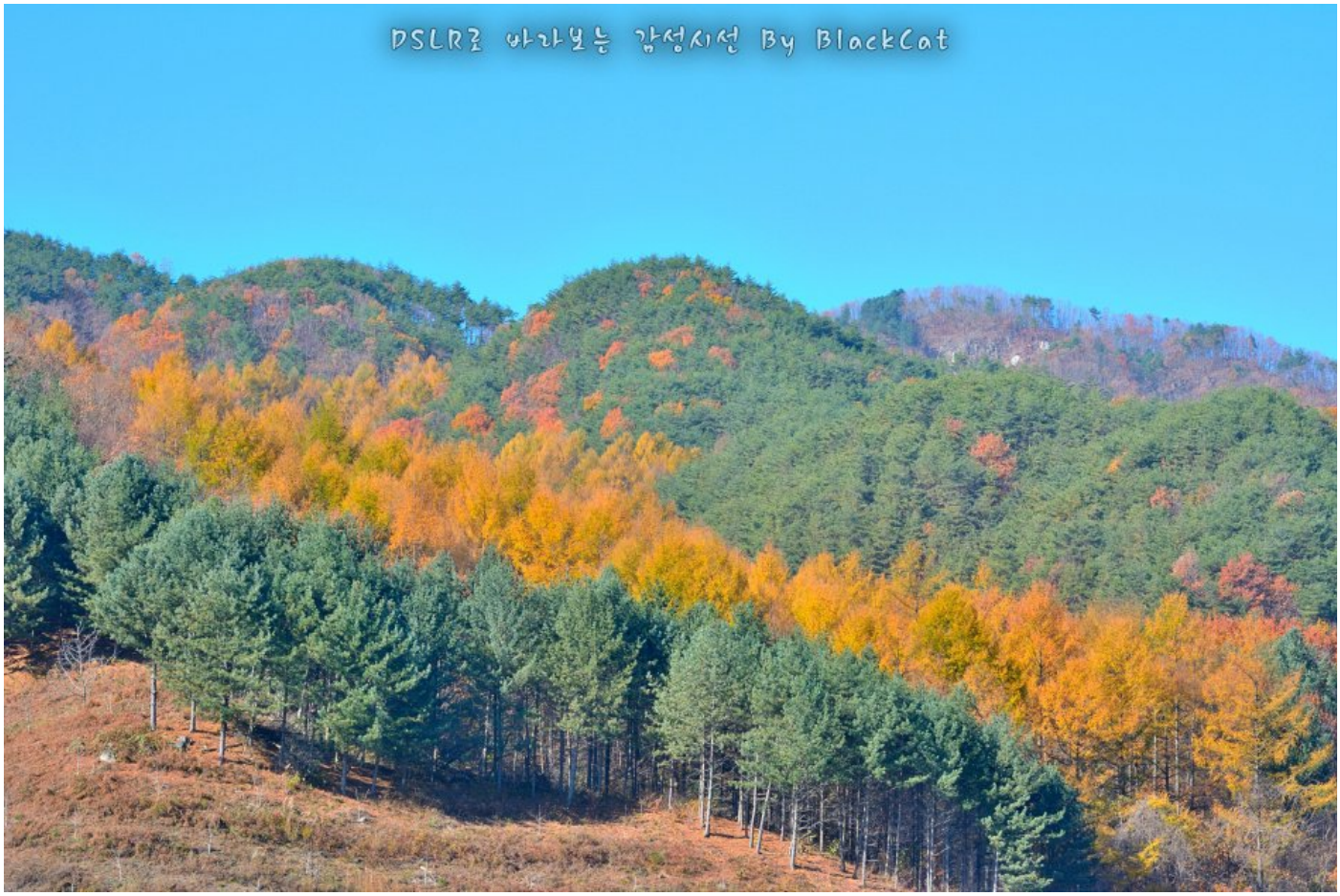


경계선에 서있는 순간..... 헤어짐의 아쉬움과 기다리는 설램이 요동을 친다

구름한점없이 청명한 하늘..... 채 가을을 즐기지도 못한것 같은데...



계절은 화려한 옷을 벗고 순백을 맞을 준비를 하는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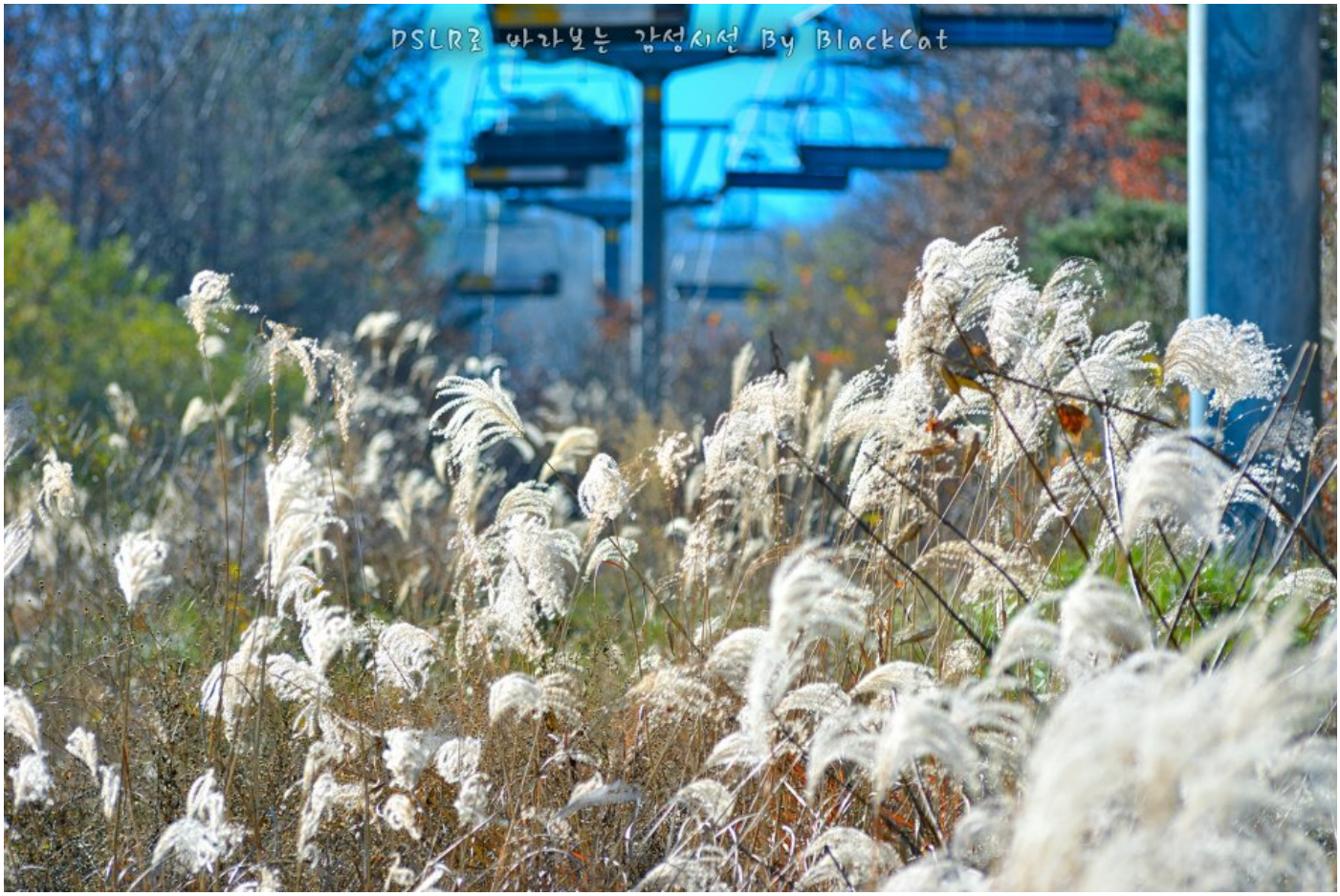
미리 이른 겨울을 맞으러 무주리조트를 떠나던 발걸음을.. 무겁게도 끌어당기던 많은 풍경을 보며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이전보다 늦은 추위때문인지... 하얀 설원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은 고스란히... 이곳 무주리조트를 달려나가고

초록의 들판은 가을을 채 꺼내입지도 못한채.. 차가운 산바람에 하얗게



골프를 치는 사람도 보드를 즐기는 사람도 없지만...

늦가을 스키장엔 찾지않고 기다리지 않는 계절이 가득 남아

피고지고 계절의 풍요로운 모습으로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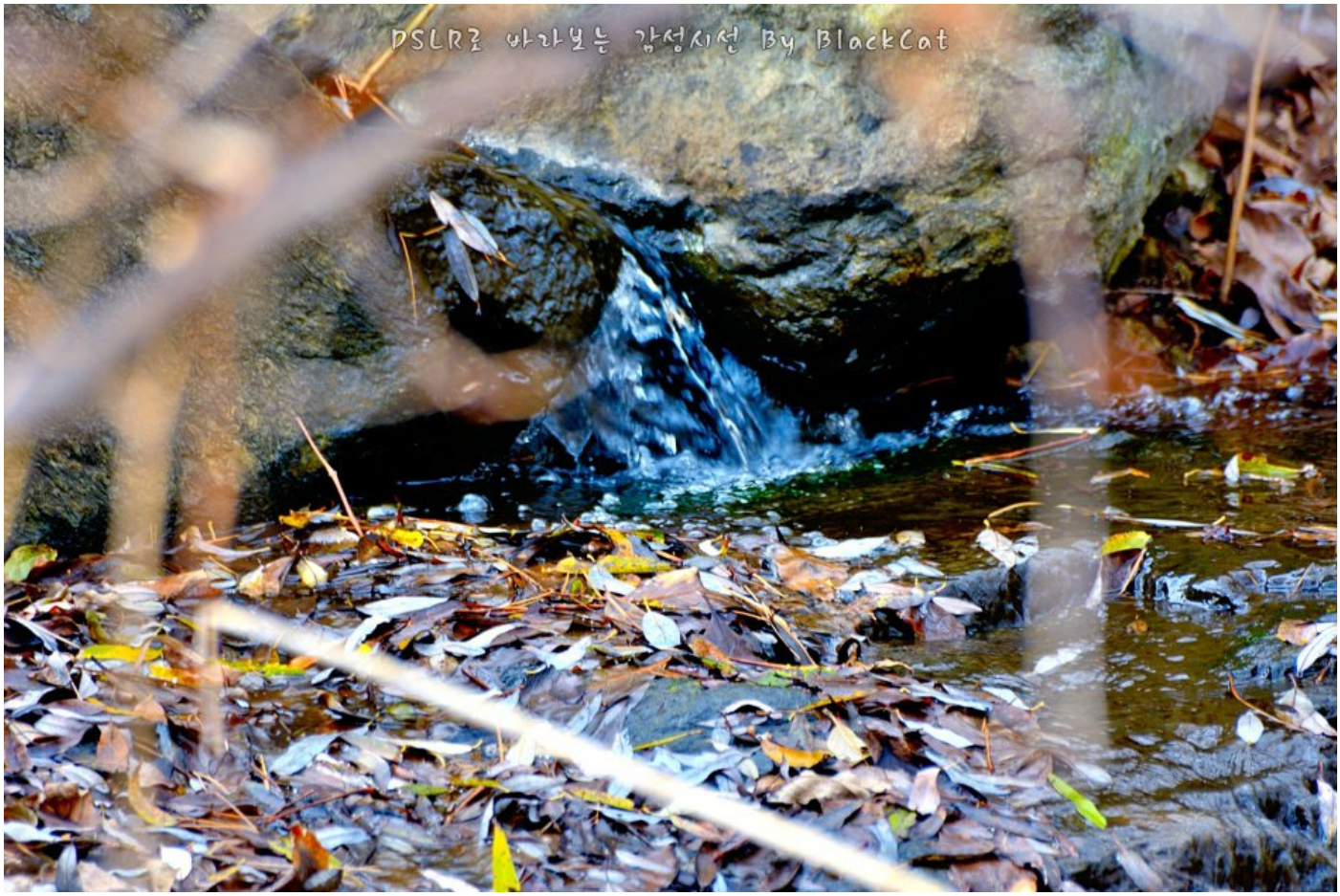
차가운 산바람도.... 거침없이 내려쬐는 햇살도... 모두가 어울려

떨어진자리에 가을의 빈틈바구니를 열심히 채워가는 풍경

떠난자리엔 아쉬움이 남을줄 알았건만... 비워둬야 비로소 보이는 많은것이

가득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아름다울수 있음을

조금씩 빈자리를 허락하는 무주리조트의 풍경속에 사색을 즐긴다



비우는 곳이 있어야 다시 채워질 공간을 만들고...

비워버린 공간을 만들어 다시금 추억을 쌓을수 있음을....

니콘D7100 + 시그마70-300 늦가을.... 아직 담을것이 많이 남은 무주리조트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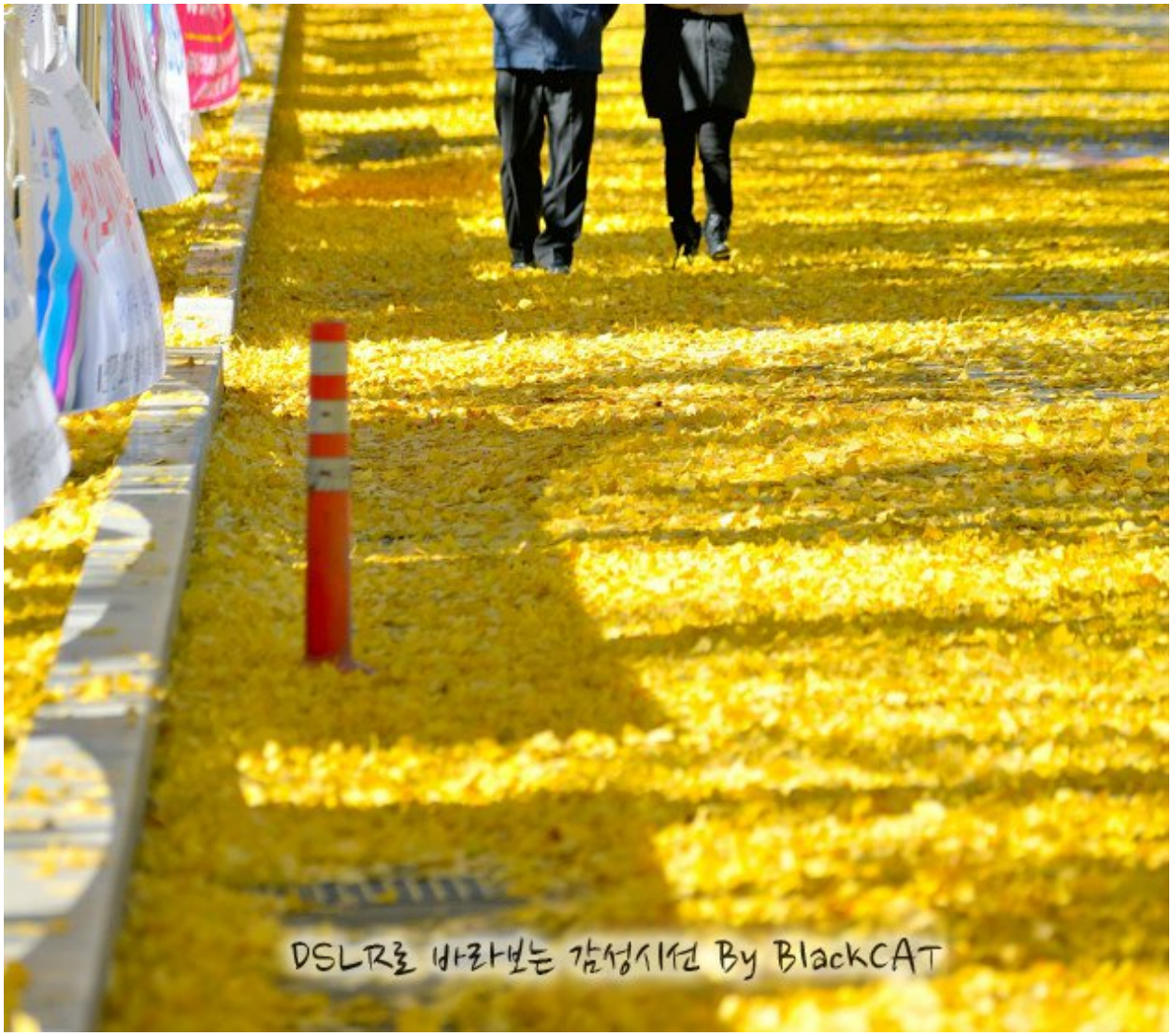
가을에 그냥 풍덩 빠지는 그런날

가을에 그냥 풍덩 빠지는 그런날

2013.11.18 06:00

가을을 좀더 즐기고 픈 마음인데... 왜이리 빨리 떠나려는지... 야속한 마음은
견공도 나도 한마음이었다

황금이 쏟아지는 가을풍경 속에....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말이 필요없고... 바라보는 시선만으로도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날..

그냥.. 그렇다... 가을날은 그저 바라보고 걷기만 해도 행복에 빠져든다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내 걸음걸음을 다시 소복히 쏟아지는 황금 은행잎을 되돌아 볼 이유도

PLAYTHING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아쉽다 이야기할 이유도 없이... 가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웃음을 주고

추억이되고 미소가 번지게 만들어 준다... 가을...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차들도... 이 황금빛 앞에서는 느릿한 달팽이가 되고
꾹 닫힌 창문도 살포시 열어 가을 냄새를 끌어 들인다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누군가는 가을에 행복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가을에 배가 부르고... 또 누군가에겐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또다른 일거리를 던져.. 분주한 하루를 가질테지만

그래도 가을은... 그런것 같다.... 놓아주기 싫고... 천천히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기싫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순응해야 하고... 지나갈 시간을 미련하게 멈추려 할수도 없다

가을... 그냥 그렇게.... 마음속 가득 풍경만을 남겨두어야할 뿐.....

니콘D7100 + 시그마70-300 가을에 빠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캠퍼스를 노닐다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05

은밀하게 위대하게 가을에 빠지다[대구가톨릭대학교]

은밀하게 위대하게 가을에 빠지다[대구가톨릭대학교]

2013.11.17 06:00

소리 소문도 없이.... 그렇게 황금빛 은밀한 가을은 위대하게 다가왔다

황금이 바부끼는 길을 거닐면 어떤기분일까... 그날 난 그 황금속에 표정을 바라보게 되었다

집근처 대구가톨릭대학교..... 아주 어렸을적 이곳에 이사를 와... 당시 학교를 꾸미기 위해...
심어 두었던 단풍들이... 어느세... 이리도 거목이 되었는지

조용한 주말오후... 청소되지 않은 길은 온통 황금에 빠져들었다

가을의 정취에 취해버린 풍경이.. 황금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표정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황금을 담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지금 이 길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을까 엉뚱한 상상이 더해진다

누구나 비단옷을 입고.. 황금밭에 수영하는 상상을 그리고 그런 꿈을 꾼적이 있을것이라

어릴적... 만화동산의 도날드덕의 황금수영장을 매번 상상했었는데

비록 물질적인 부분의 충족은 아니였지만... 황금이 쏟아지는 풍경속에 서있는 모두는

같은 것에 같은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품었을 것이다

걱정없이 그냥 놀이터가 되어버린 이장소에서 어른도 어린이가 되는 마음을!

길위에 모든 이들이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아무렇지 않게 길위에 앉아 아이들처럼 단풍을 뿌리며

조금이라도 더 이 위대한 가을속에 머물고자... 걸음은 천천히 천천히...

일부러 근엄한 표정.... 남들의 시선에 괜히 옷깃을 여밀 필요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이 가을의 은행나무길....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신경쓸 틈도 없이... 가을은 은밀하게 이미... 세상을 위대한 풍경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대구가톨릭대학교 은밀하게 위대하게... 가을 은행나무길을 즐기다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06

경주 밤 빗속을 달리는 빛들의 향연

경주 밤 빗속을 달리는 빛들의 향연

2013.11.16 06:00

모든것이 고요하다... 적막하게 내리는 빗소리와 셔터소리만 감돌뿐

보문정에 가을이 참 곱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달려갔거늘....

가을이 오늘은 심술이 났던가 보다....

가을의 빗속 촬영은 처음인지라... 이것 저것 새로운 것 투성이.....
그래도.. 빗속에서의 야경은 특유의 멋이 배어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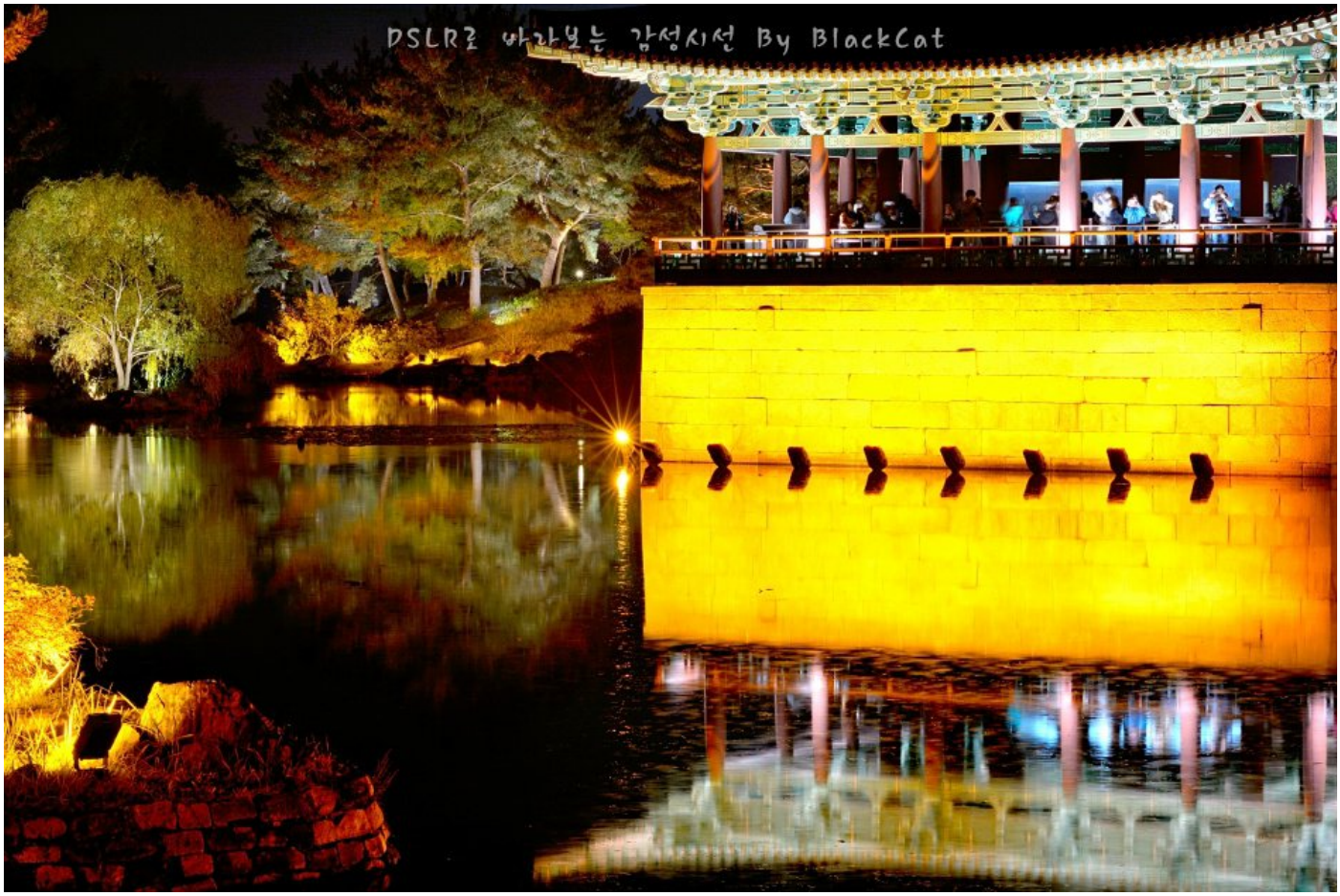
반질반질한.... 수면위를 거세게 때리며 파문을 만드는 모습도

우산을 쥔 바쁜 발걸음들도..... 이때가 아니면 담을 수 없음을...

항상 야경을 담을때면... 치열하게 자리싸움... 그리고 싫은 눈초리를 받은 적도 있었거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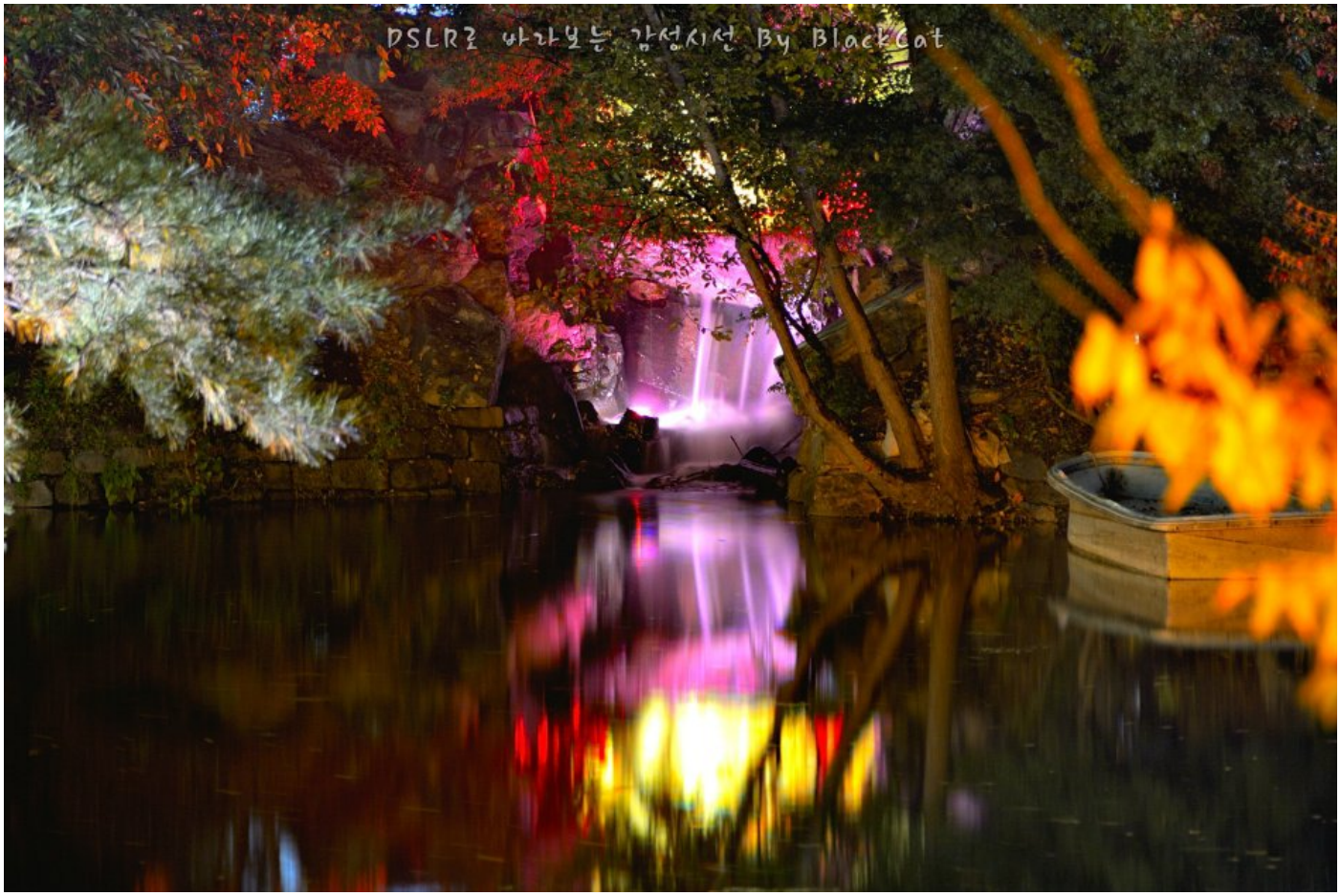
오히려 동떨어져 차분한 마음으로... 컷마다 담는 순간의 추억들이 쌓여간다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어둠과 빗소리.. 그리고 빛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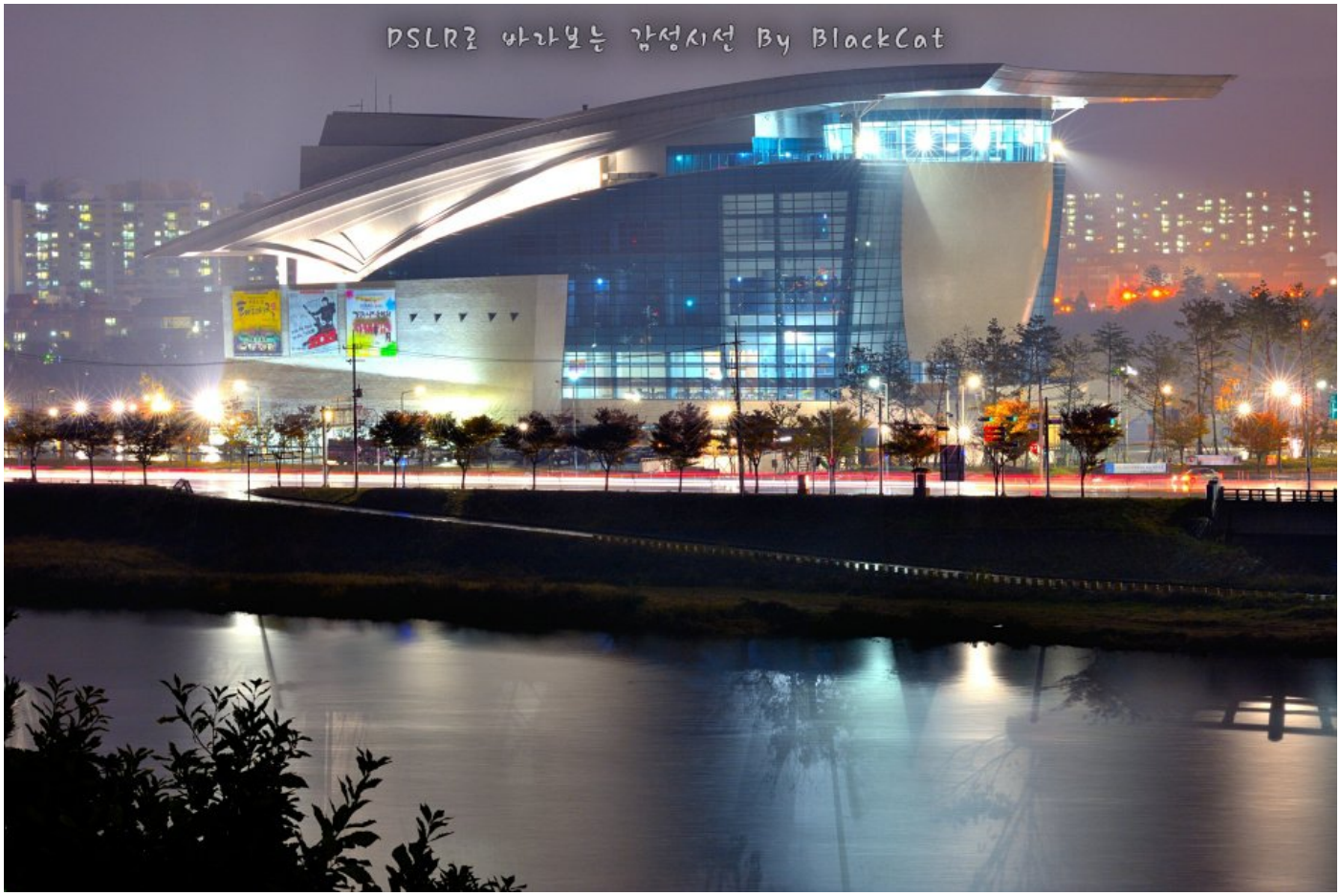


항상 붐비던 경주의 밤이 이리도 조용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니... 오히려 놀라움이 스며든다

평소라면... 출입이 되지않는 저런 장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사람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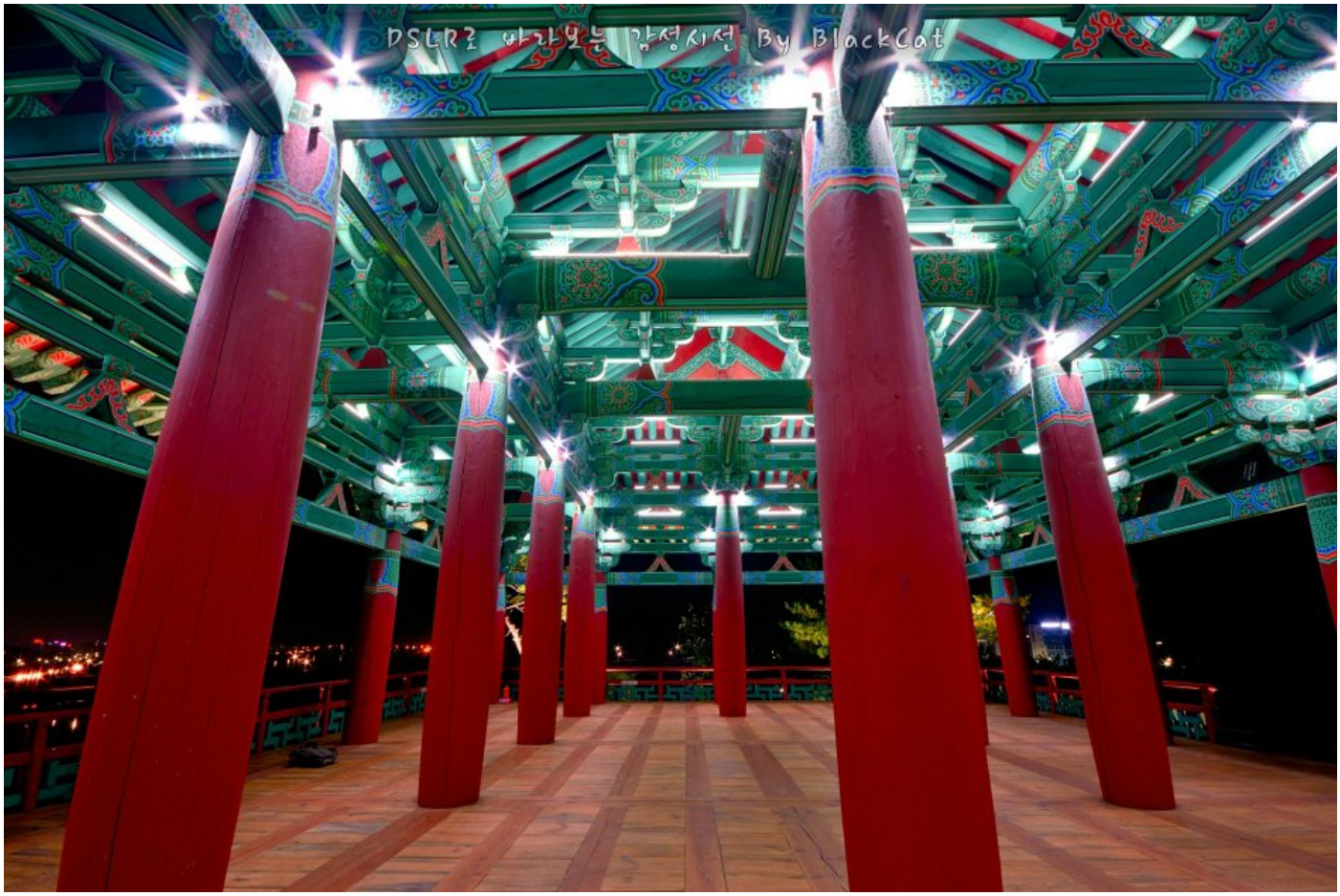
사진에 담고 나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도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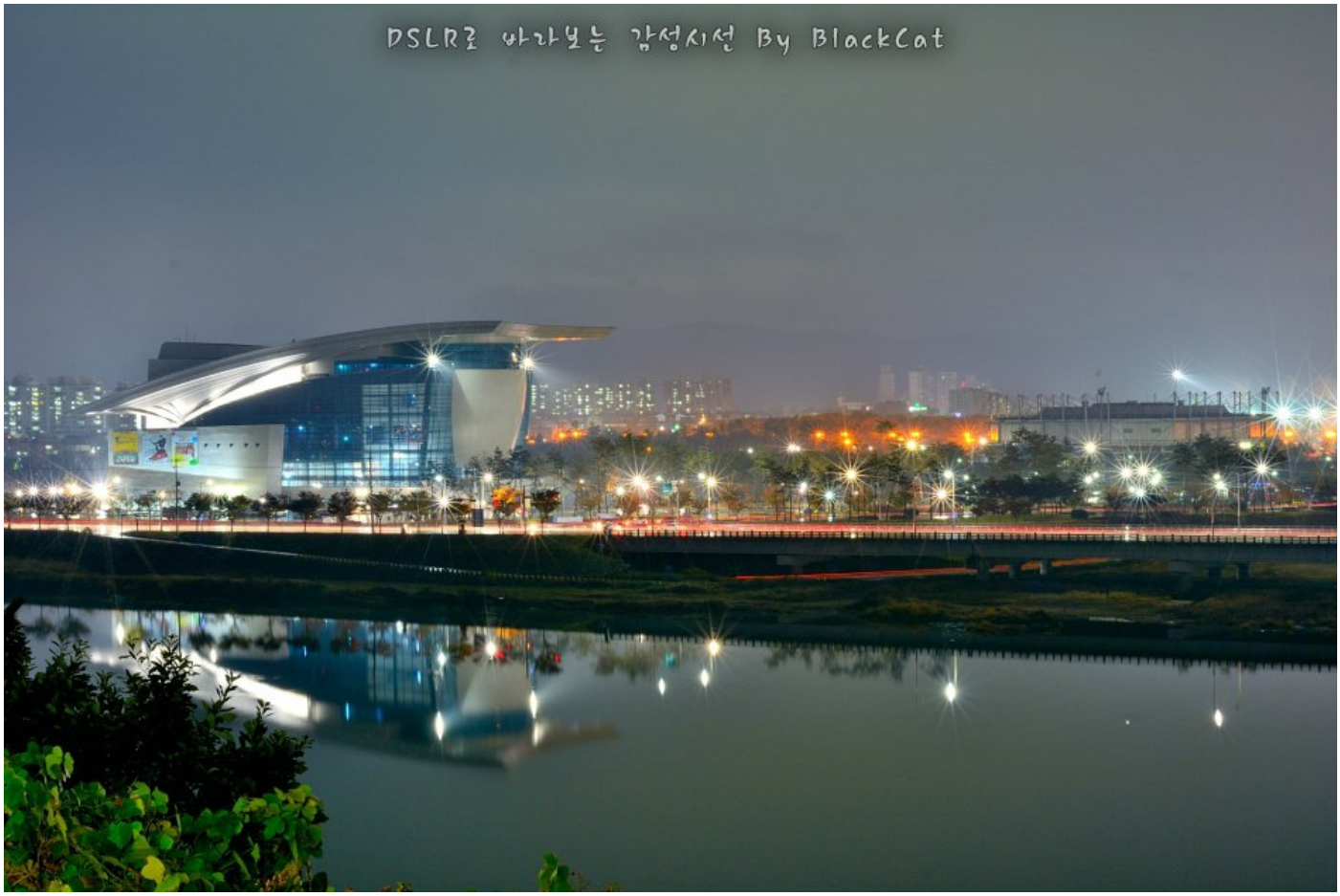
아... 밤을 홀로 누릴수 있다는 느낌이 이런것인가 보다

비가온다... 가끔 카메라를 위한다며 귀찮은 내맘을 숨겼던 것이 후회가 되는 풍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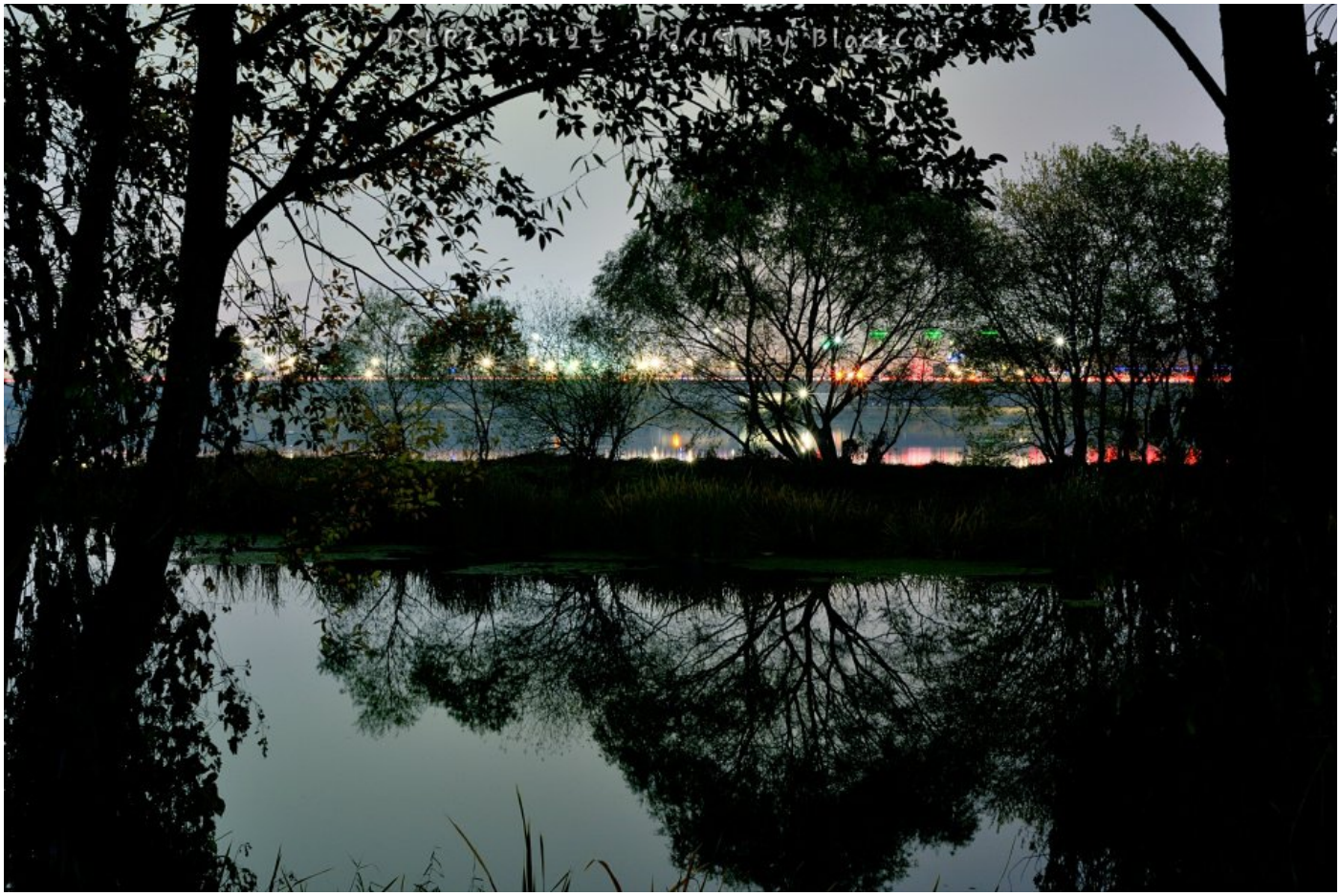
그리고 그 풍경을 오롯이 나혼자만이 즐기고 있다는 묘한 감정



야경.... 오롯이... 그 단어만을 내가 이해하고 즐길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그 가을.... 매섭게 내리던 빗속에서의 동행을 이렇게 또 한페이지 갈무리한다



왠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해적같이.... 감춰둔 과자를 발견한 어린이 같이...
슬쩍이 창문너머로 짝사랑 하는 이의 얼굴을 발견한 그런 이의 마음같이

숨겨진 경주의 또다른 모습... 그 비오던 날의 야경속에서.... 또하나 사진의 즐거움을 배운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 시그마10-20 + 니콘35mmf2D 고요한 야경이 즐거운 경주 금장대 & 안압지 & 보문정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니콘35mmf2d(니콘 구형 카페렌즈)

시그마10-20(시그마 광각렌즈)

07

저무는 가을이라도 열정은 남아있다

저무는 가을이라도 열정은 남아있다

2013.11.15 06:00

대학의 배움이란.... 이런게 아닐까!

언제부터 대학 20살의 낭만은.... 공무원이 되어버린걸까

언제였더라..... 선배들이 나에게 왜 열정이 없는지를 물었을때 부터였을까
대학의 낭만이란 단어는 어디로 사라진것일까?

흥청망청 노는것..... 술과함께 4년을 보내는것.... 얽매이고 숨막히던 책상을 떠나는것이
낭만은 아니라지만....

떨어지면 도퇴되고... 밀리면 죽어버리는것.... 어떻게든 남들과 같이
같은 곳을 향해 뛰어야 하는것이 지금의 20살 청춘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언젠가부터 주위에 아이들은 꿈이라는 별이 아닌

돈이라는 현실을 쫓고....대학은 전공이 아닌 그저....공무원 시험을 위한 그런 또다른 학교가 되어갔다

어쩌면.. 평생토록 사람은 배움을 갈망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배우는것이 아닌 그저 합격을 위한 무한의 굴레를 쳇바퀴 굴리듯... 달리고만 있다

자신의 꿈이 무언지도 모른체..... 무엇이 잘사는것인지 고민도 없이

틀에 갇혀.... 세상이라는 정이 자신의 틀을 깨어 멋진 인생을 조각하기만을 바라는
20살... 젊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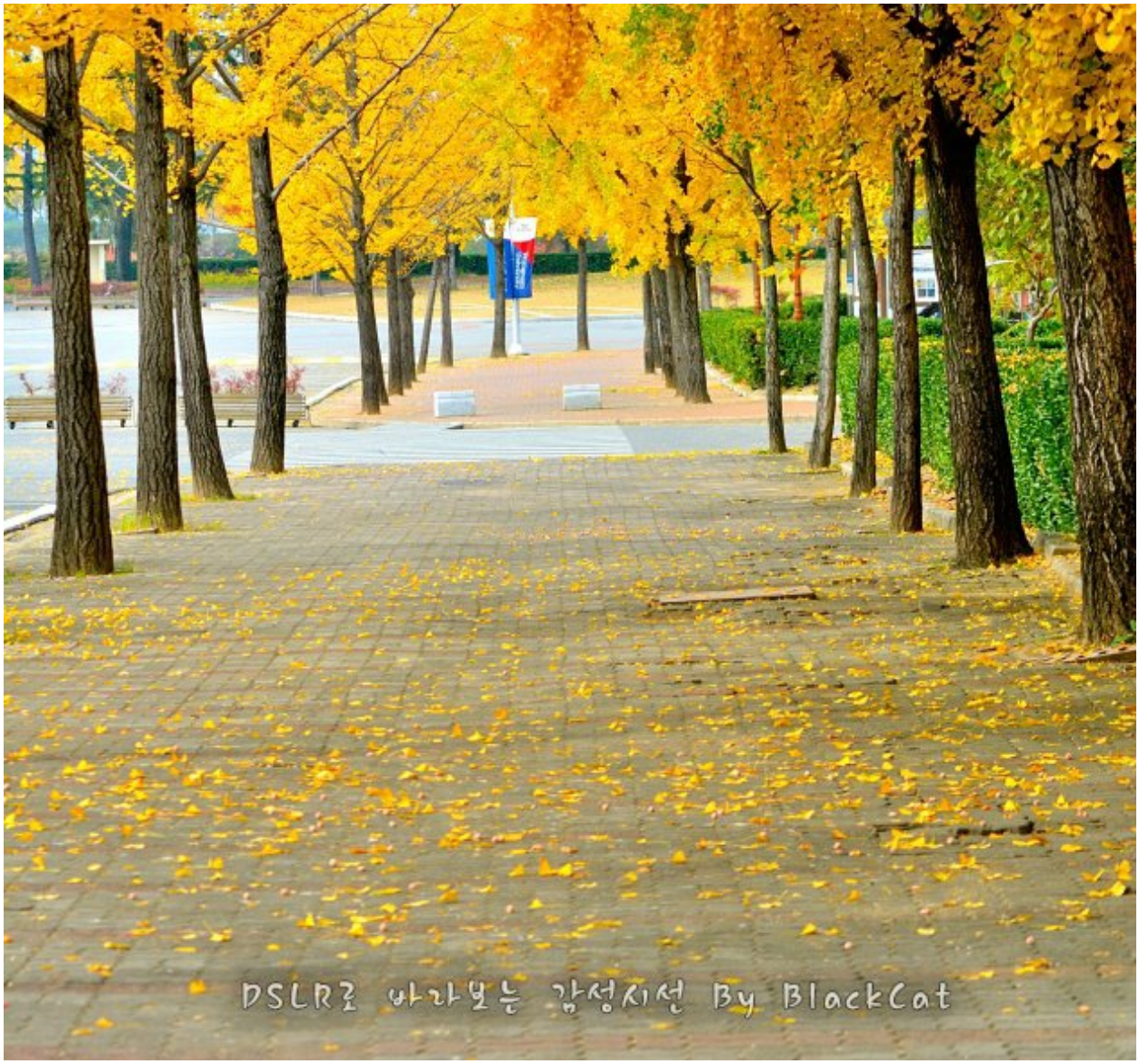
열정이란 단어가 그리 높고 어렵거나 혹은 비행이란 단어처럼 나쁜뜻도 아니거늘

남들이 가는 이길에 나를 밀어넣고... 결국 창살없는 감옥속에 자신을 속박하고

어울리지 않는... 아니 몸에 맞지도 않은 작은 옷에 몸을 구겨넣고
생각을 구속하는 20대에게....

20살.... 꿈이없다 낭만이 없는 길을 걸어본 내가 던질 수 있는 단어는

인생은 앞이 아니라는 것! 곧게 뻗은 평탄한 길을 갈지라도
가끔은 멈춰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는 것



당신이 알던 세계라 믿던 것들에도... 일상이라 생각한 모든 것에게
새로운 면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동경하게 될수 있으니..

비단... 길은 하나가 아님을....

당신의 인생앞엔 아직 수많은 길과 선택이 가능함을

정처없이 어딜향해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두렵다는 것을
나 역시 이미 흘러왔지만

비단 그길의 끝이... 결코 위대하지 않을 그런 선택은 없음을....

남들과 다른길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열정... 그 길위에 서보라고 가을이 그렇게 말을한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멋진 가을.... 그 길위에 헤매일 젊음에게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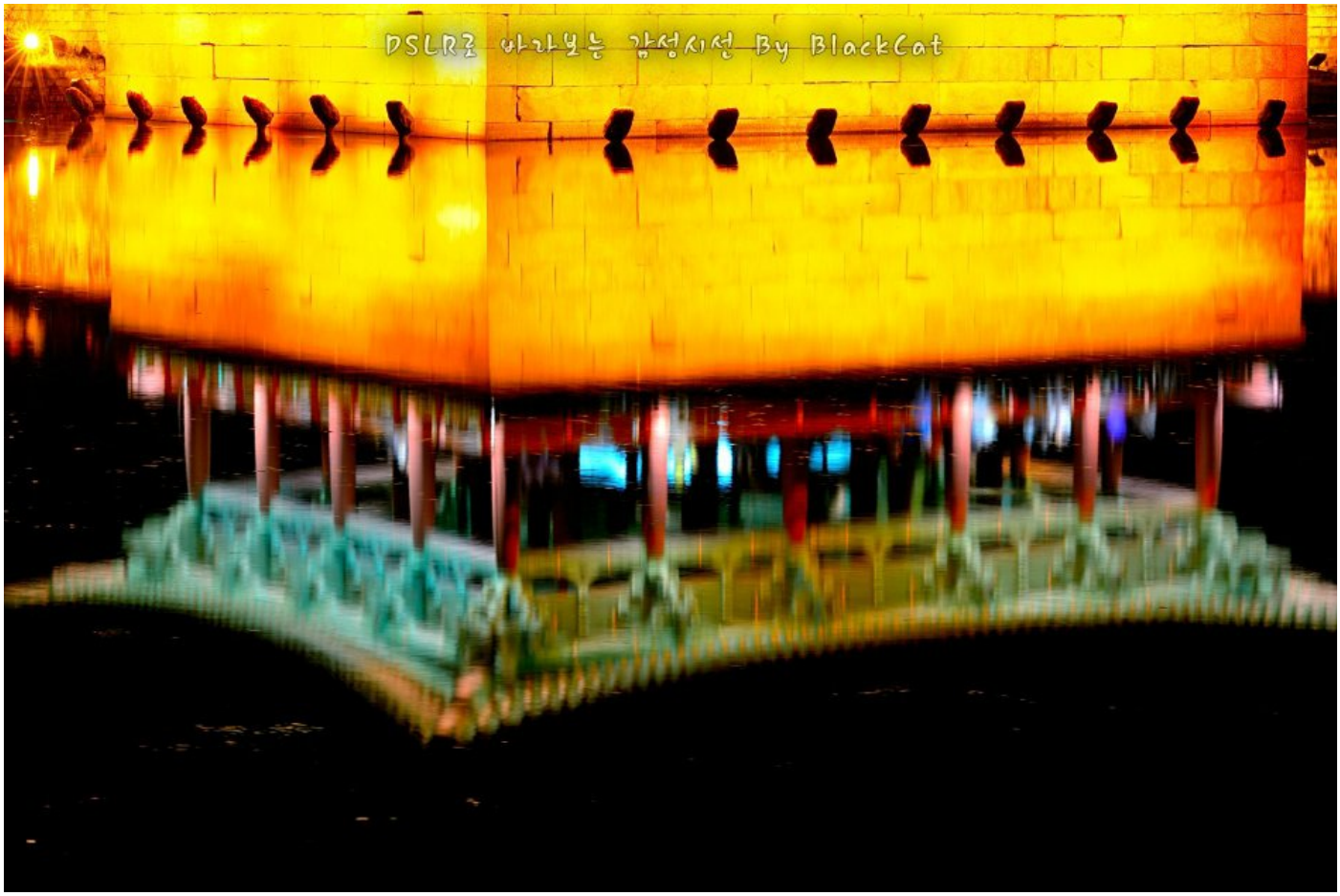
비오는 경주의 밤거리를 헤매다

비오는 경주의 밤거리를 헤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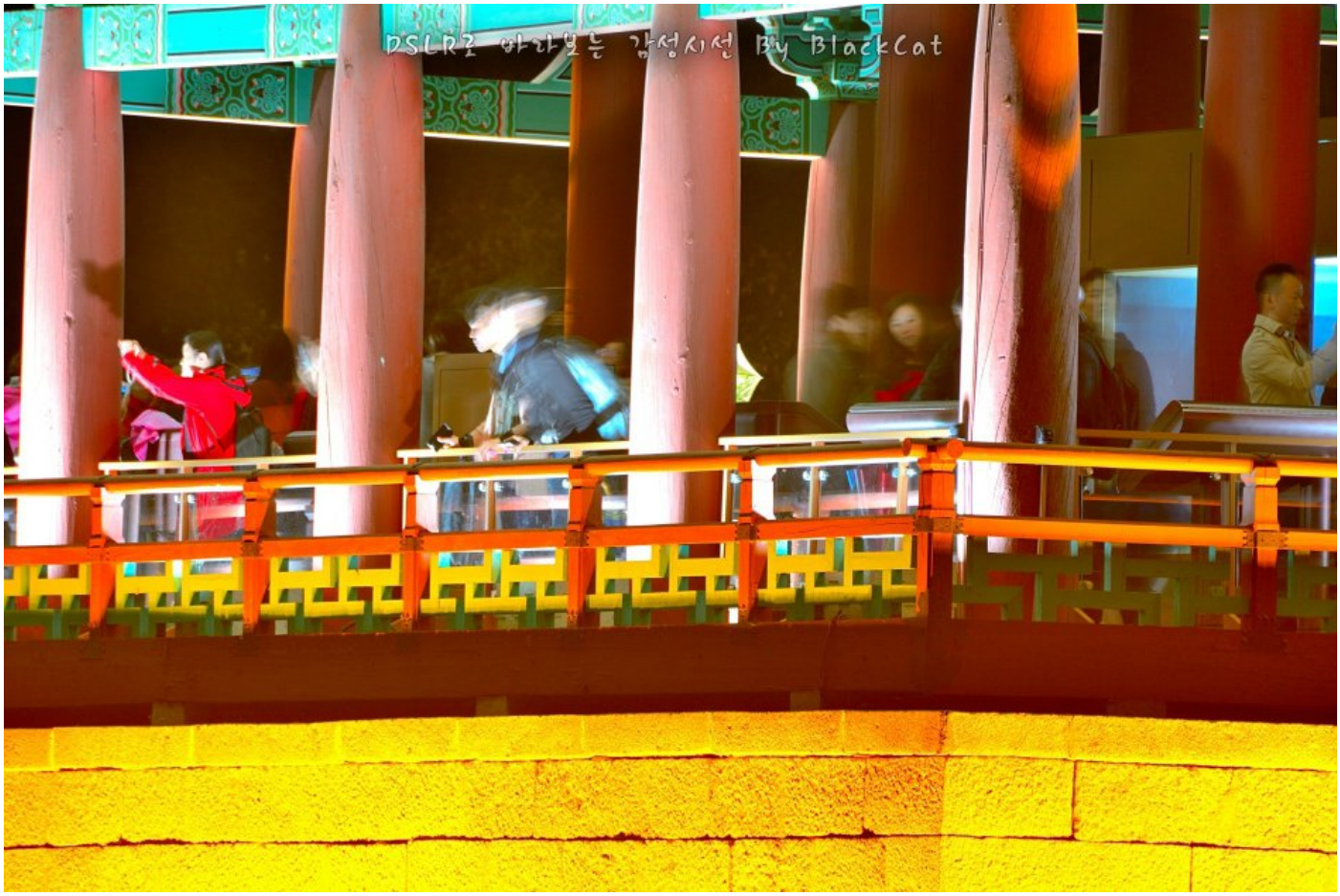
2013.11.14 06:00

비오는 풍경속으로 정처없이 거닐던 날..... 난 사진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가을비 치곤... 제법 많은 비가 쏟아진 날.... 이웃 보이즈님을 만나기 위해 경주행



사진을 담기보단... 사진을 이야기하고... 감사한 소통의 시간속에
그간의 사진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다르게 흘러간것 같다.



초심이라는 말이있다.... 사진의 초심이란... 빛과의 조화일테고... 대상과의 호흡일테지만
나에게 사진이란 만족이었다... 그런 초심이 어느세 욕심이 되어있던것인지

어느순간... 그냥 잘찍는 사진을 추구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매번... 감성사진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을 바라보며.. 대상이 아닌 이야기가 아닌 느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잘찍는 사진을 가지고 싶어졌던듯.....

사진의 디테일.. 사진의 깊이... 사진의 정확성은 내가 가질 문제가 아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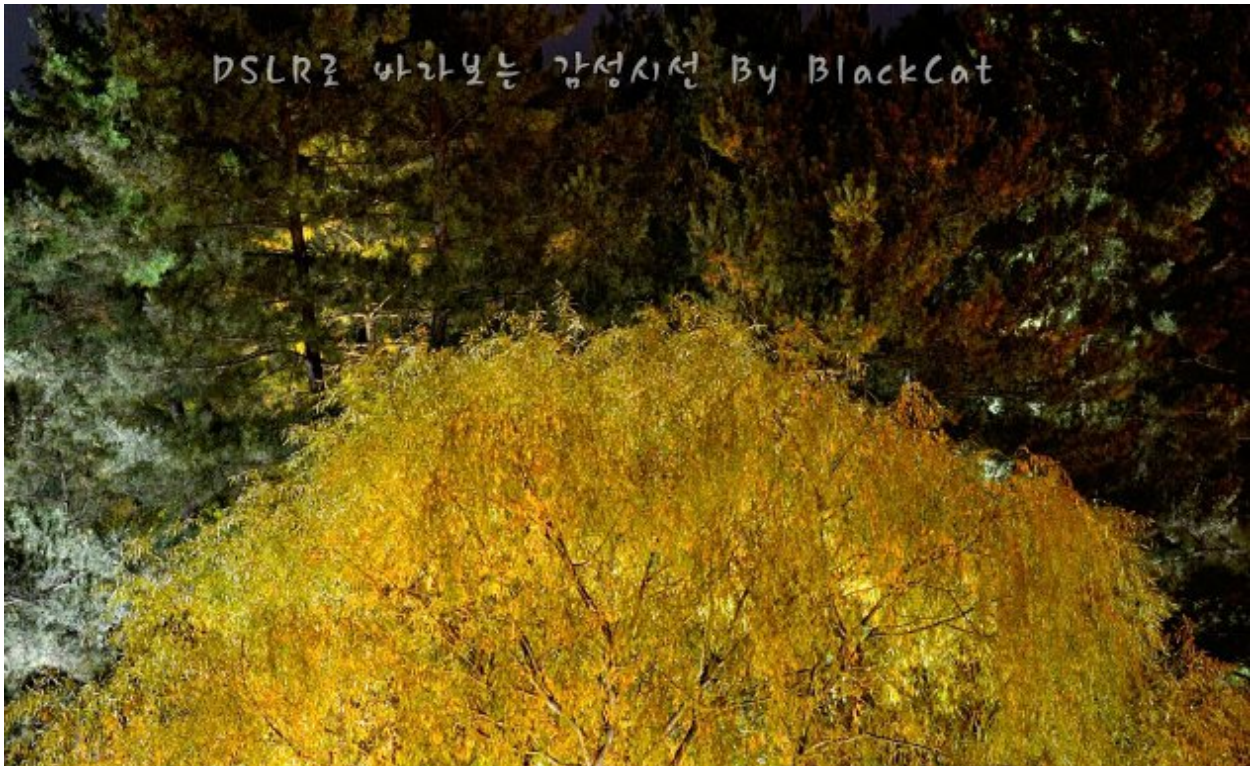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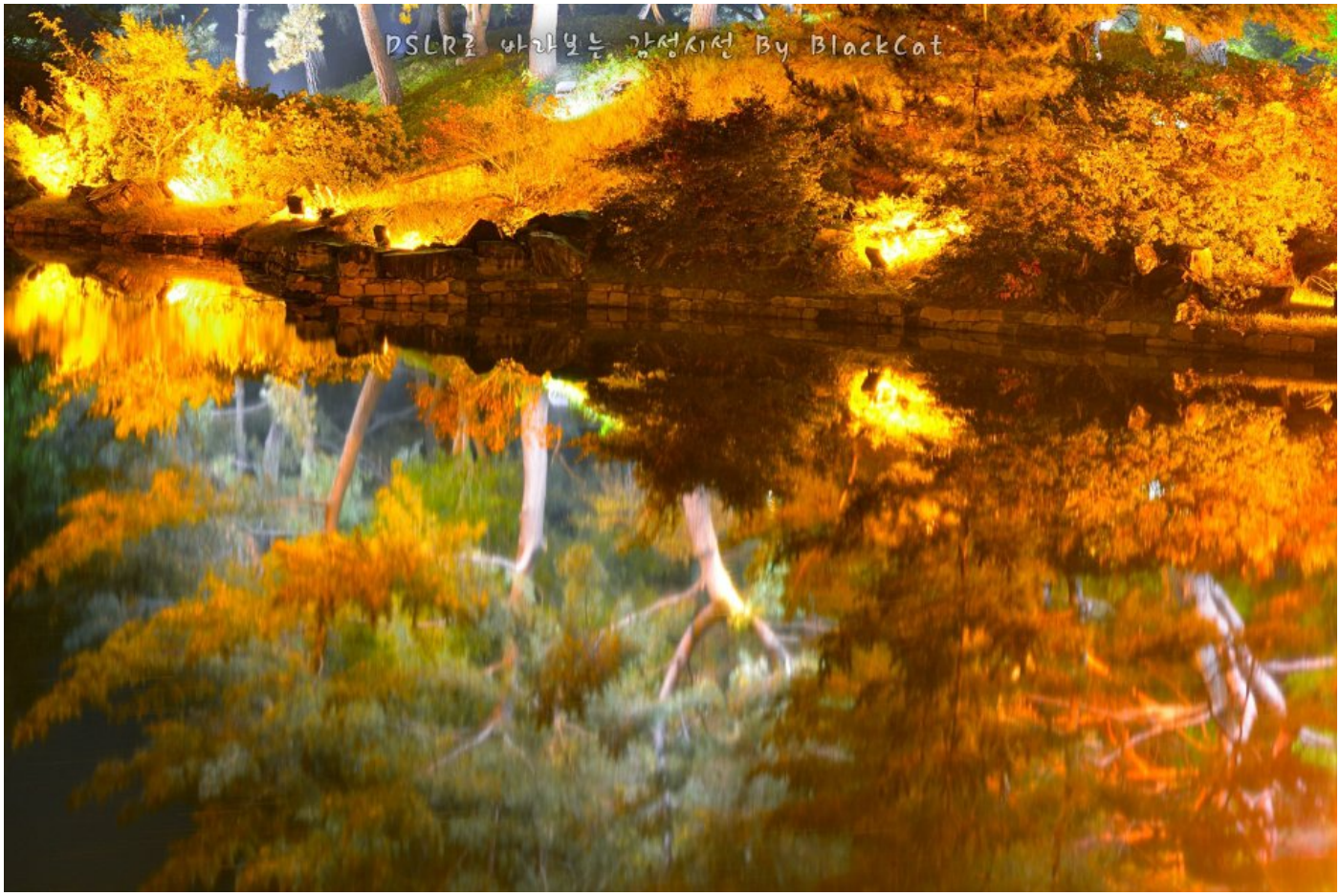


사진 전문가도 아닌것이... 프로사진작가도 아닌것이... 왜 그렇게 사진한장에 기교를 담는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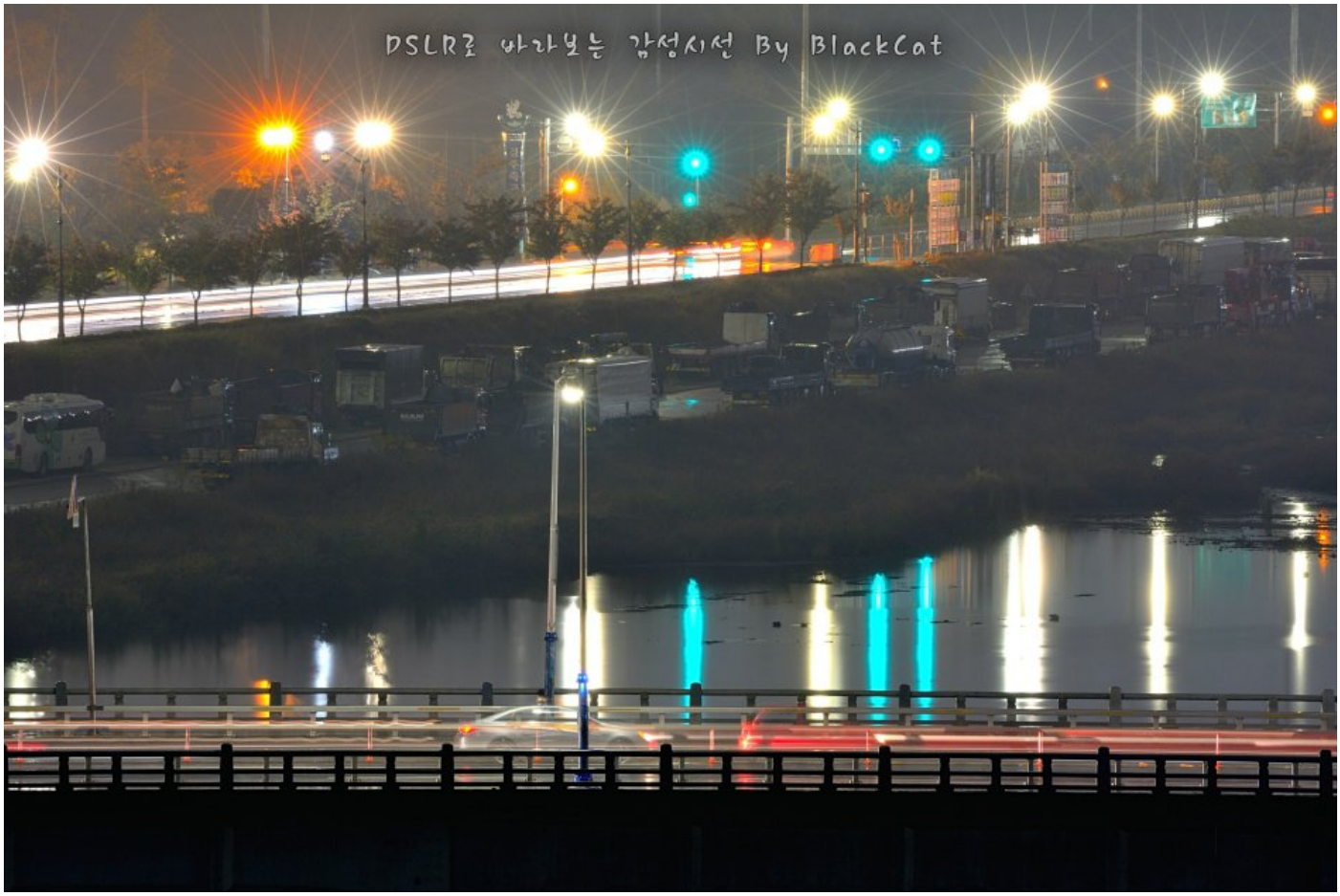


그냥 난 사진을 좋아하고.... 담겨있는 사진에 내 맘이 흡족하면 그것 자체가 즐거울
그냥 취미로의 사진일 뿐인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담고픈것을 담고 볼수있는것에 행복하고

날씨가 안좋아... 사진에 담을것이 없다....풍경이 없어 사진이 별로란 이야긴 하지 말자...
내가 좋아 담고나면... 그저 좋을 뿐!

비오는 경주의 거리를 거닐다..... 한참을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공유하다



그저 담는것에 대한 즐거움.. 찍는것에 대한 행복에 대한 고민...

차갑게 쏟아지는 가을비를 바라보는 풍경속에 독백처럼

욕심없이 꾸준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불빛처럼 내리는 빗물처럼

그런 마음의 사진을 담아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괜시리.... 마음을 비울수 있었던 그런 비오는날의 산책길...

니콘D7100 + 시그마70-300 + 시그마10-20 + 니콘35mmf2D 빗속의 경주야경을 담다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니콘35mmf2d(니콘 구형 카페렌즈)

시그마10-20(시그마 광각렌즈)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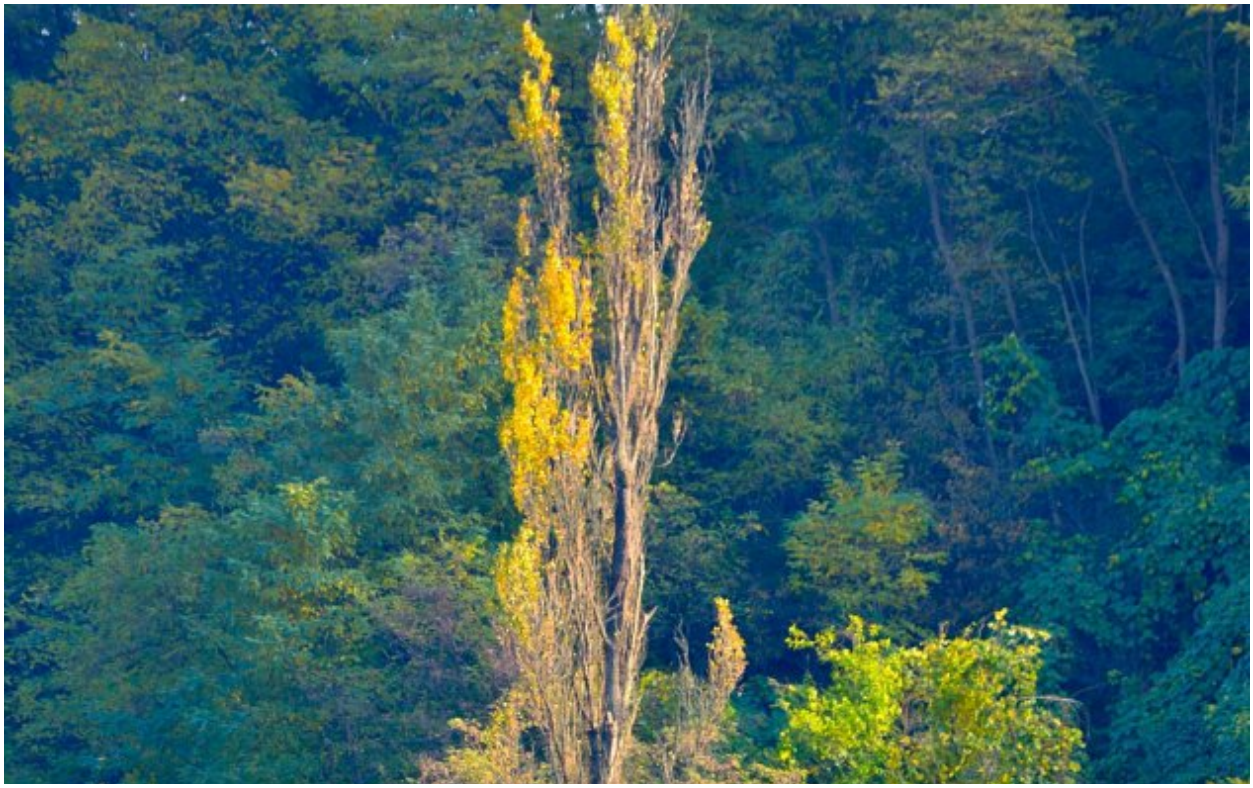
풍락제 가을 바람을 즐기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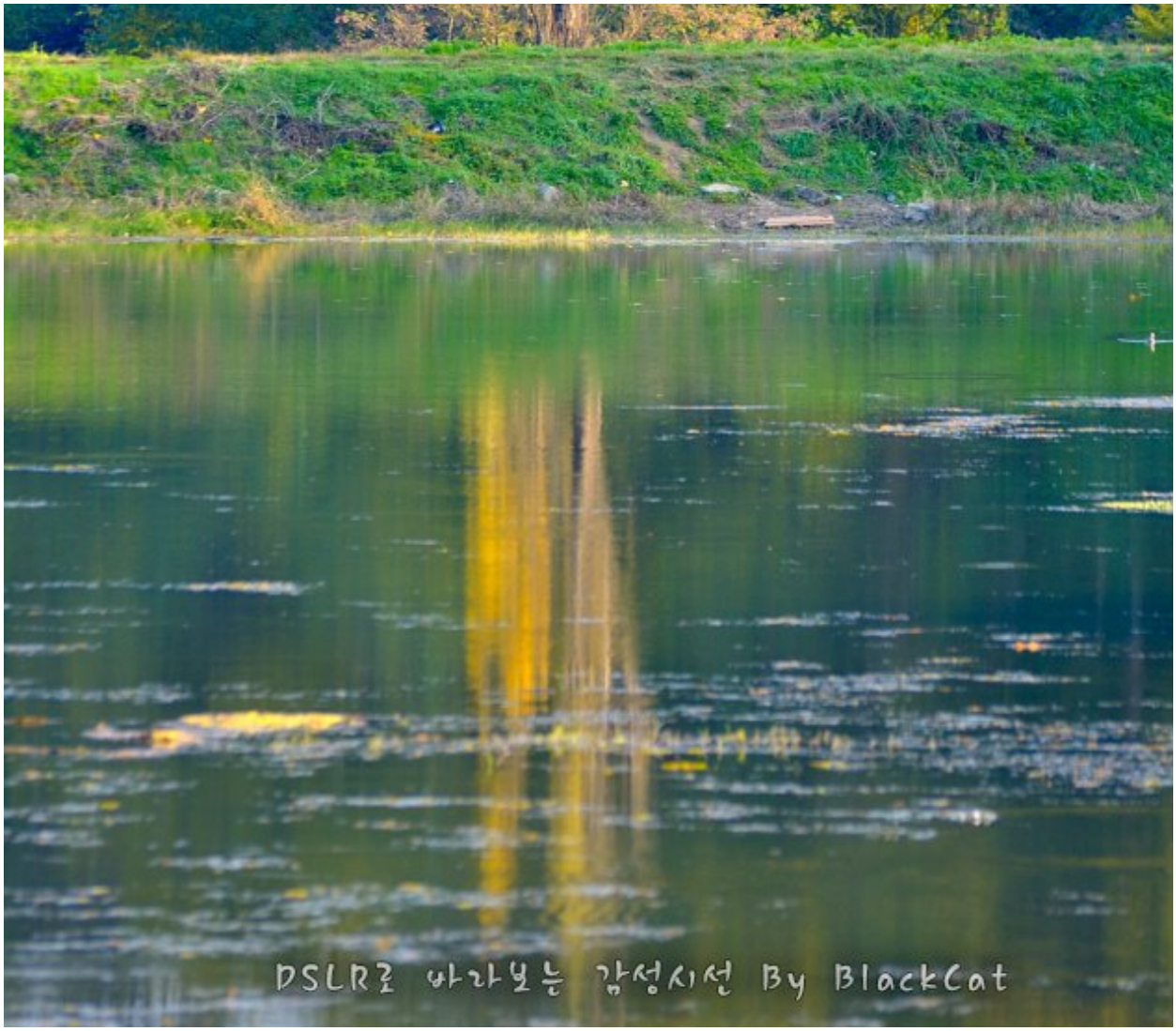
풍락제 가을 바람을 즐기는 방법

2013.11.13 06:00

바람이 분다..... 그리곤 그렇게 마음이 흘렀다

갈대너머.... 여물어가는 산을 배경삼아 태공은 빈 낚시대를 드리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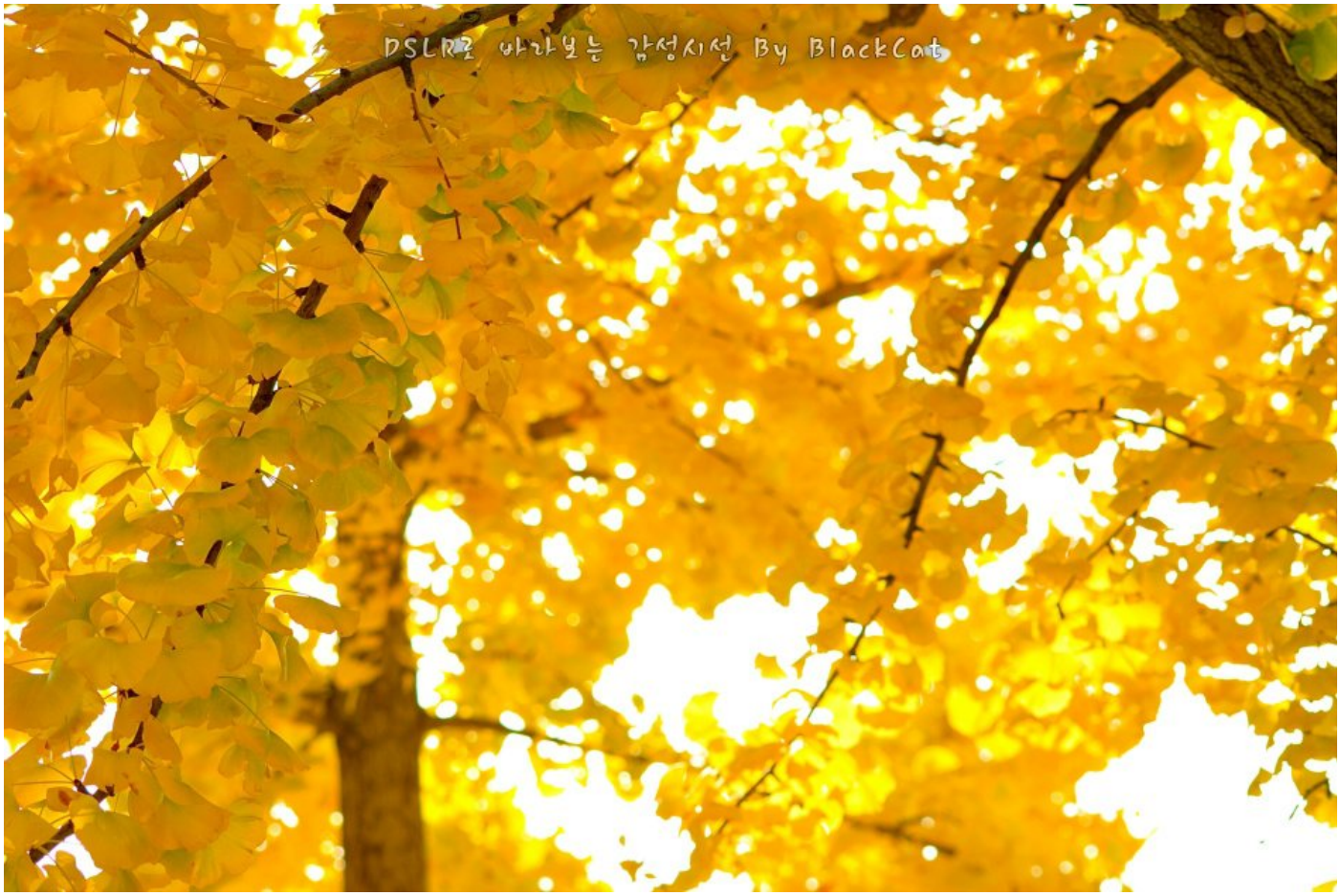




늙은 은행나무는 황금빛 불을 붙여 제몸을 태워간다

숨가쁘게 달려온 여름을 갈무리한 농촌은 풍요롭고 따스했으며....
이제.... 편안한 휴식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파아란 가을하늘을 이고... 두둑해진 밥상을 바라보던 아비의 마음같이



걱정없이 평화로운 한가한 그런 가을을 즐기기에

더없이 행복한 풍경과 즐거운 걸음으로..... 조용한 산책을 나서는 이들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풍요로움을 만끽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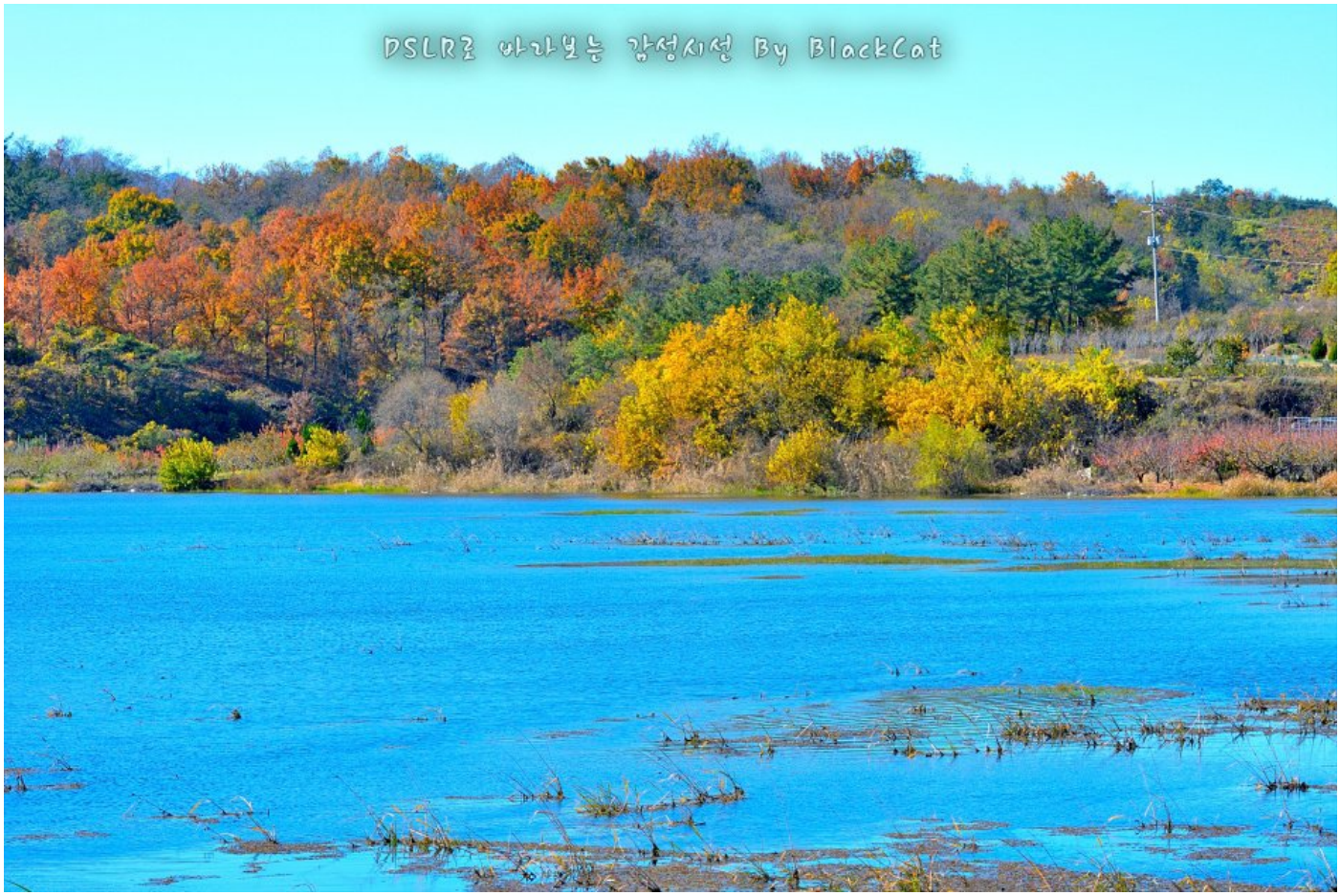
추수가 끝난 농부의 마음처럼 고봉밥에 갓 버무린 김치를 얹여주는 엄마의 미소처럼

오늘은 경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는 날

그저 따사로운 시선을 서로에게 던지고.... 농담처럼 사랑고백도 하고....
그냥 아무대나 누워... 멍하니 그렇게 가을을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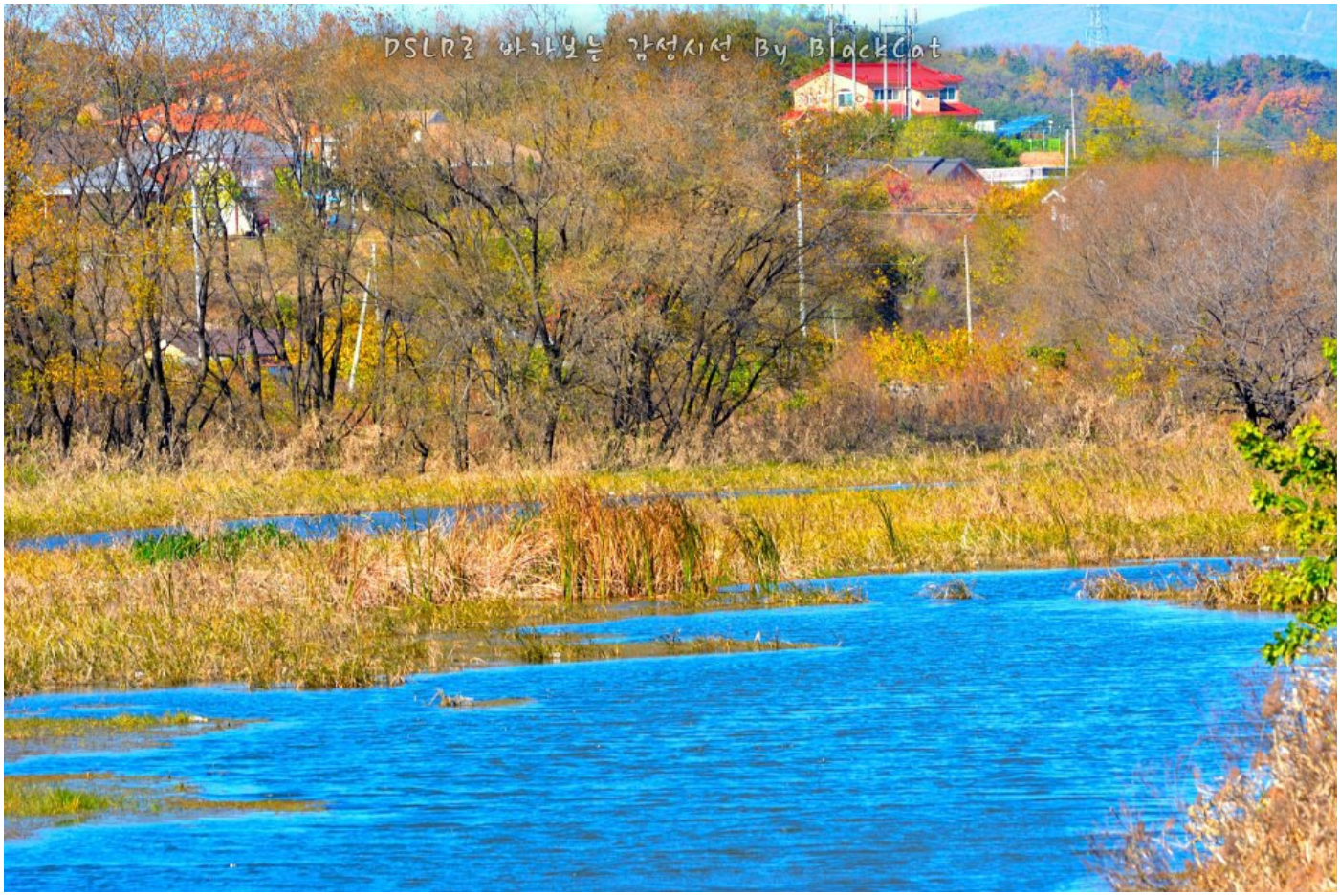
바람이 일고.... 하늘구름도 없는 청명한 오후.....

풍락..... 바람을 즐기는 풍락제의 가을속에서



파란 캔버스위에 고운 유화가 그려진 풍경을 바라보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몸을 뉘이는 갈대들을 바라본다



평화롭고 아늑하고... 조용한 풍경은 그렇게.... 말없이 말없이

하늘거리는 손짓만으로 마음을 홀리는 가을날

가을....긴 여운은 흐르는 바람의 꼬리를 잡듯.. 아실하게 그렇게 흘러간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풍락제 풍경속에서 가을을 담다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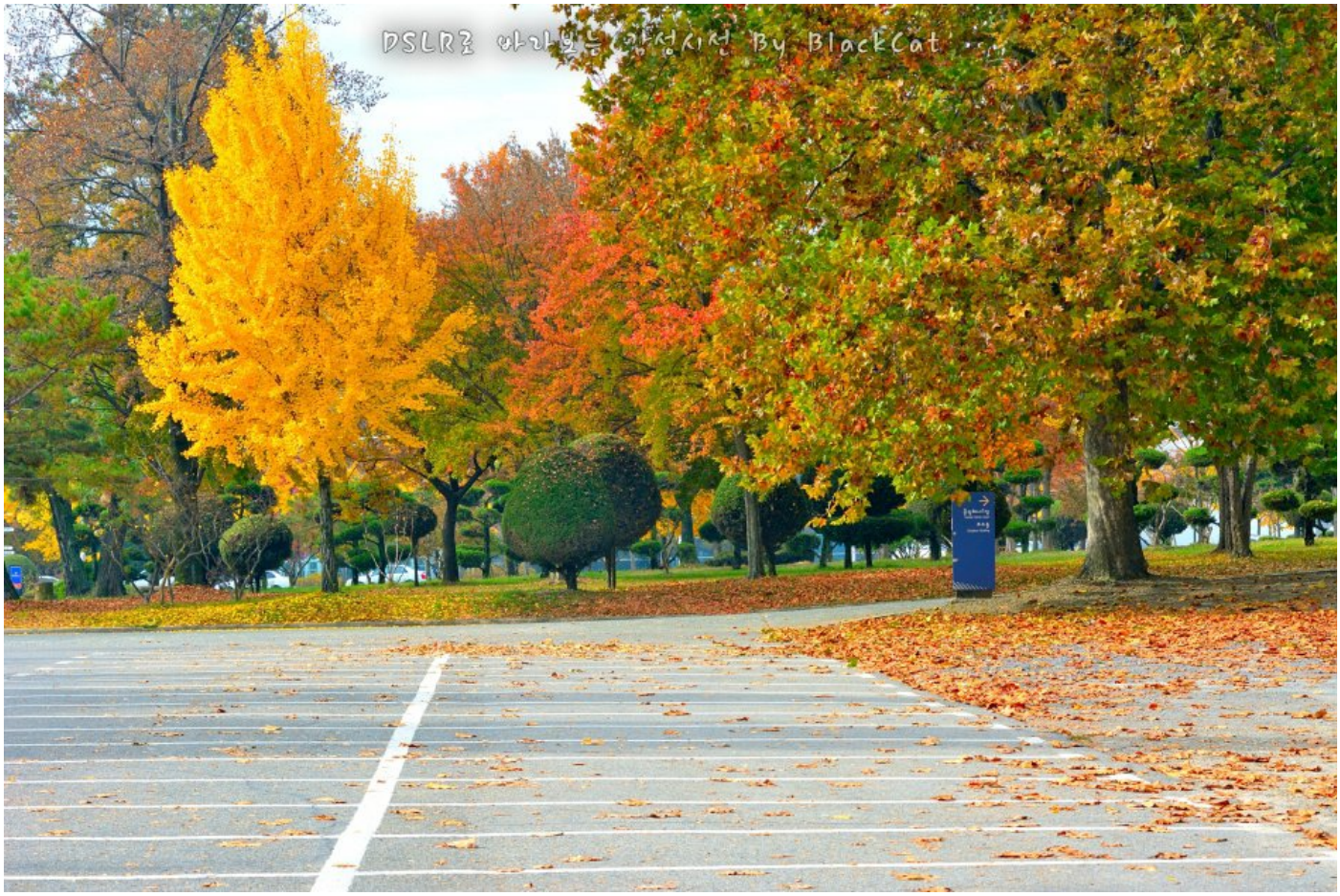
10

바스락 바스락 가을길의 매력을 거닐다[영남대학교]

바스락 바스락 가을길의 매력을 거닐다[영남대학교]

2013.11.12 06:00

바스락 거리는 가을의 거리를 거닐면 그만 왈칵 그리움이 터져나온다



4년이라는 시간을 걷던 20살 내기억속의 학교에도 가을이 내려앉은 날

주말 오후의 한적한 그곳엔 한참 어여쁠 나이의 학우들 대신... 가을의 발자국만 가득 거리를 거닐고

가을이 지나간 흔적사이론 그저 내 그리운 추억들이 소복히 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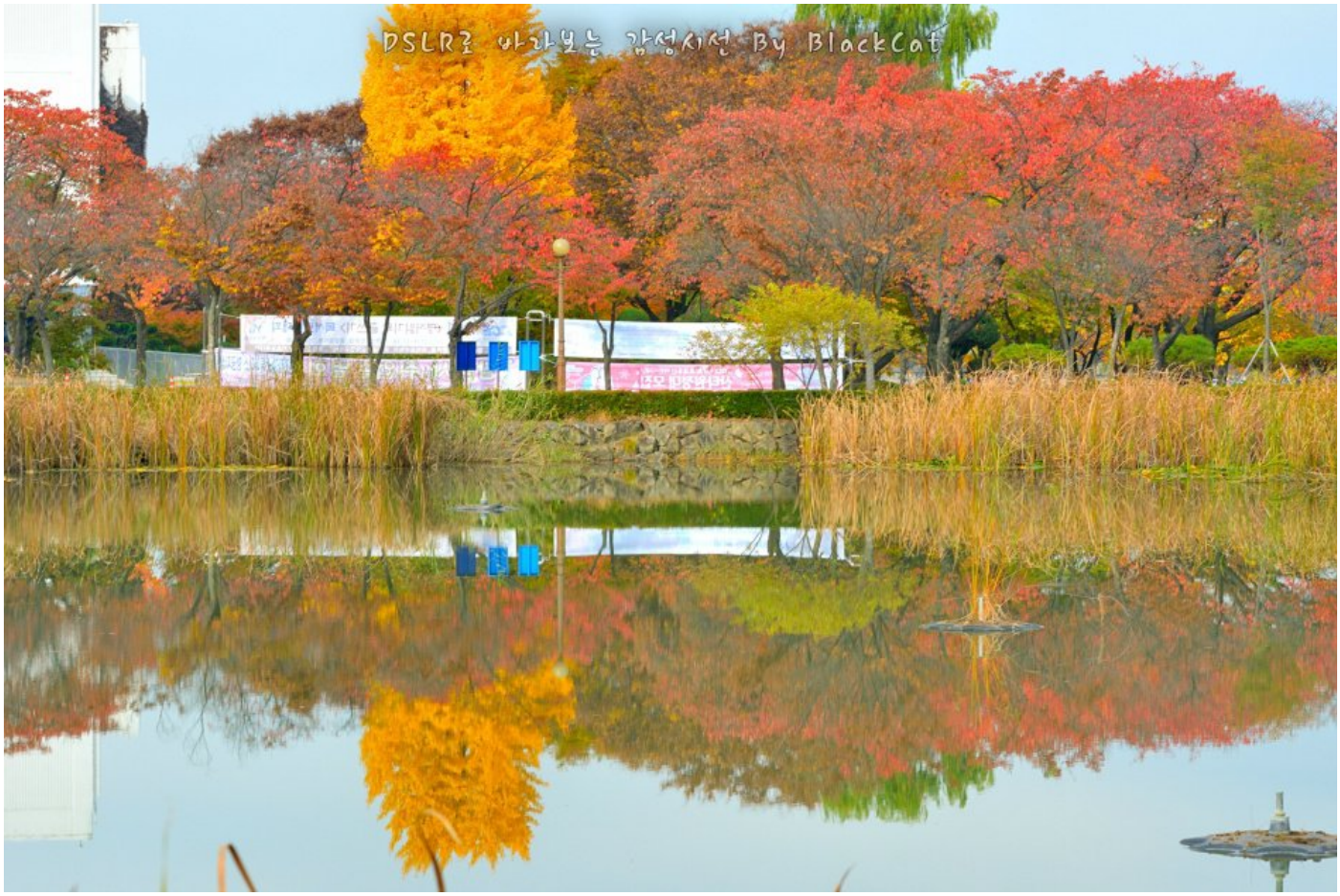
철부지 어린날의 사랑을 속삭이던 귓가의 음성이....

같은곳을 바라보며 뜨겁게 움켜쥐었던 보드랍던 그 손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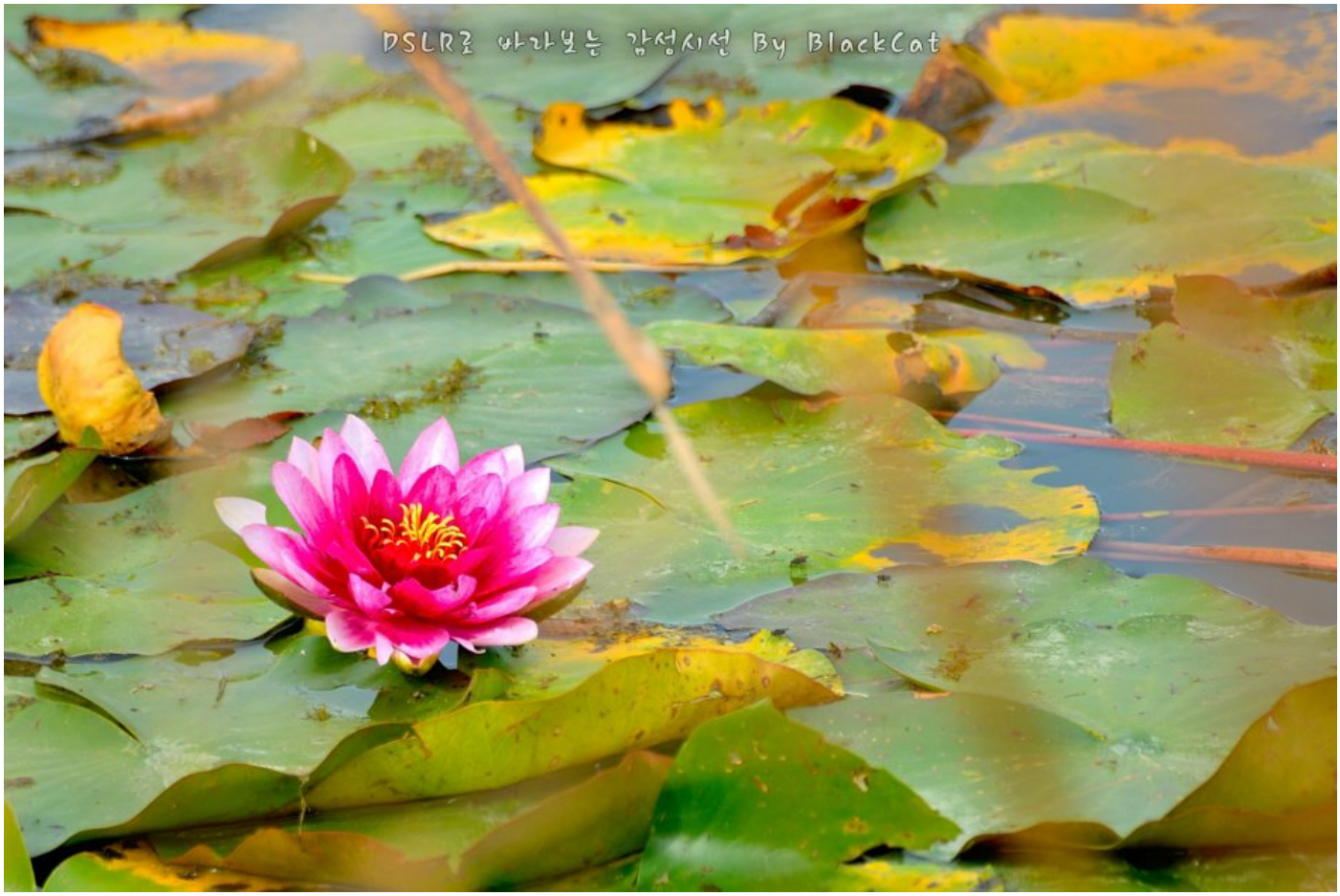
뜨겁게 그리고 강렬하게 첫사랑의 붉던 마음은

세월은 흐르고 하얀 머리카락 처럼 희미하게 희미하게 잊혀질줄 알았건만....

텅빈 이거리를 가을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면.....



그추억 그마음은 오히려 깊게 패인 주름처럼 더 진하게 맘 한구석을 파고들어와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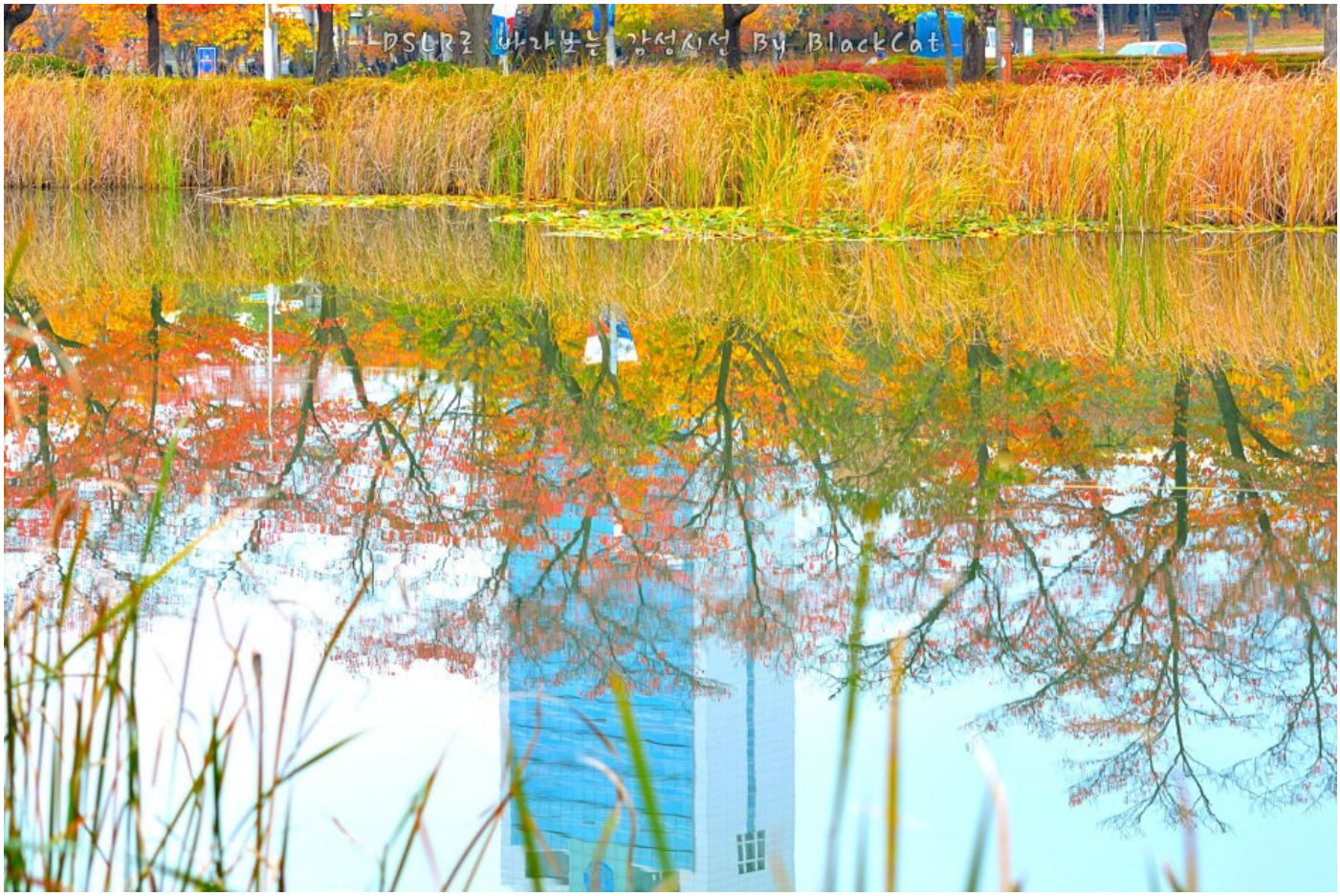


이젠 져버렸을 거라 기대치 않은 내 맘은 그와 거닐던 걸음마다 추억되어
다시 피어나는 그런 날...

계절도 지고... 낙엽도 지건만... 왜 사람의 마음은 지는법을 모르는지

아직 그렇게... 나도 너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뿐.... 결코 가까울수 없는가 보다

지고난 사랑의 자리... 떨어진 낙엽아래에... 또 그렇게 다른 사람 다른 시간이 자랄테지...



거닐던 이 거리엔 또다시 가을이 찾아오고 또다른 연인이 추억과 이별에 한살을 더하겠지만

쉽게... 잊으려 애쓰지 말자.... 도려낸 추억만큼 가슴한켠엔 티눈처럼 그리움이 박혀있을테니

누군가.... 사람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래 추억속에
너는 언제나 나에겐 그렇게 뭍어둘수 있어...언제고 같은 거리에서면... 다시 떠올릴수 있으니

마음 한켠에 자리를 내어주자.... 마음한켠에 사랑을 넣어두자

이가을... 누군가는 첫사랑의 추억 이별 아픔 그러나 사랑으로 불릴 시간을 걷고 있으니...

니콘D7100 + 시그마70-300 고운 단풍이 물들은 영남대학교 교정을 거닐다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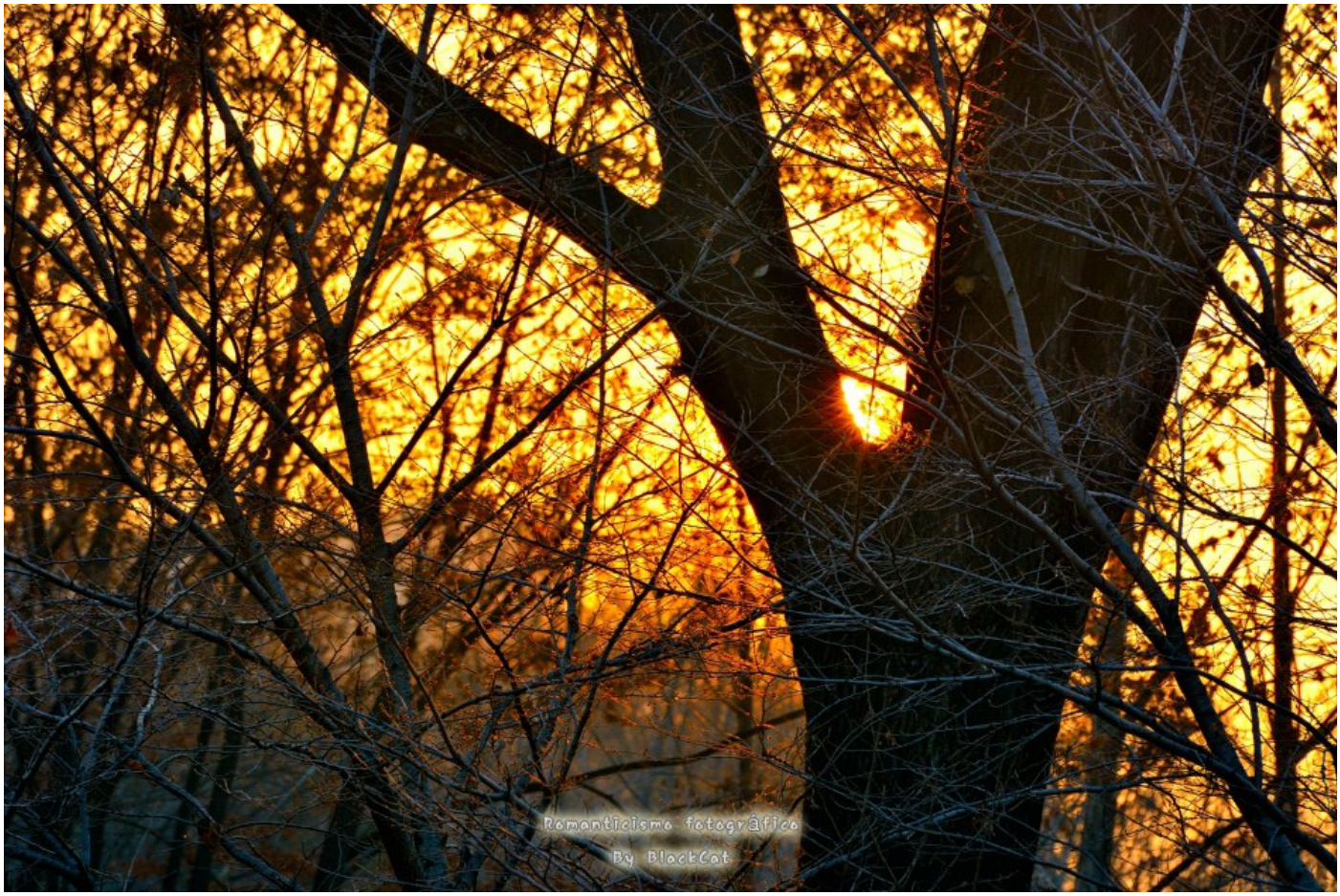
11

[다음뷰]좀더 잘살기 위해 바쁜 걸음을 걷다(DAY6)

[다음뷰]좀더 잘살기 위해 바쁜 걸음을 걷다(DAY 6)

2013.12.07 03:30

비단 .... 살을 애는 추위때문만이 아니다... 타인의 발걸음에 뒤쳐지지 않기위해
좀더 잘살기 위해 편하기위해... 더 어려운 걸음을 바쁘게 움직인다



서울.... 이라는 장소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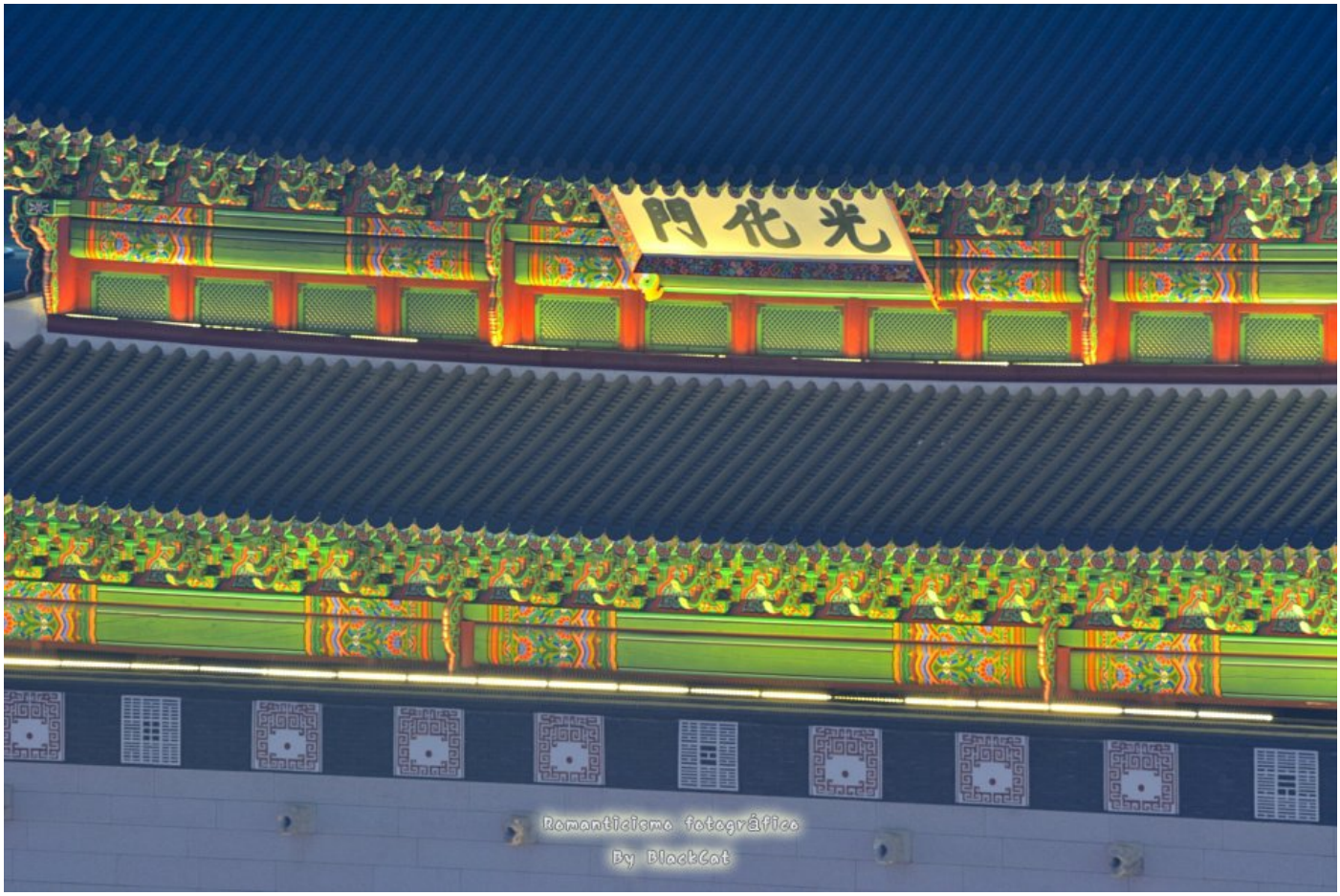
볼것도 즐길것도 많고 문화생활이 정말 편리하지만....

복잡하고 어렵고 바쁜 그 도시의 삶은 이런 멋진풍경에 잠시 시선을 두지 못하기에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화려함을 위해 어렵고 힘든삶을 사는것
나에게 서울은 그런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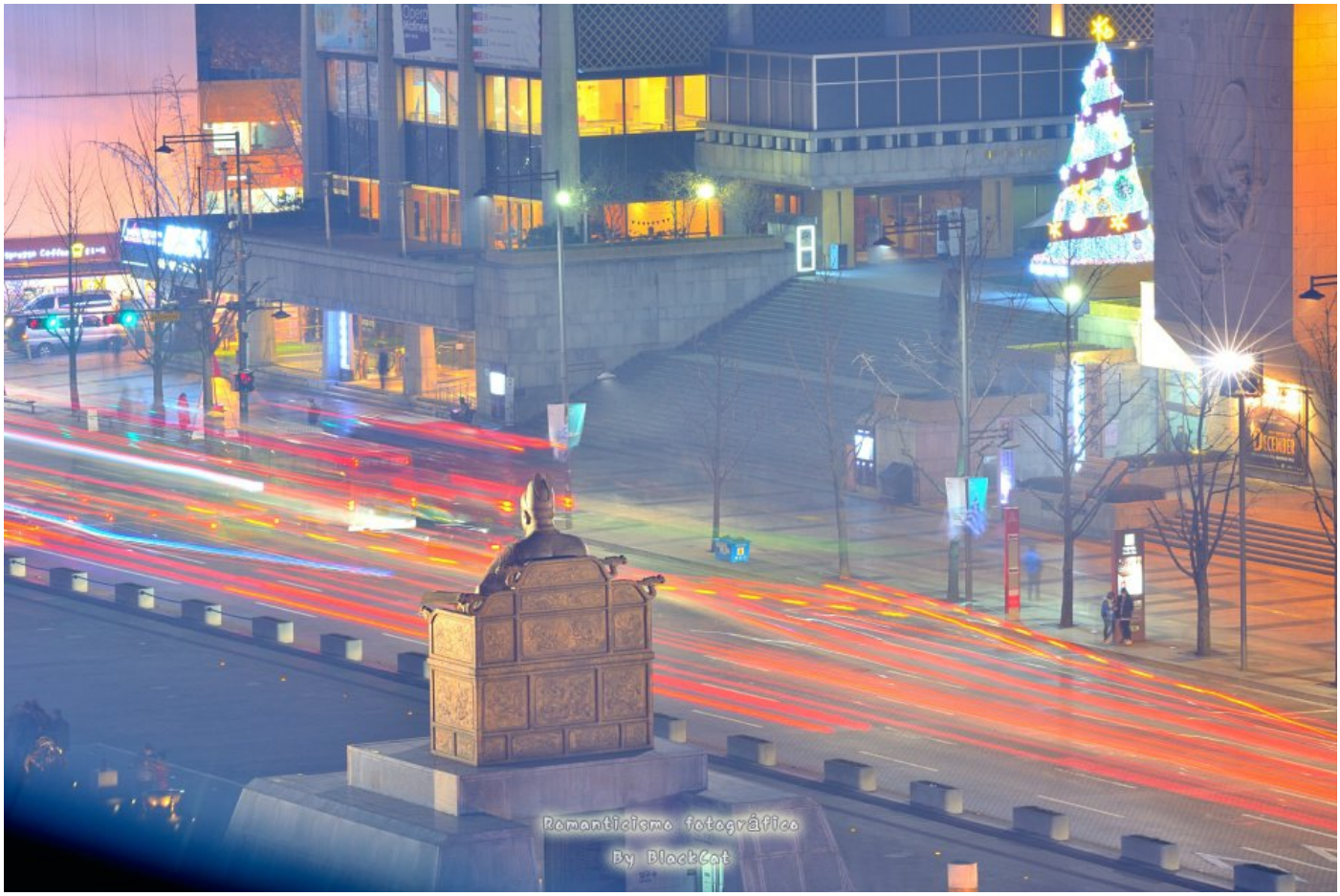
꺼질줄 모르는 전등빛..... 화사한 태양아래 산책과 풍요로운 햇살보다
어쩌면 저들은 인공적인 빛의 그늘을 만들고 있는지도

도시의 불빛은 더욱이... 극명한 어둠을 만들어내고.... 좀더 편안하게 많은것을 누리려
더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살고 걸음을 재촉한다



아주 오래 오래전부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도시의 불빛이 더욱 밝고 아름답지만.... 차갑고 시리게 다가오는 마음은
피부에 닿는 차가운 겨울바람 때문은 아닐것이다



아픔이 익숙해지면 통증을 잊어가듯.... 이곳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익숙해져
이젠 화려함에 감탄할 마음을 잊어버렸겠지

하루하루가 매일의 연속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인공적인 색으로 물들여 버린듯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나에겐 낯설고 신기한 그리고 아름다운 밤거리에 빠져
한참을 두리번 거리다보니.... 문들... 이 아름다운 밤거리를
즐기고 만끽하는 사람은 모두 여행자뿐이란
그런 오묘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 니콘35mmf2d 서울의 밤! 복잡 미묘한 도시인을 바라보다

12

[다음뷰]루돌프신드롬.. 곁에 머물길 바라는 마음(DAY5)

[다음뷰]루돌프신드롬.. 곁에 머물길 바라는 마음(DAY 5)

2013.12.06 06:00

쓸모없다 자책하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나요.

그런 그의 모습이 애처롭고 보듬어 주고 싶나요?

당신은 그의 곁에 머물고 싶은 루돌프신드롬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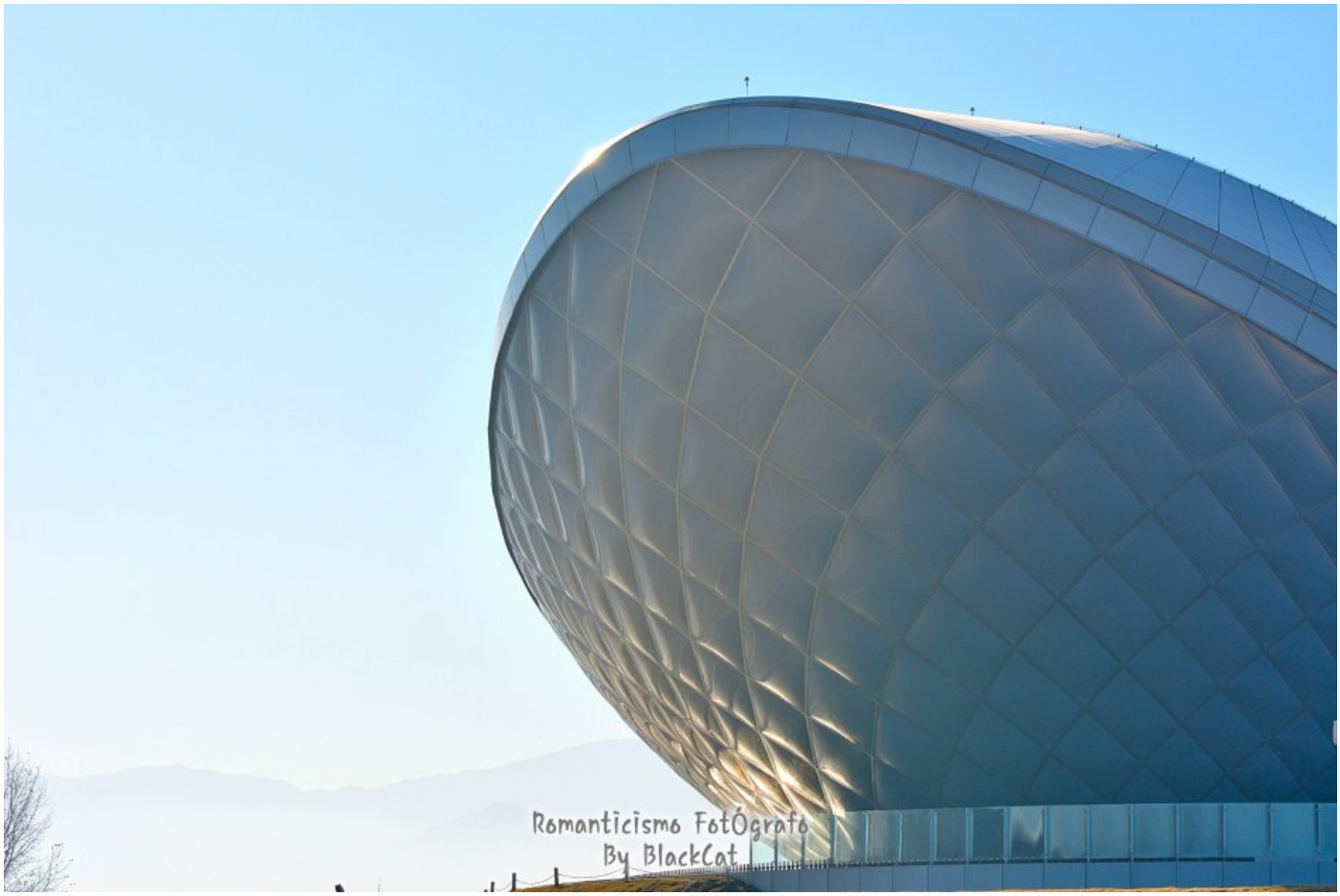
루돌프 신드롬이란 말은 없다. 그냥 그저 내가 생각나 붙였을뿐...

사랑은 분명아닌데.... 괜히 눈에 밟히고... 그냥 그 곁에 머물고 싶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유도 없이 그냥 눈을 떳는데...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아침이슬이 갑자기 아름다워 지며
그 초롱초롱한 빛망울 속에 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맘일까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생활을 살고 있지만.....

괜시리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싶고 나란히 그 곁에 있고픈 그런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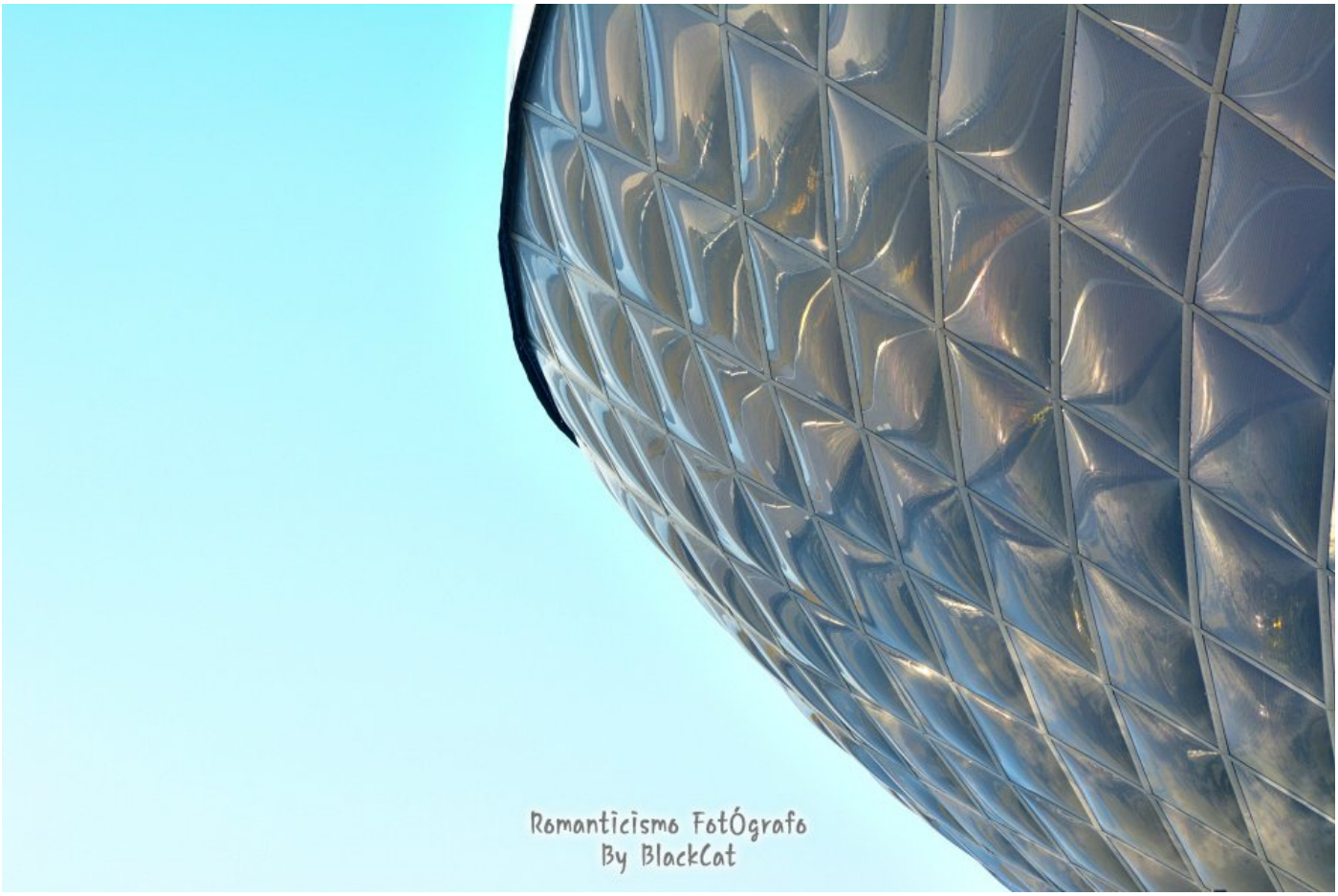


내 곁에 한 켠을 내어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안에서 채워가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의 어렵고 힘든 모습에 같이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다면

힘들다는 그의 말한마디에 나도 몰래 먼저 다리가 그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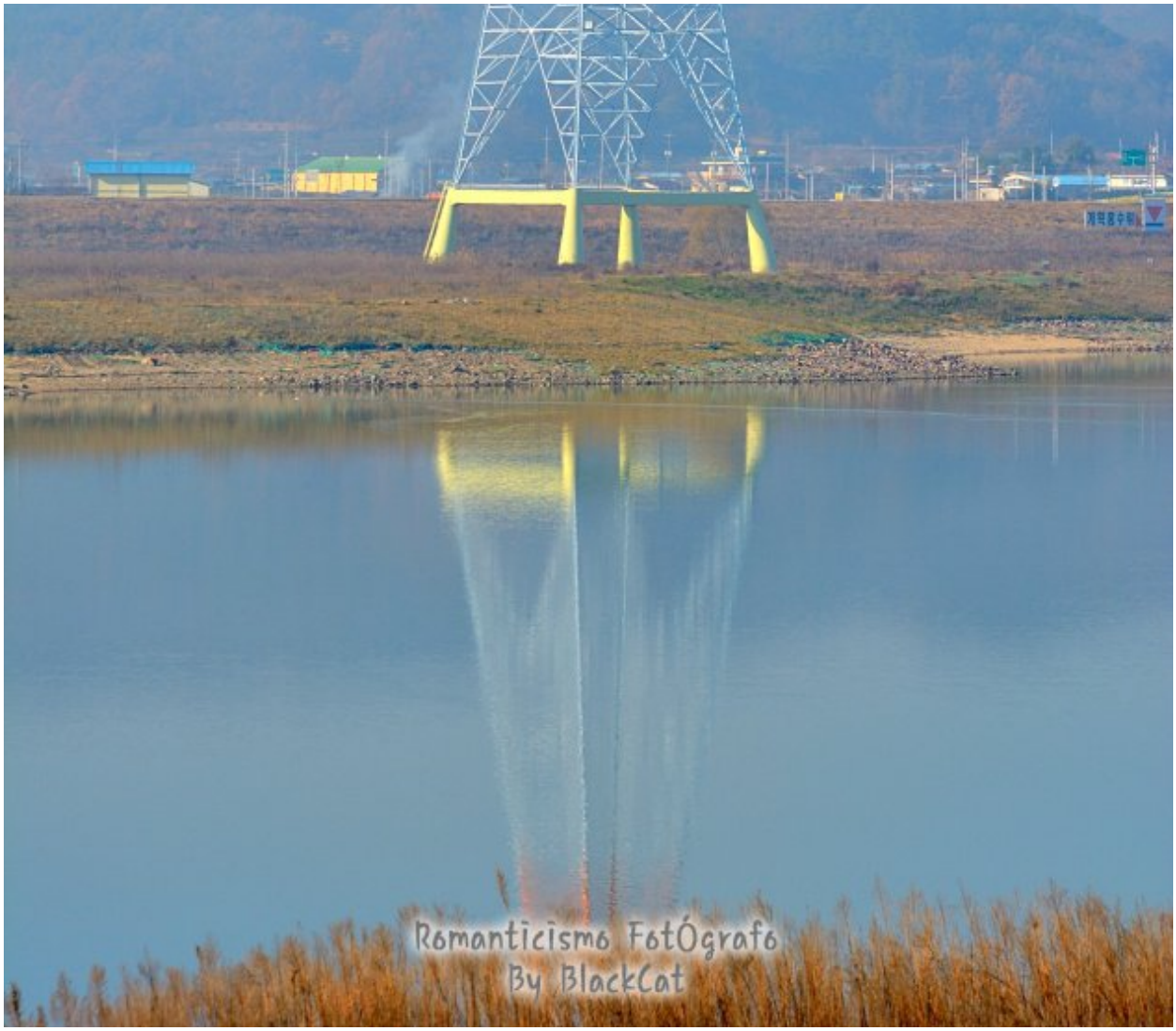
괜시리 차가운 남의 시선에 돌을 던지고... 그를 이해할수 있고
그와 닮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지금 루돌프신드롬에 빠져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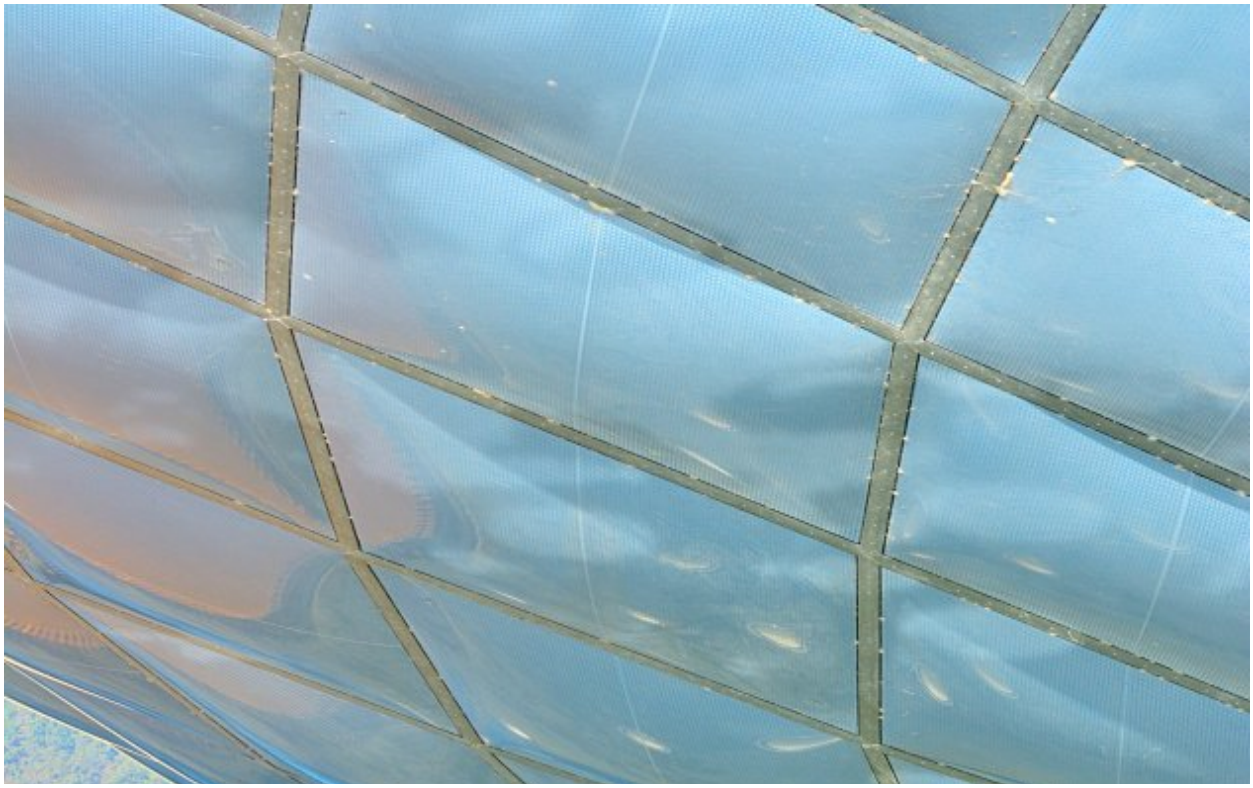
산타가 루돌프의 딱한 모습에 연민도 사랑도 아닌 그 감정을 가지듯

당신과 그는 그저 다른 인생일뿐.... 앞으로도 같아질수도 비슷해 질수도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그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곁에 머물며 그와 동화될수 있겠지요

그런마음.... 그런 마음이



감히 사랑이라 표현치 않겠습니다.. 그냥 곁에 있고 싶다고 사랑을 한다면
사랑의 값어치가 너무 떨어질테니까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고... 그냥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행복한 것으로 함께 웃으며

당신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내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수 있음에 감사할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혼자였던 루돌프가 행복한 계절을 맞이했듯

그 빨간코의 아픔을 보듬어 새로운 행복을 찾아 주었듯...

혹시 당신 곁에 누군가.... 혹은 당신이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같이 할 수 있는.. 함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워 질수 있게

지금 오늘 당장 당신 곁에 한켠을 내어....마음을 나눠주세요

모두 루돌프 신드롬에 빠지는 날이 되길

니콘D7100 + 시그마70-300 + 니콘35mmf2d 산타옆 루돌프가 머물듯[대구 디아크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다]

세상엔 아직.....

디아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 053-585-091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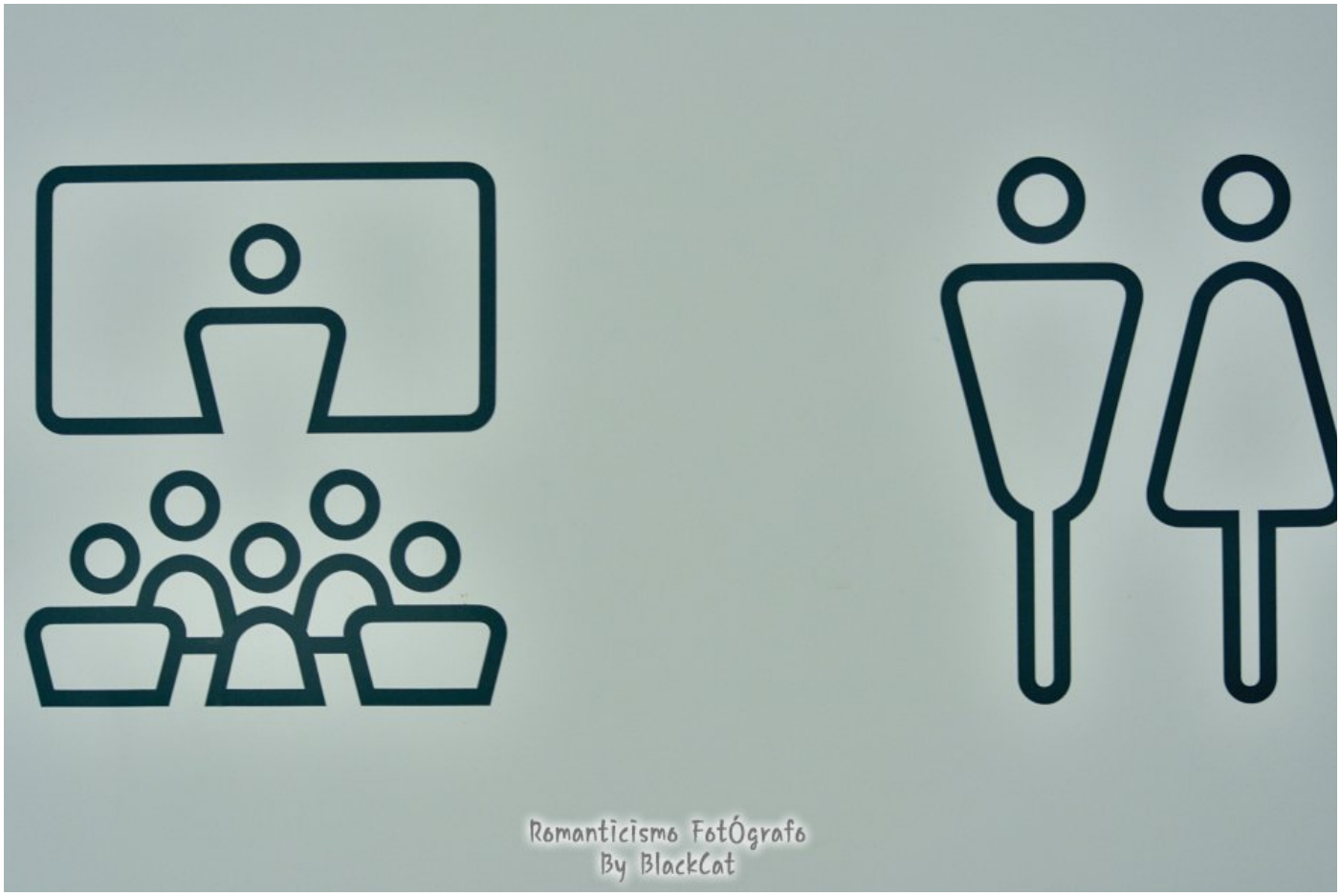
[다음뷰]하늘빛 겨울강이 아침을 흐르고(DAY 4)

[다음뷰]하늘빛 겨울강이 아침을 흐르고(DAY 4)

2013.12.05 06:00

Day A Blue..... 겨울의 아침은 여느 계절과 달리 새벽의 코발트빛이 강하게 남은
아침 풍경을 만나게 된다

시리도록 맑은 하늘과 차가운 아침공기의 풍경..... 짧은 그 순간을 즐기기엔
너무도 포근한 이불속이 그리워지는 그런 아침이지만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근엔 그 이른 아침을 즐기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것 같다

사진을 배우고 익히고 즐거움이 늘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조금씩 부지런해진 이유도
바로 이런 아침속에 만날수 있는 풍경이 좋아서 였는데

아직 아무도 밝지않은 첫눈을 밟아보듯...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섬을 탐험하듯

세상속에 숨겨진 풍경속 보물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마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빠져들게 되는것 같다

바라보지 않는다면 볼수가 없고.... 찾으려 애쓰지 않는다면 소중할 수 없듯

자의로 경험을 즐거움을 그리고 거기서 얻는 행복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취미는 오히려 고역이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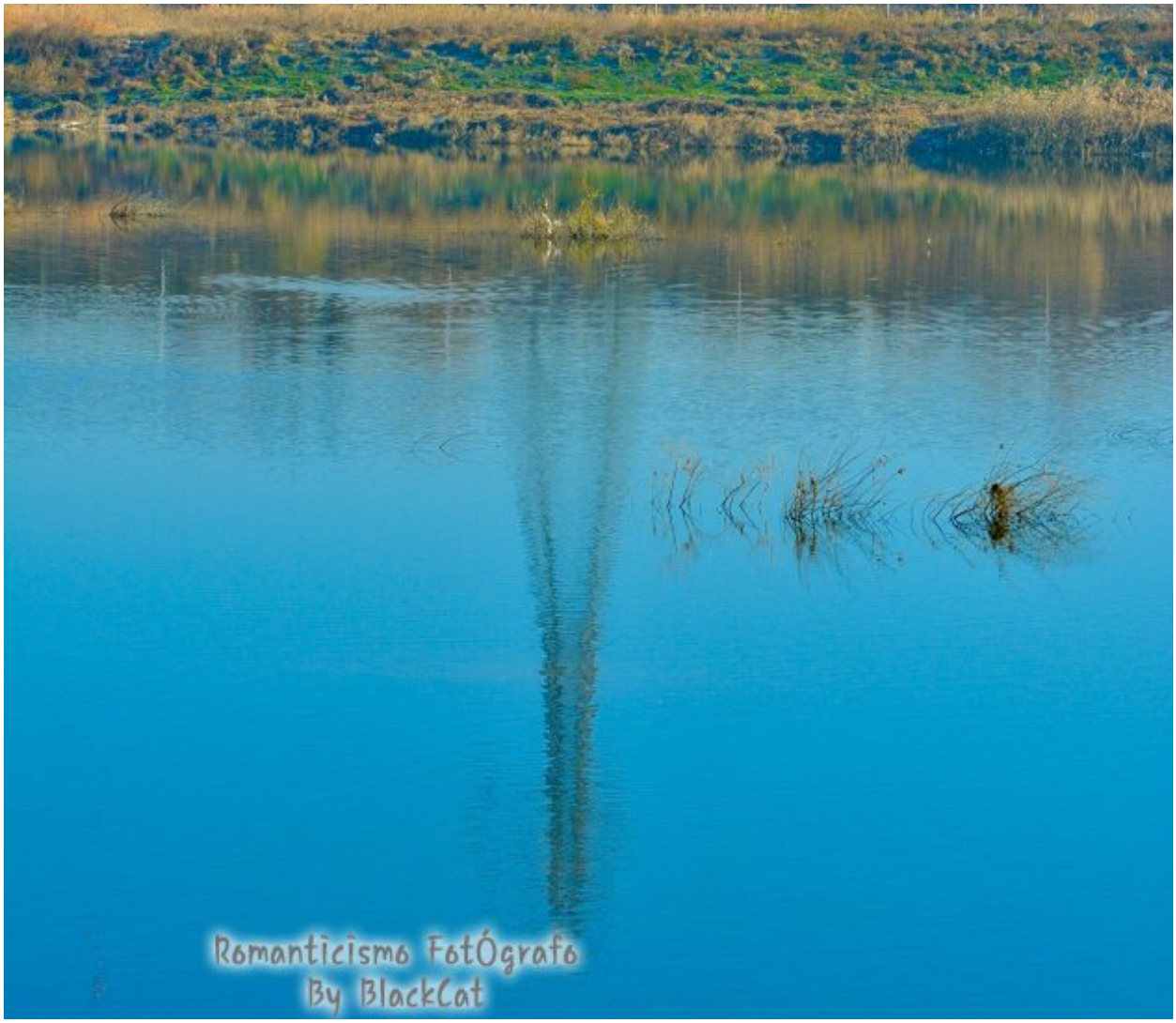
파란빛 아침이 물든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조용한 아침풍경 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는것이
도대체 따끈따끈한 이불속보다 무엇이 좋은건지에 대한 고민중이라면

단 한번... 단 하루의 시간을 내어 그 풍경속에 소속이 되어보길....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를 감정에 푸욱 빠질테니까

그 겨울의 아침..... 파랗게 하늘이 물들고... 파랗게 강물이 떠가는 풍경속

많은 이들이 거니는 길위에 조용한 그날의 시작을 알리는 걸음걸음을 쫓아가보면



흐르는 풍경속.... 흐르는 시간속... 흐르는 강물속에

오묘한 작품들과 신비로운 예술을 홀로 조용히 감상할 수 있을테니까

참 산책하기 좋은 초겨울의 아침..... 금호강을 바라보는 대구 디아크 강변공원에서

로맨틱한 아침풍경속 걸음 걸음이 즐거운 날

니콘D7100 + 시그마70-300 시원한 초겨울 아침! 파란 강물을 즐기다[대구 금호강 디아크에서]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14

[다음뷰]당신과의 소통으로 행복했던 2013(DAY 3)

[다음뷰]당신과의 소통으로 행복했던 2013(DAY 3)

2013.12.04 06:00

개인적으로 2013년 한해는 블캣이에게 가장 큰 이슈들이 있었던 하루하루였네요
기억해보면 즐거웠던 추억이 더 많이 남아 있었구요
그 많은 추억들이 소록이 녹아든 블로그는 이제
일상과 인생을 기록하는 저만에 작은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진? 핸드폰으로 찍고, 친한사람들이랑 돌려보면 되잖아'

'블로그? 굳이 어렵게 글쓰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게 재미있겠어?'

네.... 저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블로그와 이웃... 그리고 사진에 대해 깊은 마음이 생기기 전까진!

블캣은 좋아하는게 많고, 한번 시작한 것에 푸욱 빠져서 거의 평생을 같이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아마.... 후후훗!
공부하는 머리는 없고... 취미생활은 많고...그 중에 사진을 알게되면서
이젠 그 취미들이 하나하나의 기록과 추억이 되어 갔지요

그냥 바라보는것만으로 대단하다.. 멋져라고 생각되던 수많은 풍경이
카메라를 공부하고 배우고 찍고 담으면서
새롭다 신기하다 재미있다로 바뀌었고

남들과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찌 달라지는지를 배웠으며
내가 바라본 시각들이 블로그를 통해 또 어찌 달라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의 소통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올려둔 사진 한장 한장에

코멘트를 달아주고 때론 칭찬... 그리고 때론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이웃분들

비단 사진의 메커니즘적인 부분 뿐만이 아닌

내가 느낀 감정과 생각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이웃님들

첫사랑처럼 강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다가와

끝사랑처럼 오랫동안 푸근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주는 소통의 공간!

일상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롭던 인생에
블로그와 나의 이웃들은 그런 아지트이자 보호막이 되어주었구요

지난 1년간의 기록들... 그리고 추억과 소통을 잠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의 이별을 준비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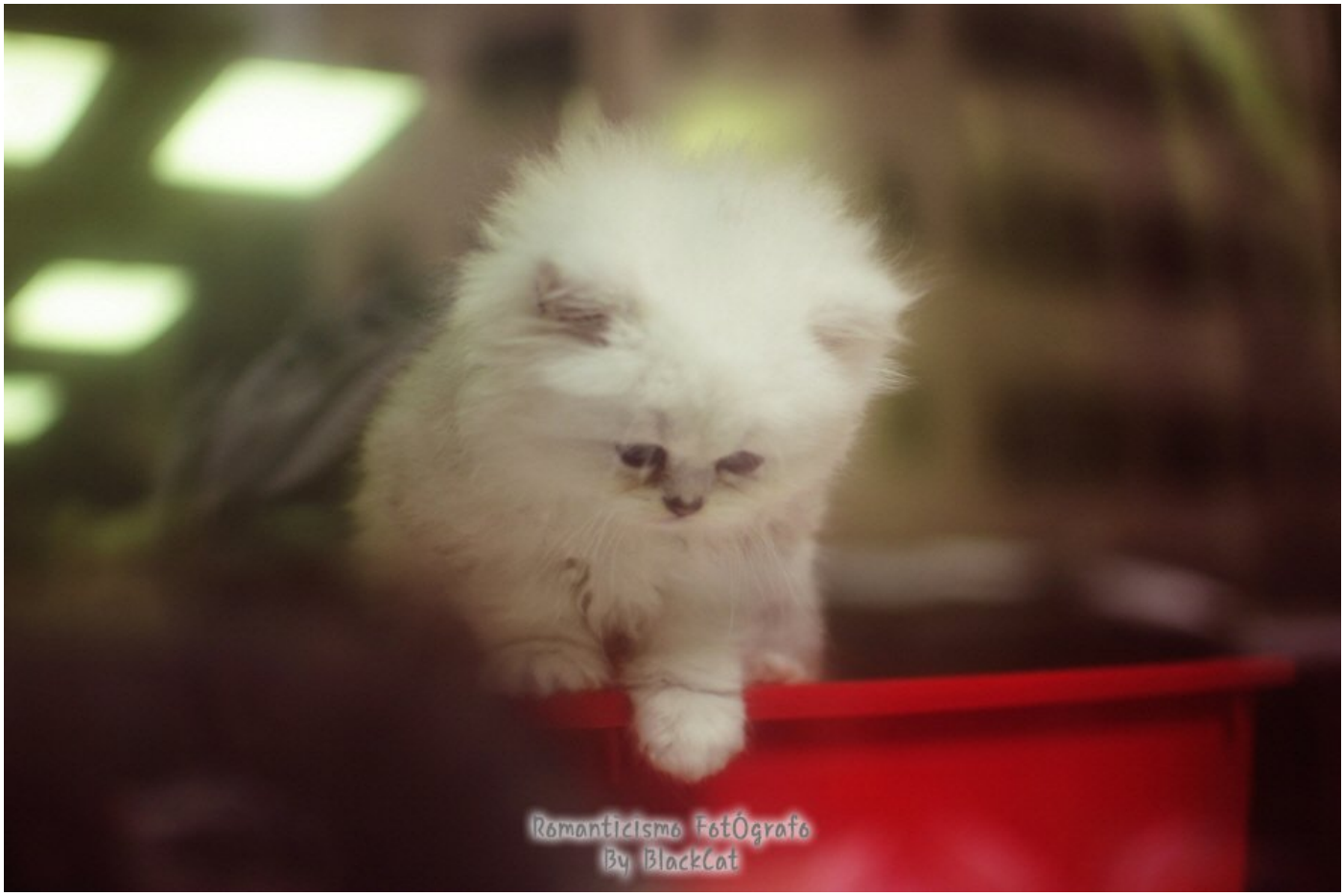
도망치듯 버리듯..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날아가려 했지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냥 화려하고 멋지게 블로그를 떠나면.... 시원할줄 알았는데

멍하니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다시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무심히 던진 이별이란 단어에 친하고 정겹던 이웃분들의 댓글한줄 한줄에
마음이 울고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그렇게 떠나려던 블로그.... 그래서 다시 시작한 블로그!

마음이 편해지고.... 가슴이 즐거워지며....



다시 또 첫발을 내딛는 마음 마음으로... 블로그에 대한 또다른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30살!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하는 발걸음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은 영원히 변치않고 그렇게 또 다시 또 다시
돌고 돌고 돌아 나에게 오리란것을

영원히 푸르를수는 없지만...

인생에 굴곡이 있듯.... 또다시 힘들다 투정을 부릴테지만

좋아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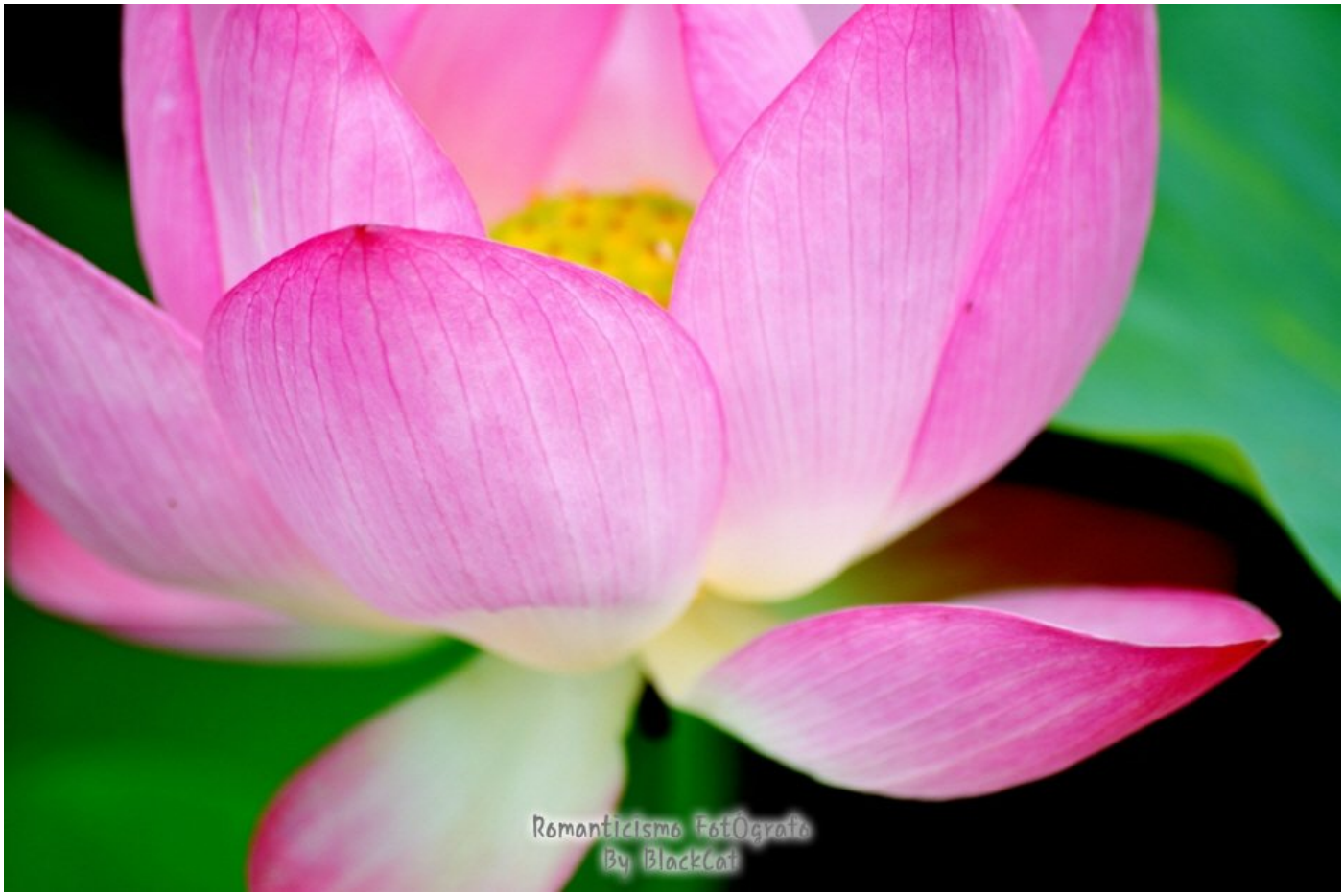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마음이 별빛처럼 모여

그렇게 결국 내 아지트는 또다시 나에게 활력이 되어줄 것이기에 말이지요

밤이 깊어가고 계절이 바뀌어가고 사는 모습이 달라져가도

또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다가올 이 곳 나의 작은 사진방에서

그렇게 나는 이정표처럼... 가만히 다가오고 흘러갈 인연들을 기다리고



그저 감사한 그 마음들에게 좋은 말들과 좋은 시선들을 선물해야 겠어요

작고 작은 1mm도 안되는 내가 가진 소소한 재주로

어쩌면.. 수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올때까지

오랜 기다림이라도 좋습니다... 또 그렇게 1년이 10년이 넘어도

그저 평온히 기다리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당신과 나와 우리와 모두가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는 작은 사진방.. 나의 감성사진이야기를

2013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
짧은 나의 이야기를 긴 추억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기록해 봅니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블로그와 못다한 이야기들.... 추억에 잠기다

15

[다음뷰]계절은 겨울속으로 걸음을 걷다(DAY2)

[다음뷰]계절은 겨울속으로 걸음을 걷다(DAY 2)

2013.12.03 06:00

저녁무렵 즘..... 햇살 속에 비치는 거리가 너무 평화로워.. 그냥 길을 걸었다

일상생활 속에 그동안 멈춰있던 마음 한구석에 메아리를 따라.... 참 오랜만에 혼자 걷는 길

아는 이도 없고 알고픈 이들도 없는 이름모르는 공간속에 덩그런히 그렇게

인적이 드문 길들을 골라 철저히 혼자만에 길을 굽이굽이 걸었다

하지만 어느곳이든... 그냥 텅비어있을 듯한 그곳에도.. 발걸음 마다 하나씩 이웃이 늘어나고

혼자라 생각한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을 찾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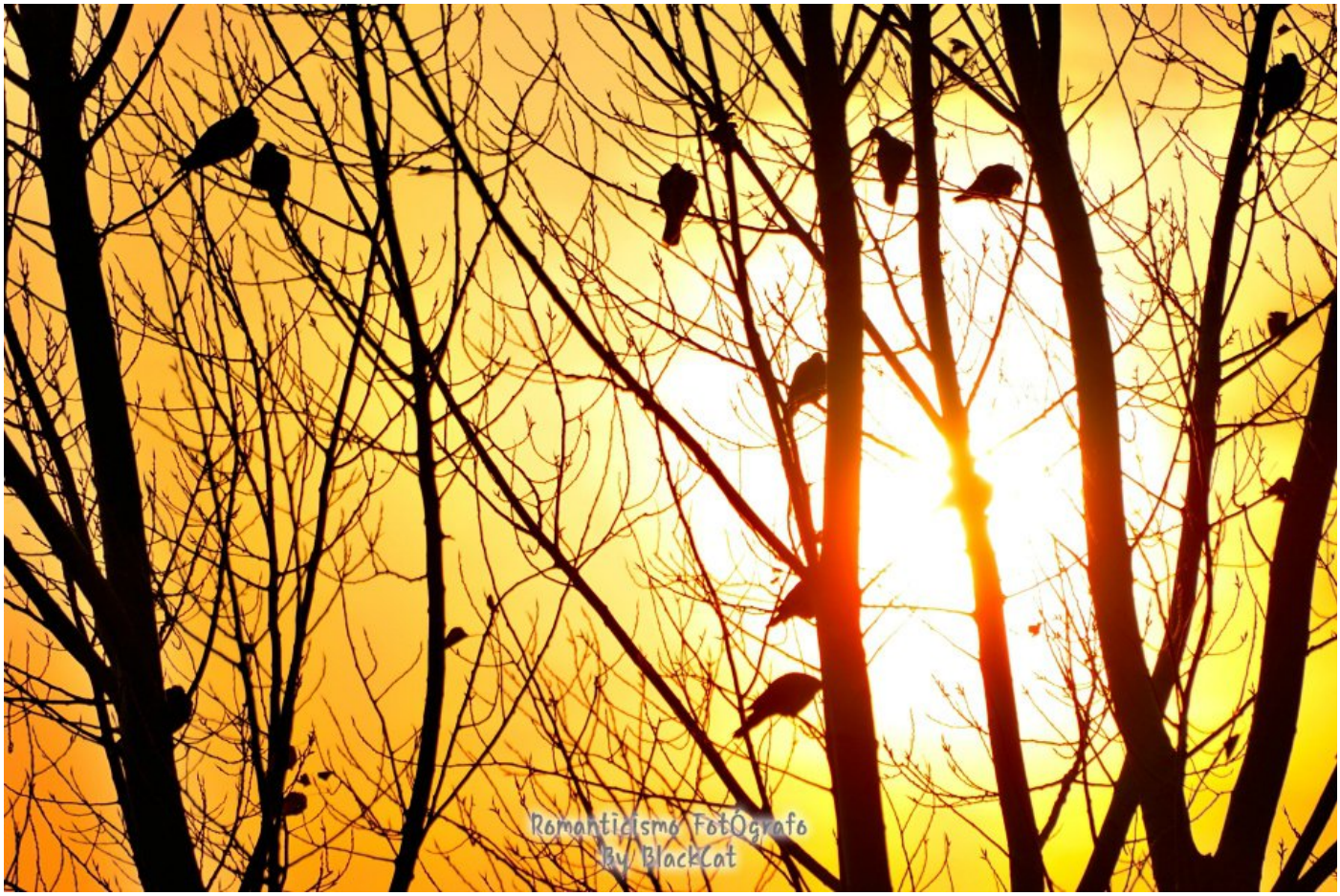
무엇이든 그러한 것 같다. 그냥 혼자일 수도 없고... 그저 혼자일 필요도 없다

내가 걷는 길엔 언제나 누군가의 발걸음을 쫓는 것이고 혹은 내 발걸음을 쫓아 누군가 따라올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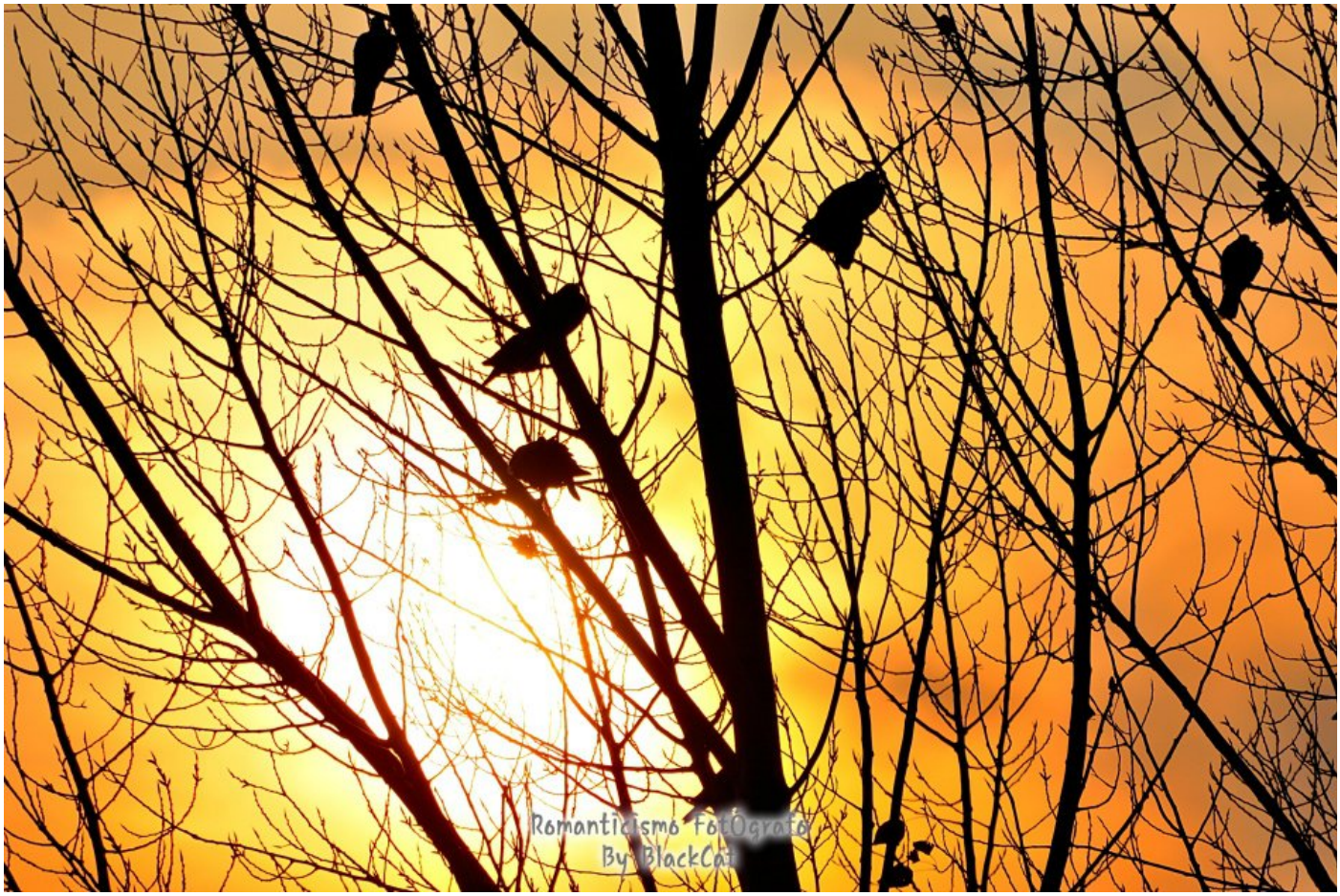
일순간 자신이 혼자라 느낀다면 잠시 멈춰 귀를 기울여

진짜 자신이 혼자인지를 들어보라.... 어느 순간 뚜벅이는 타인의 발걸음을 듣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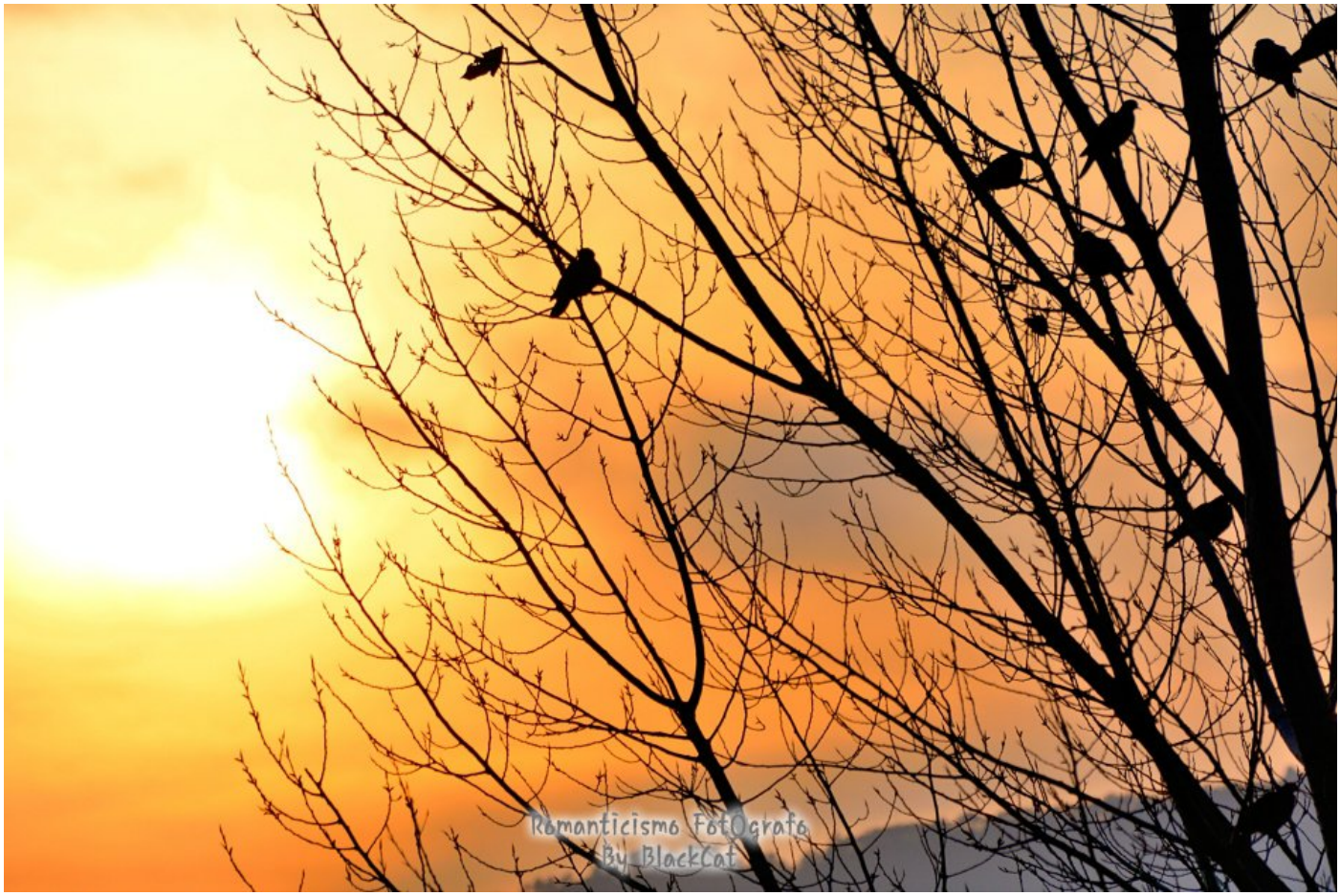
외로움은 결국 자신을 닫아둔 마음의 벽일 뿐....



소외라는 단어는 단지 내손을 누군가 잡아주지 않는 의미가 아닌



내가 먼저 타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 생기는 단절일 뿐



고독치료는 그러한것 같다... 그저 손을 내밀고 먼저 눈길을 주면 되는 것

걷자... 거닐면서 그냥 눈인사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혼자라 아픈 마음에도 당신의 손을 잡아줄 반듯이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제발.... 자신의 혼자란 생각을 하지 말기를...
살아주기를.... 그냥 그렇게 다시 돌아와 생을 붙잡아 주기를

니콘D7100 + 시그마70-300 혼자라 생각하지 말기![겨울이 내려앉은 불국사역 인근]

세상엔 아직.....

불국사역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동 | 1544-7788

16

그냥 조용히 바라보고픈 풍경에서(DAY1)

그냥 조용히 바라보고픈 풍경에서(DAY 1)

2013.12.02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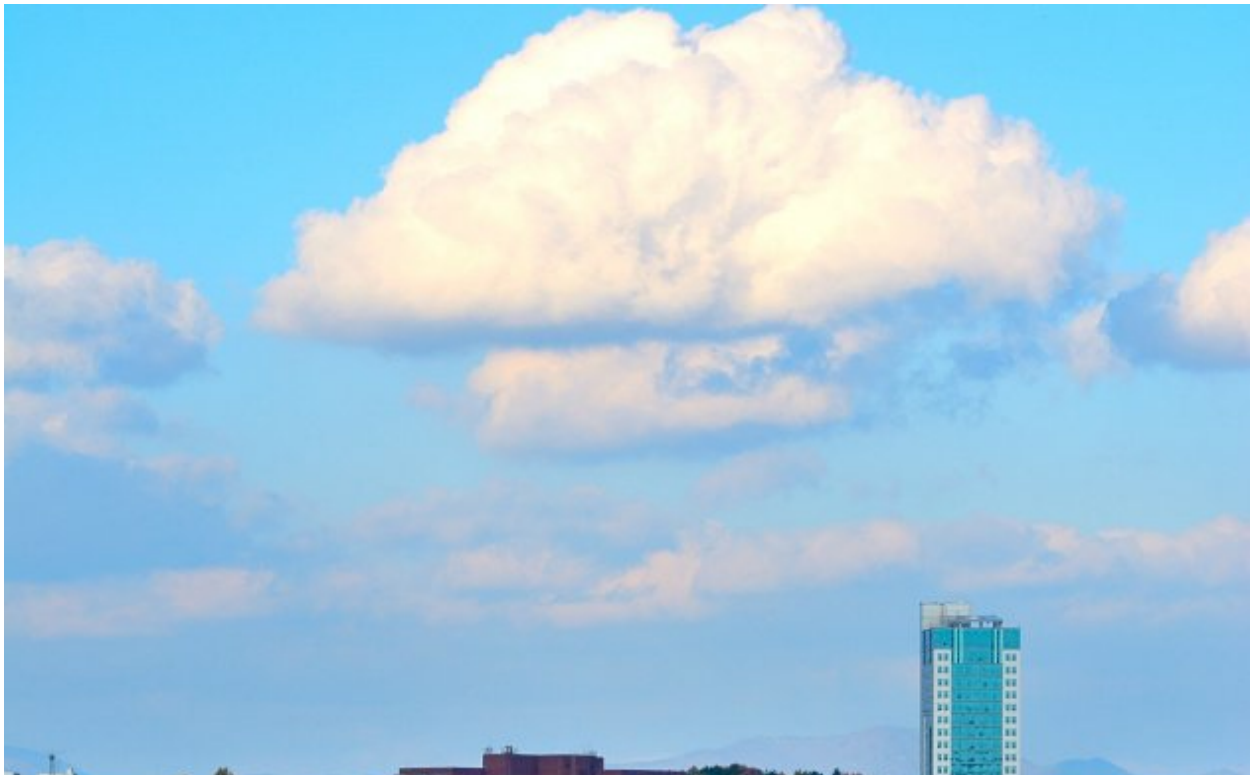
퇴근길 문득... 그냥 사람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어요

꼭꼭 여민 옷깃사이로 슴어드는 싸늘한 바람처럼... 그렇게 느닷없이

별것 아닌 이야기에 웃음짓고...웃음을 주는 사람과 찐하게 한잔 하고픈 날

마음을 나누기만 해도 그저 고개짓 몇번으로도 가끔 던져주는 시선 만으로도

거칠고 위험한... 아슬아슬 매일이 줄타기 같은 삶에... 작은 안식처 휴식처가 되어주는 사람



나에겐 너무 벅찬 일들이 내 맘과 너무도 다른 공간이 힘들때 고요히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

가끔 그런날이 있어요... 그저 조용히 눈감고 가만히 내 속에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때면

똑똑똑... 언제나 즐거운 희망을 전해주는 고마운 소식같은 사람이

텅비어 버린 가지같이... 찬바람이 가슴을 타고 흐르면... 빨갛게 남겨둔
까치밥처럼.... 언제나 내 희망이 되어주는 너...
보고싶다 친구야!

니콘D7100 + 시그마70-300 먼저 떠나간 내 벗에게... 슬픈 걸음을 따라[대구대학교 문천지에서]

세상엔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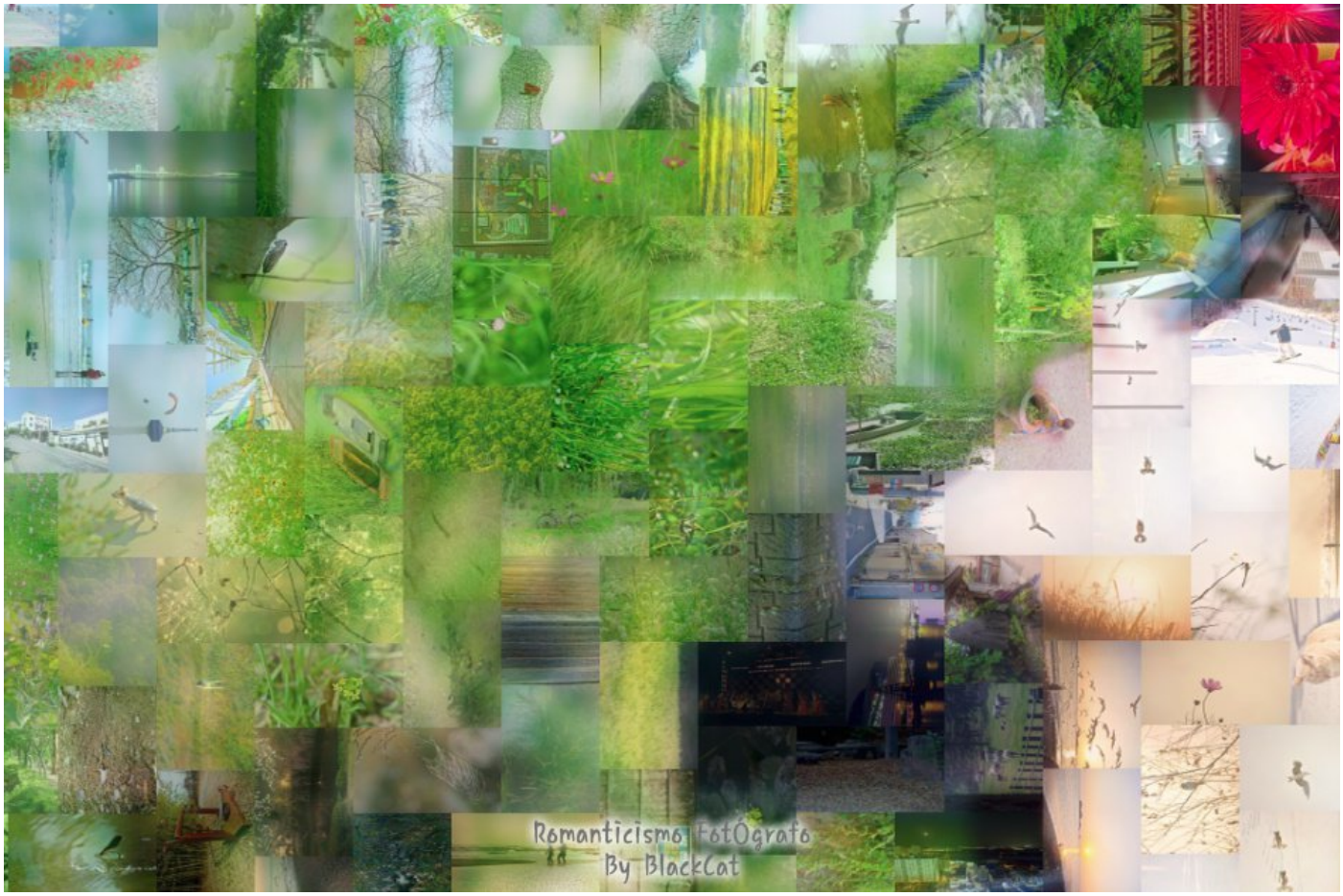
17

가끔 그런날이 있습니다...지금이 그런 날입니다(DAY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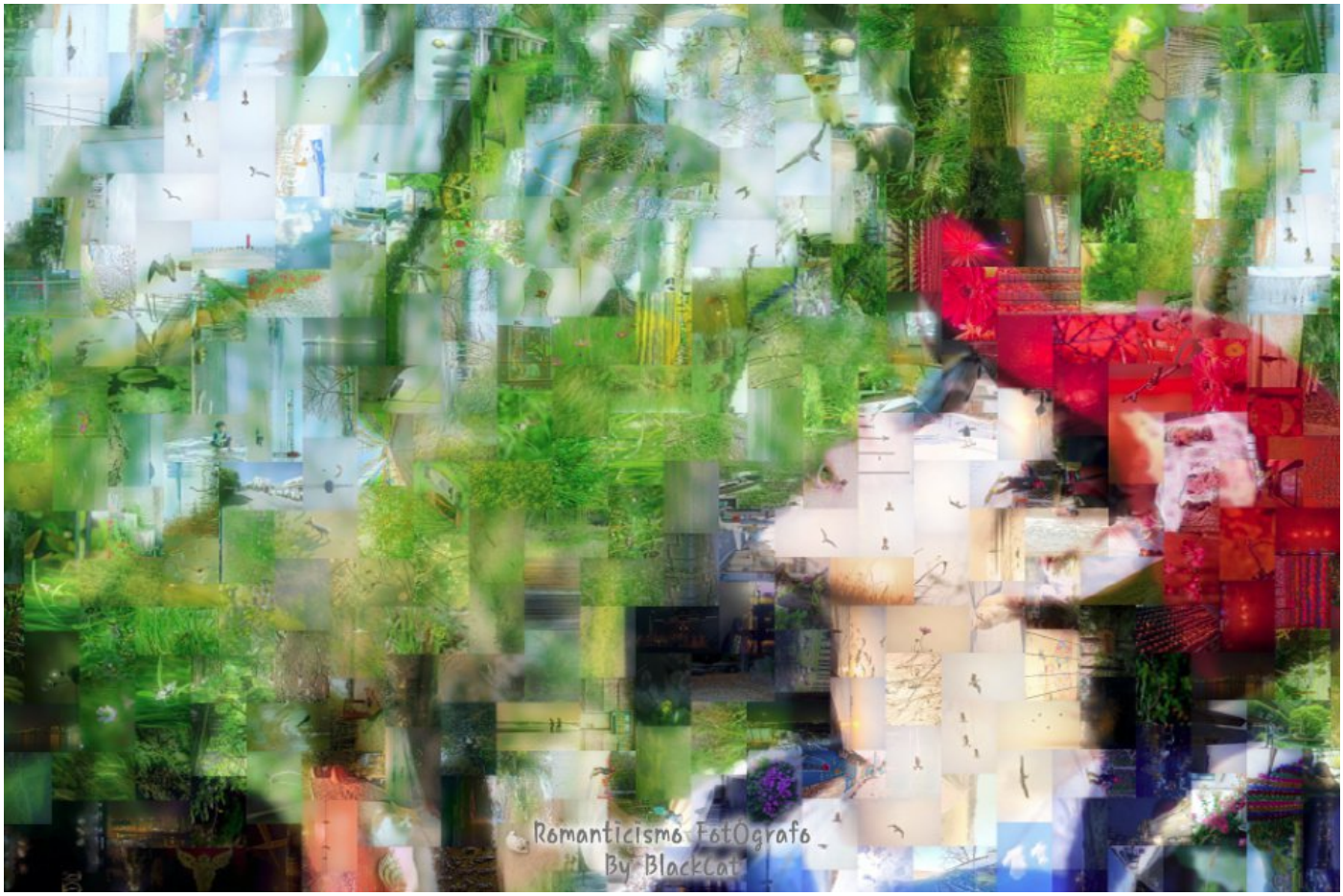
가끔 그런날이 있습니다...지금이 그런 날입니다(DAY 0)

2013.12.01 00:00

DAY-0.... 가끔 그런날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날이구요
시작과 끝의 기로에서 결국 끝을 선택했는 날
편하고 즐거울 것 같던 순간은 잠시.. 오히려 더 많은것들이 생각나고
자꾸 자꾸 눈에 밟히는 그런날....



아주 친한 멘토와 같은 저의 지인과 술한잔을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
호되게 혼이난 그런날..... 인생에 후회할 일은 애초에 만들지 말것이고
후회가 되면 아직 늦지 않은것이니 다시 꼭 붙잡으라고



다 정리하려고....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들을 꺼내어보다... 문득
아.. 진짜 엄청나게 담고 이야기를 했었구나... 울컥...
그냥 그렇게 떠올라 버렸습니다

이별이란 단어를 차마 적지 못하고... 그저 잠시 떠나 있겠다던 생각
찬 바람이 부는 새벽의 창밖은 하늘이 찢어질듯 거칠게 흐르는 날
그런 날 문득..... 글을 쓰고 있습니다...

Hasta la vista!

영어로는 안녕! 잘가!를 말하는 이 단어를 걸어둔 것도....

스페인어로는 또 만납시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BlackCat.....새마음으로 지금 다시 시작의 이야기를 걸어봅니다

세상엔 아직.....

18

D-1 잊지않아요....잊지말아주세요

D-1 잊지않아요....잊지말아주세요

2013.11.24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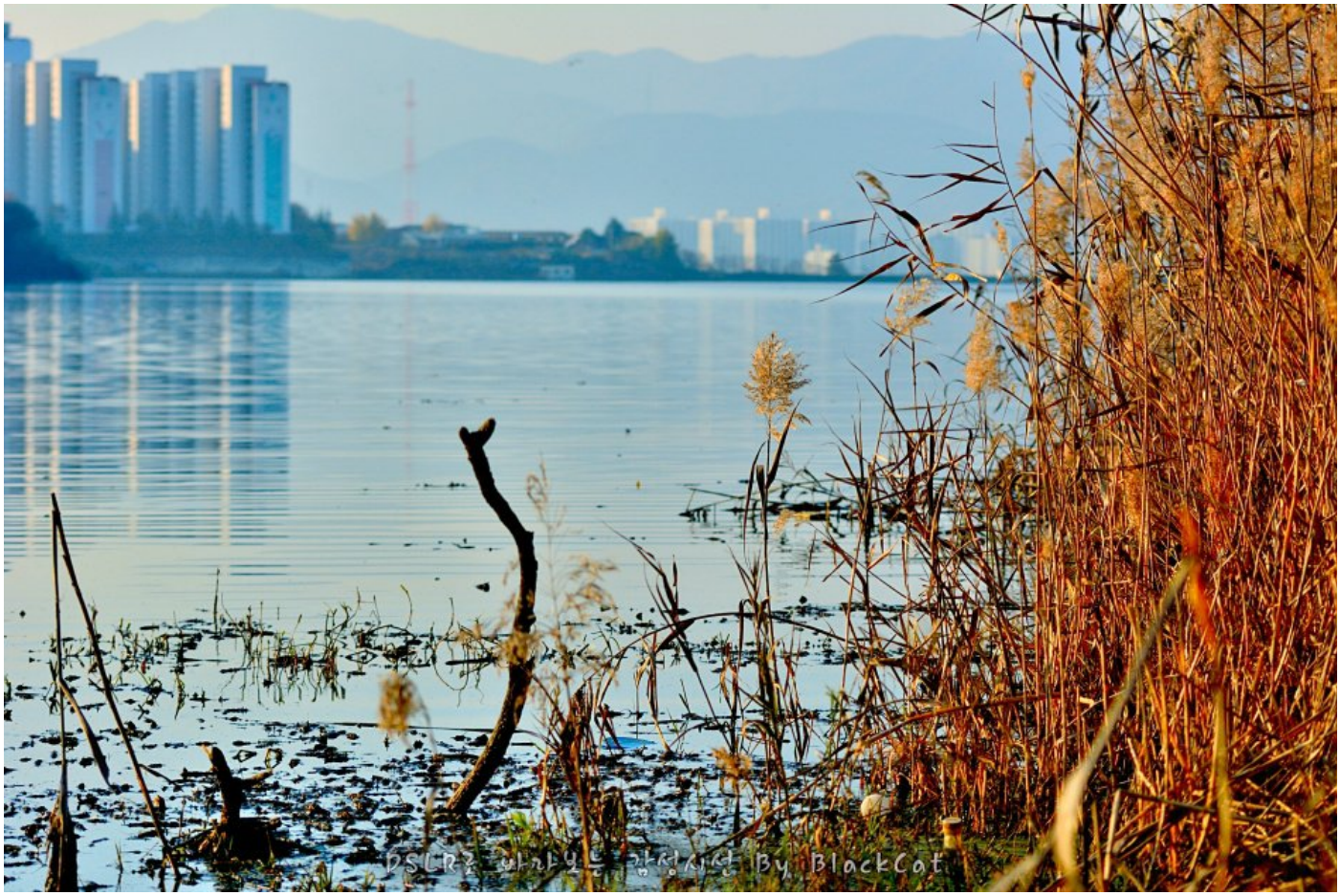
블캣은 그냥 다른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처음엔 소통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같은 관심으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같은 곳을 향해 갈수 있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인연이 인연을 만나고 추억은 행복이 되어갔습니다.. 함께하는 공간

그러다 스믈스믈..... 마음 한켠엔 뾰족한 무엇이 솟아났지요



이곳이 풍요롭고 이곳이 평화롭고 이곳이 행복한것을 아는데
자꾸 다른 세상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하나둘.... 다음블로그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런 맘에 돌을 던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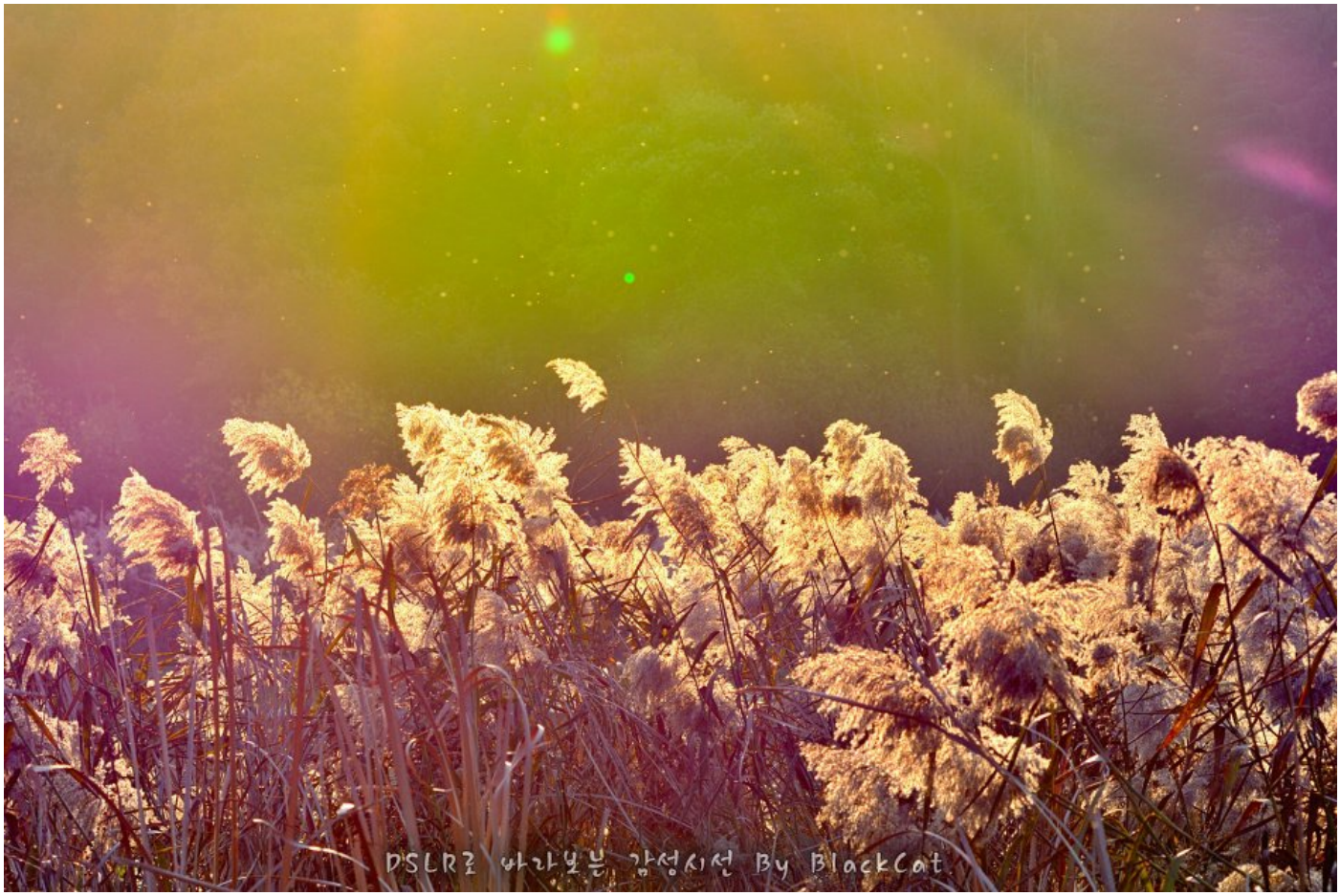
내맘도 어느세....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이 자꾸 커져갔던가 봅니다

어쩌면.. 그냥 블캣이의 변덕일수도.. 어쩌면 그냥 다음이란곳에 대한 실증일수도

나름..... 1년여동안 저도 블캣이의 방을 통해 황금같은 기쁨이 있었구요

내것이 아닌 옷을 입고..... 내것이 아닌 구두를 신듯....
내갠 너무 과분했던 1위의 순간들 그리고..... 베스트라는 내 이야기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쓰는 글들 사이로... 자만이라는 마음이 자꾸 자랐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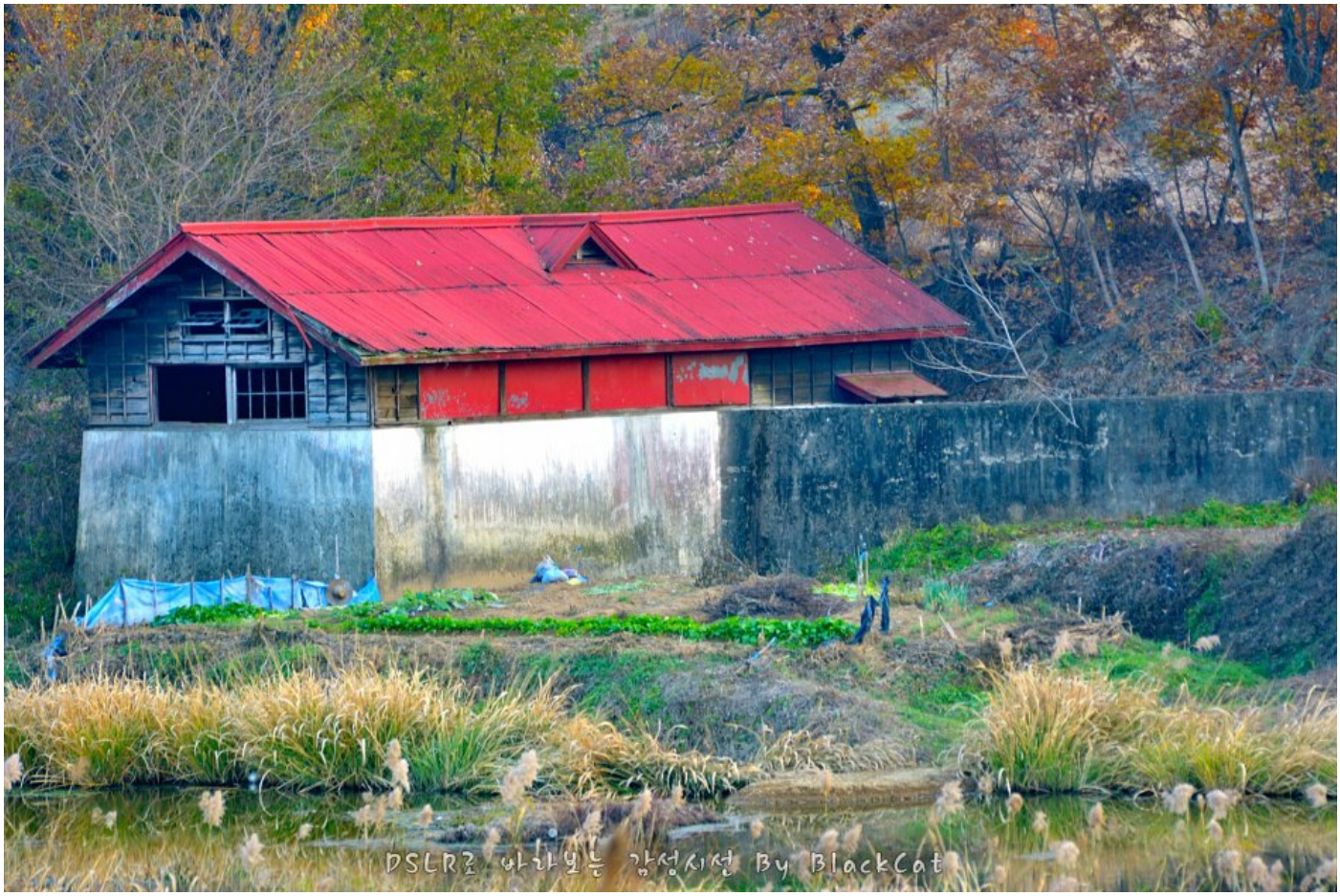


자꾸 더 오르고 싶고.. 떨어지면 조급하고.... 초심을 찾고 싶은 마음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쁜 마음에 미친듯 흔들려 버렸구요

내 초심은.. 그냥 소통을 원했고.... 내 마음은 그냥 즐겁기만을 바랬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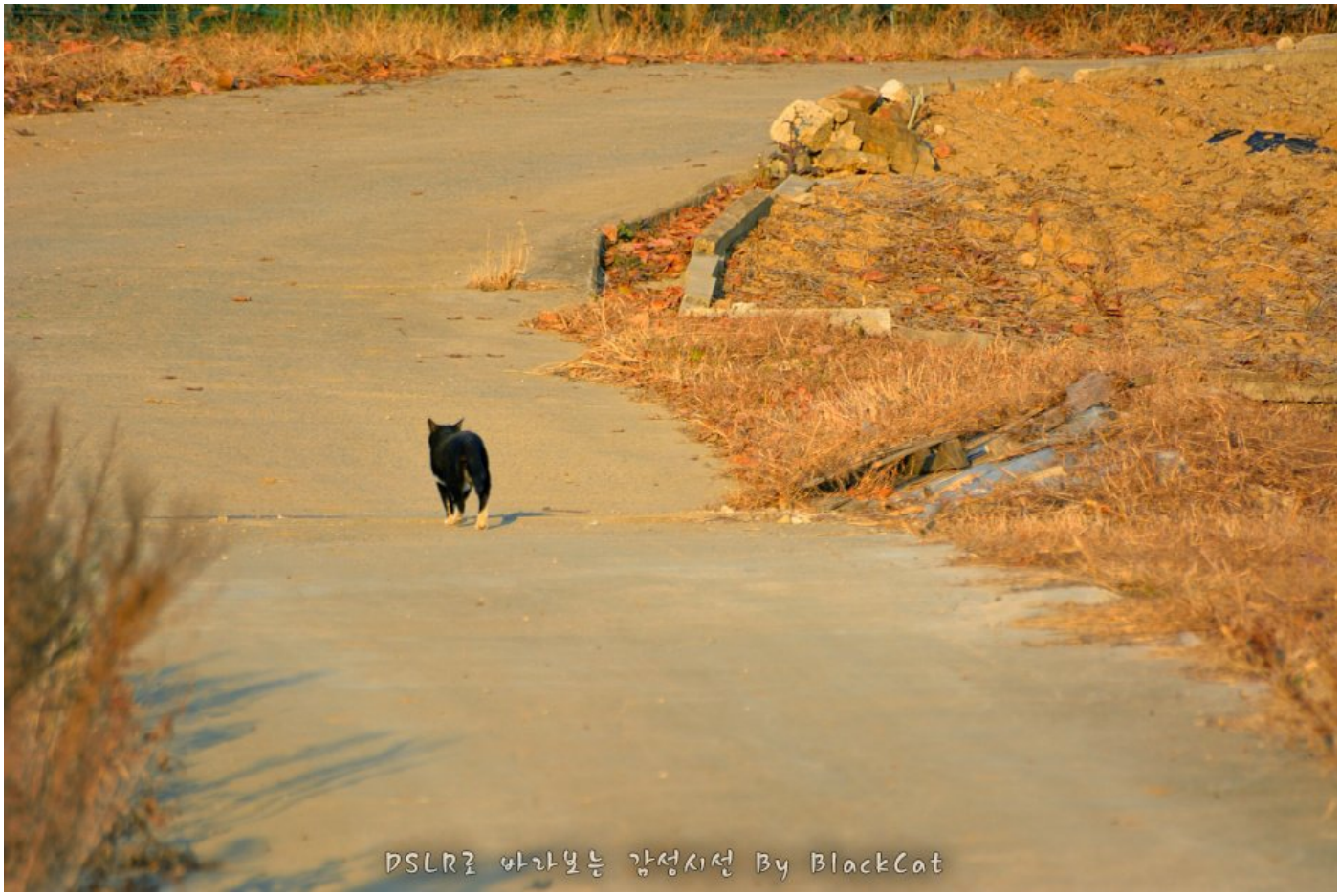
끝내...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자꾸만 그렇게 맘의 병이 커졌나봅니다

이제와..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갈 수 없다면.... 그냥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졌나봅니다



그렇게 나쁜 블캣은... 정든 집을 이리 두고 떠나려 합니다....

이웃분들... ㅠ—ㅠ 그냥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먹먹해지는 기분이네요....



블캣이 떠나는 길위에... 이별편지라고 이렇게 글을쓰는 마음....
잊혀져도 할 수없지만... 잊지말아주세요....잊지않겠습니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이야...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19

D-2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D-2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2013.11.23 06:00

이별이 .... 이별이 아니길..... 사랑했습니다.. 블캣이는...아직도 사랑하는 맘 변치 않았습니다

뾰족뾰족한 마음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비수처럼 남을 할퀴는 마음으로...

언제부턴가... 남의 말은 항상 반대로.... 다른이의 감사한 마음은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상처아닌 상처를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고

블캣은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에게 사슬을 묶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미운 마음이.... 블로그를 하며 만난 이웃님들...형님들 누님들....

지역도 다르고 각자의 마음도 다르지만... 한결같이 사랑스런 눈길로 저를 바라봐주신 분들 덕분에

거칠고 밉던 못된 마음이 어느세 사랑이 자라나 버렸습니다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어찌 대답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할지도 참 많이 고민했던 나날들

늘상 혼자라는 생각만 나만의 존재만 세상에 있다는 마음이
지금은 혼자 남게되면 어찌 그 슬픔을 또 감당할까의 두려움이 되어버렸네요

혼자... 그렇게 혼자였던 나에게... 이웃이라는 그리고 너라는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내 고맙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이웃분들.....

조금씩 조금씩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그 화려하고 즐겁고 정겨운 마음의 빛으로 채워주신
형님, 누님..... 어쩌면 지금은 내 모든것이 되어버린 이웃분들

벽을보고 대화를 나누듯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잣말을 하는거라... 블로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저는 마지막을 준비할 지라도... 또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분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실 겁니다

외톨이에 부서지고 찢기고 아프던 마음의 블캣이에게

내가 알던 세상에서 새로운 사랑을 알게하신 제 이웃분들처럼 말이지요...

뒤늦은.... 어쩌면 그렇게 이미 다알고 있을 이야기....

사랑했습니다...모두를...아직 저는 사랑합니다..여전히 저는

니콘D7100 + 시그마70-300 금강휴계소에 앉아...이별을 준비하다 그냥 왈칵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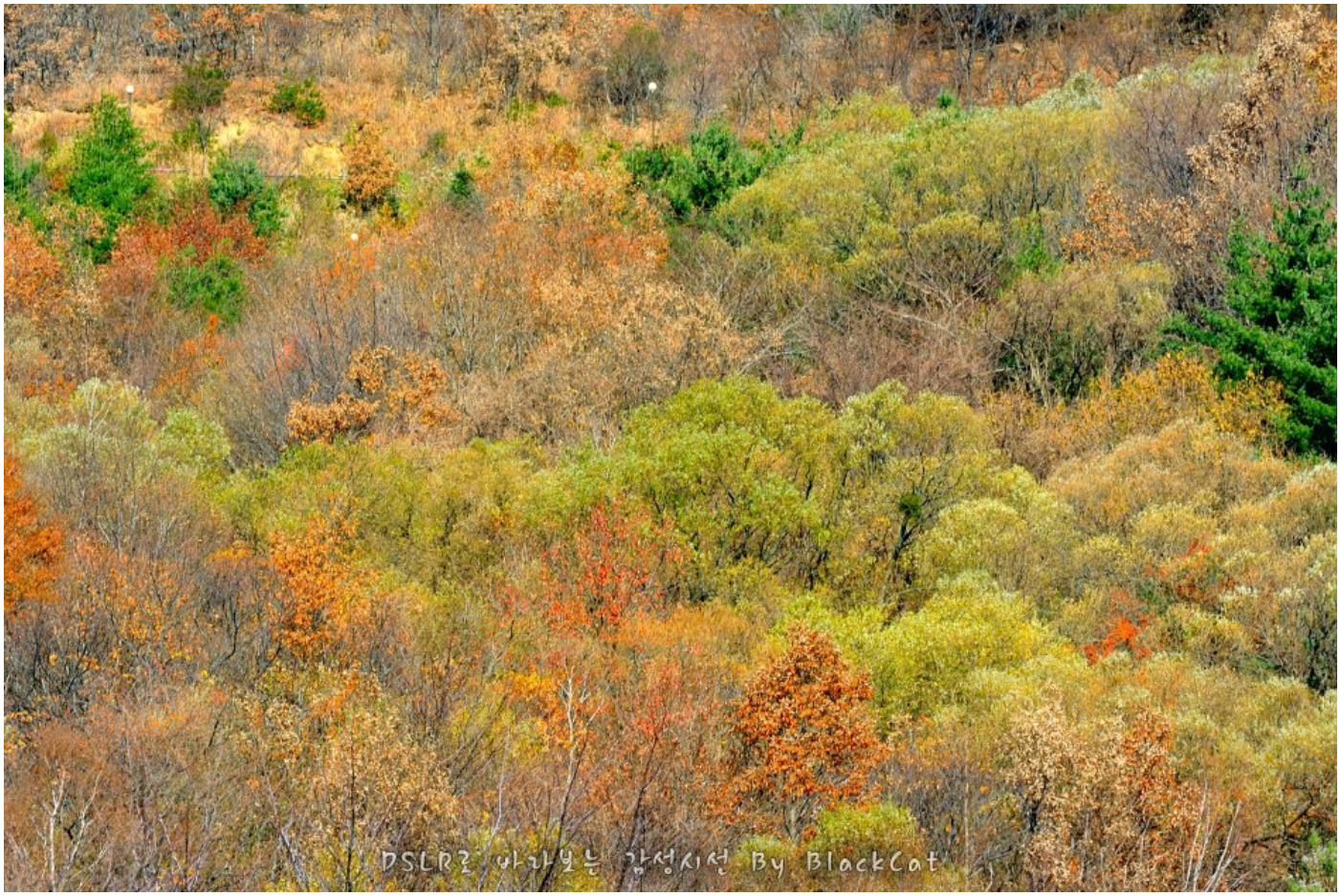
D-3오랜고민....그리고 고민

D-3 오랜고민....그리고 고민

2013.11.22 06:00

쉼없이 달려와버렸네요.... 한참을 그렇게 쳇바퀴를 굴리듯.....

20대는 멋도 모르고 쏜살같이 시간이 흐를줄도 모르고.....



20살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할즘.... 돌아보면... 블로그를 시작한 순간이 참 잘했다 다행이다

일과 일사이의 스트레스 속에 좋아하는것을 찾아내고 흔들리는 마음을 한곳으로 쏟을 수 있었으니

어둡고 쓸쓸하던 일상에 햇살이 비추듯 좋은 사람과 이웃을 만들고

블로그는 내 정성만큼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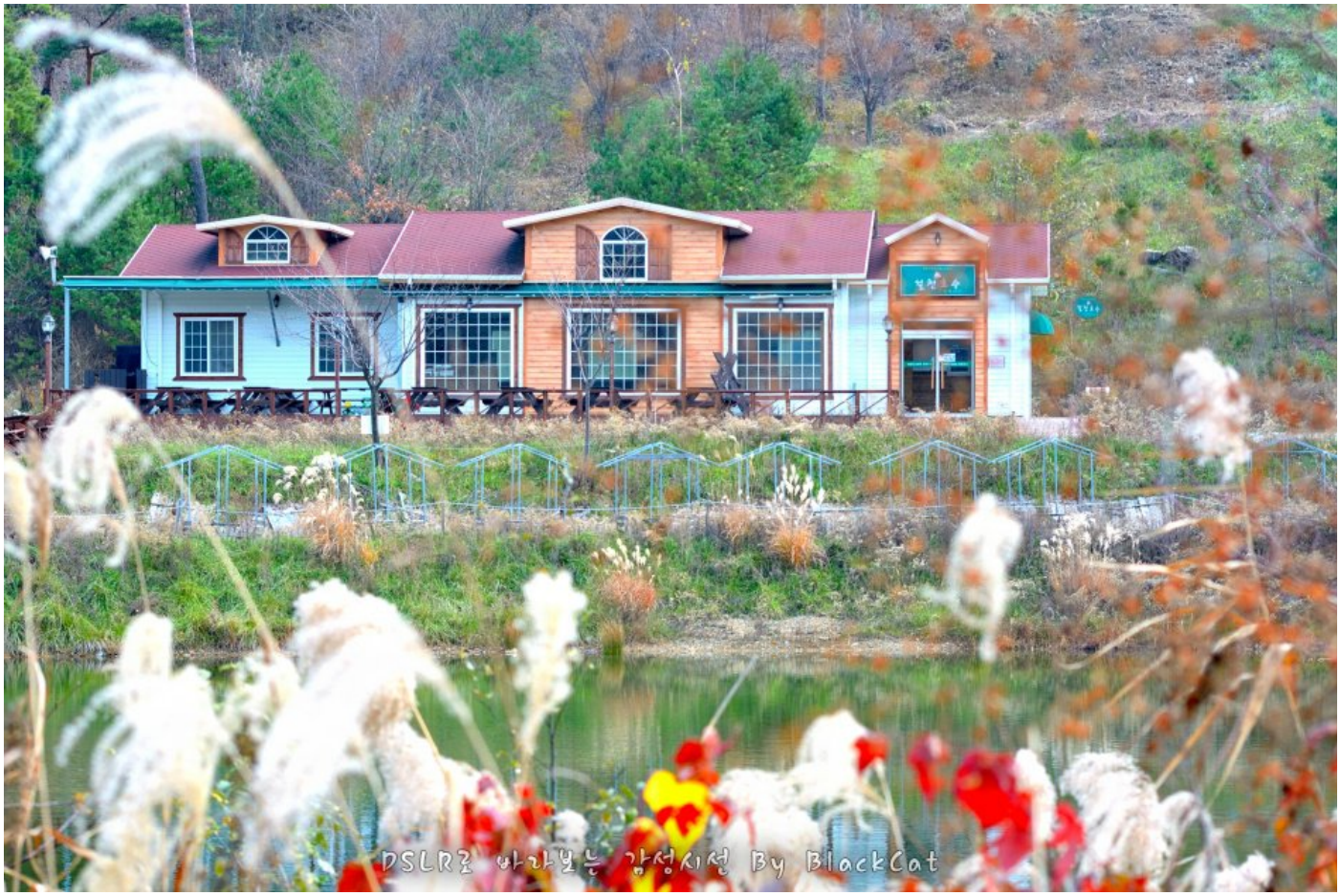
처음엔 바라보기만 했던 그 높은 범위에 까지.... 내 추억들이 하나씩 자라날 수 있었다

그저... 마구잡이로 자라나고 얽히고... 헤매면서 배우고 또 즐거워 했던 추억들

먼가 숨겨진... .숨어진 내 일부분을 찾아낸것 처럼... 그렇게 행복했던 지난 1년간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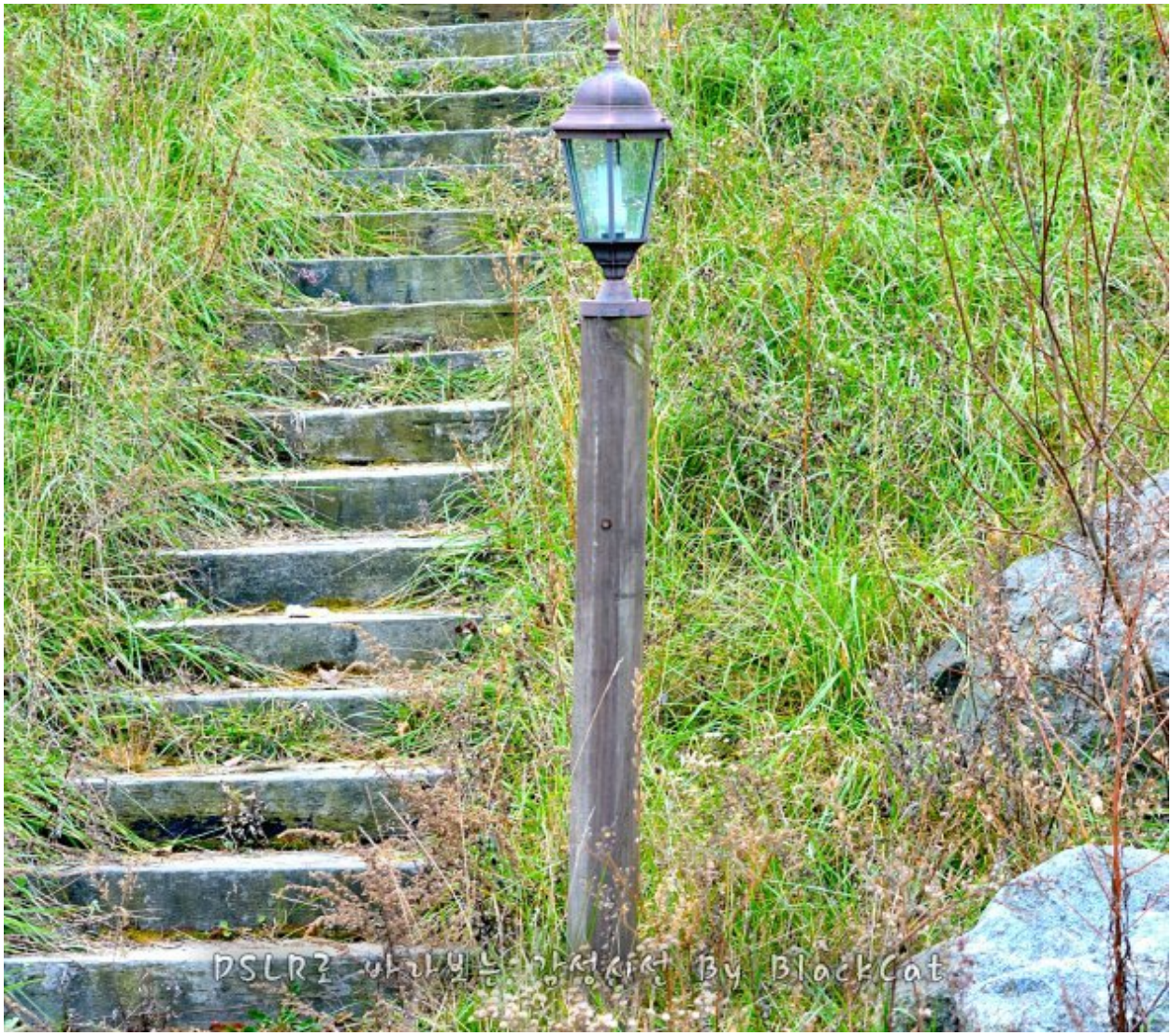
작은 씨앗으로 출발한 내 이야기들은 이웃들이란 숲을만들고 지난 1년간의 추억은 어느새 산처럼 쌓였는데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아직 할말도 이야기도 많이 남았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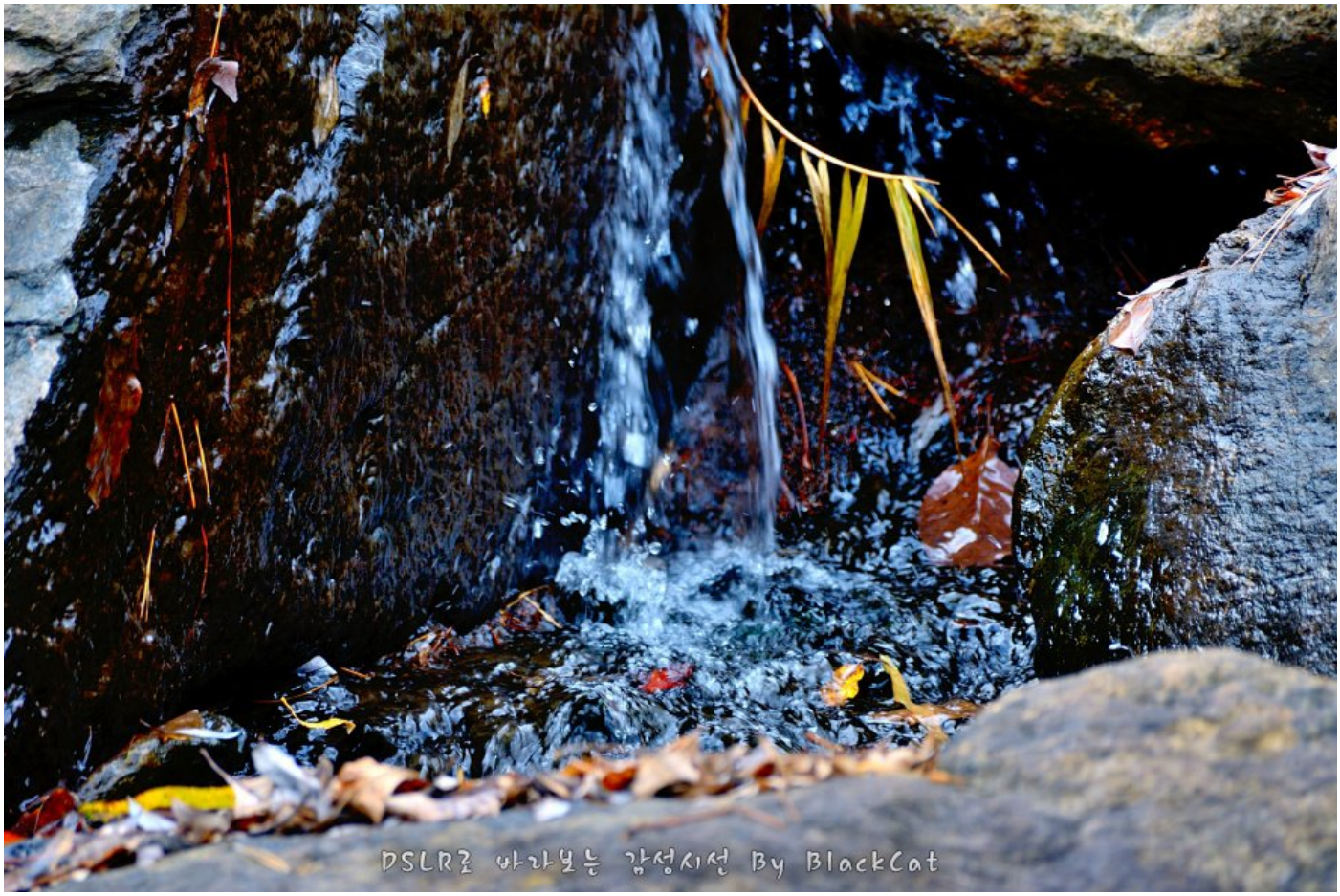
끝까지 변치않을 수 있을거란 미련한 생각도

어디부터 잠식되어 왔는지 모를 생각들도 여기저기... 점점



그저 내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바뀔즈음.... 아마 그때 즈음

나에대한 생각이 내 생각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색을 바래고 있는 그즈음



포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왈칵 내 모든것을 흘려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나봅니다

D-3..... 오랜고민 끝에... 오랜 시간의 끝자락에.....잠시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

니콘D7100 + 시그마70-300 가을 바람을 따라 떠나가고픈 마음을 담아

※ 사진을 담아가시는건 좋지만,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펌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카메라: 니콘 D7100(Nikon DSLR 7100)

렌 즈: 시그마70-300 (구형 시그마 고구마 망원렌즈)

21

혼자인게 때론 외롭더라(DAY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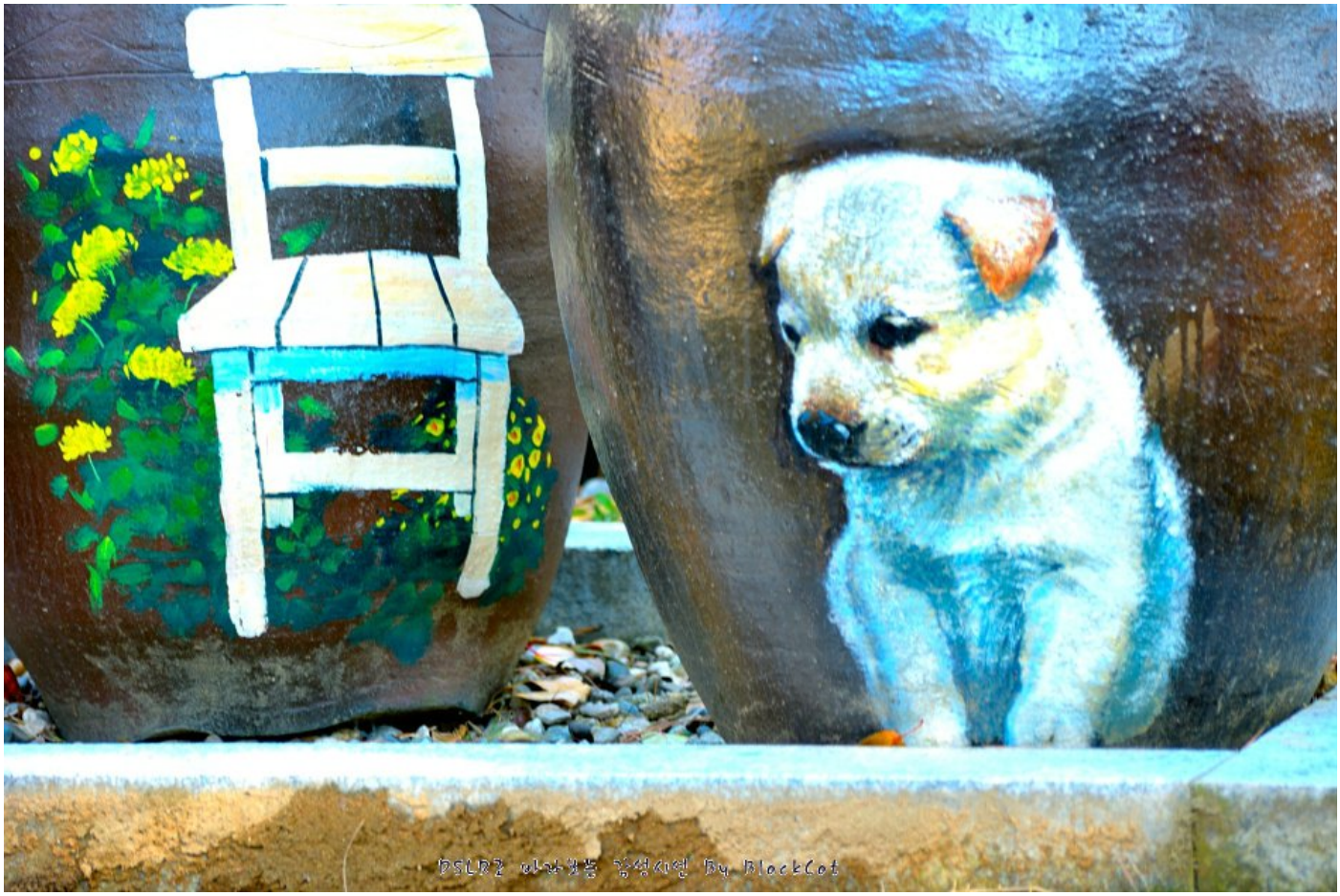
혼자인게 때론 외롭더라(DAY 15)

2013.12.17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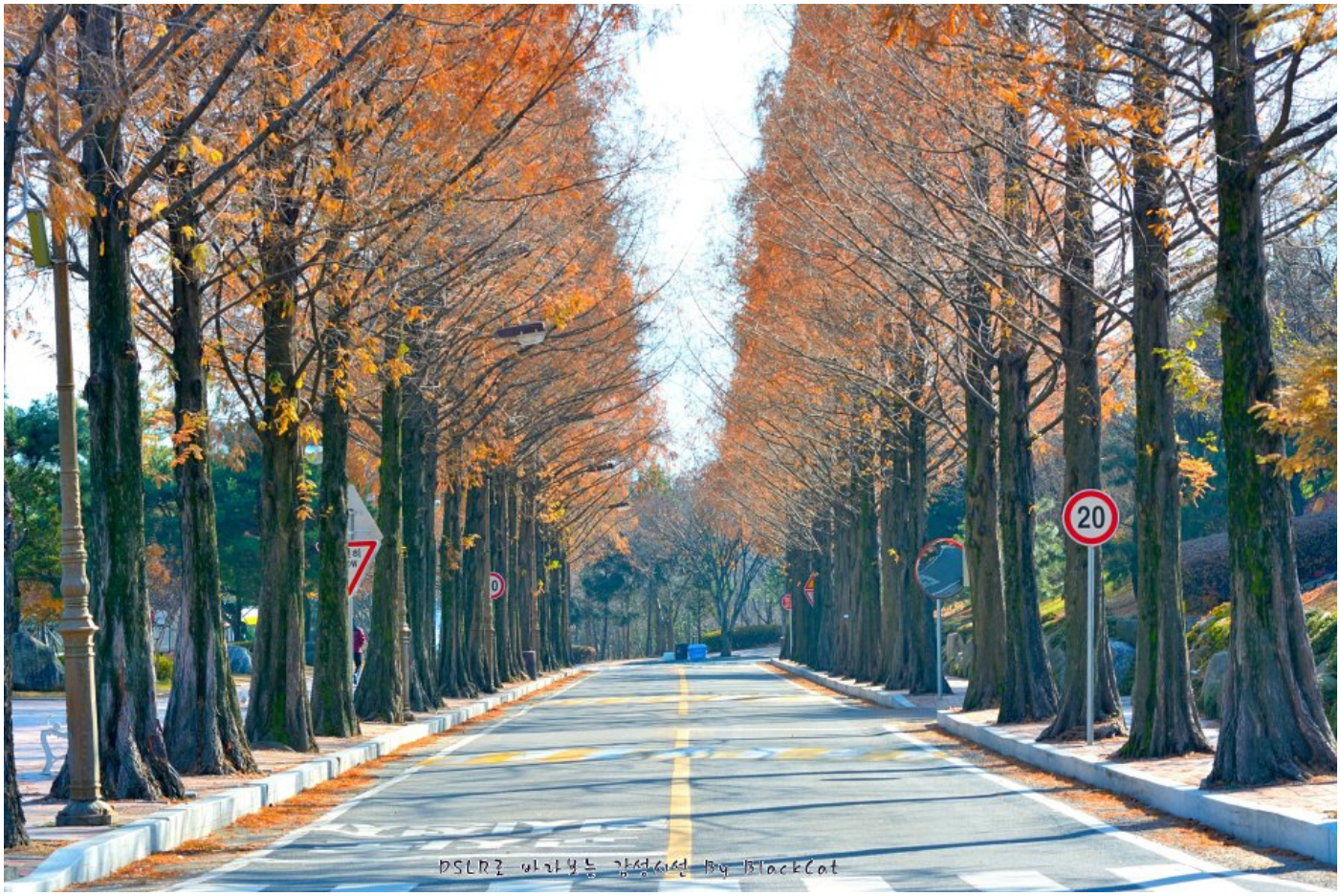
텅빈 공간에 둘만 있는 상황이 예전엔 엄청 어렵고 싫었는데

근데..... 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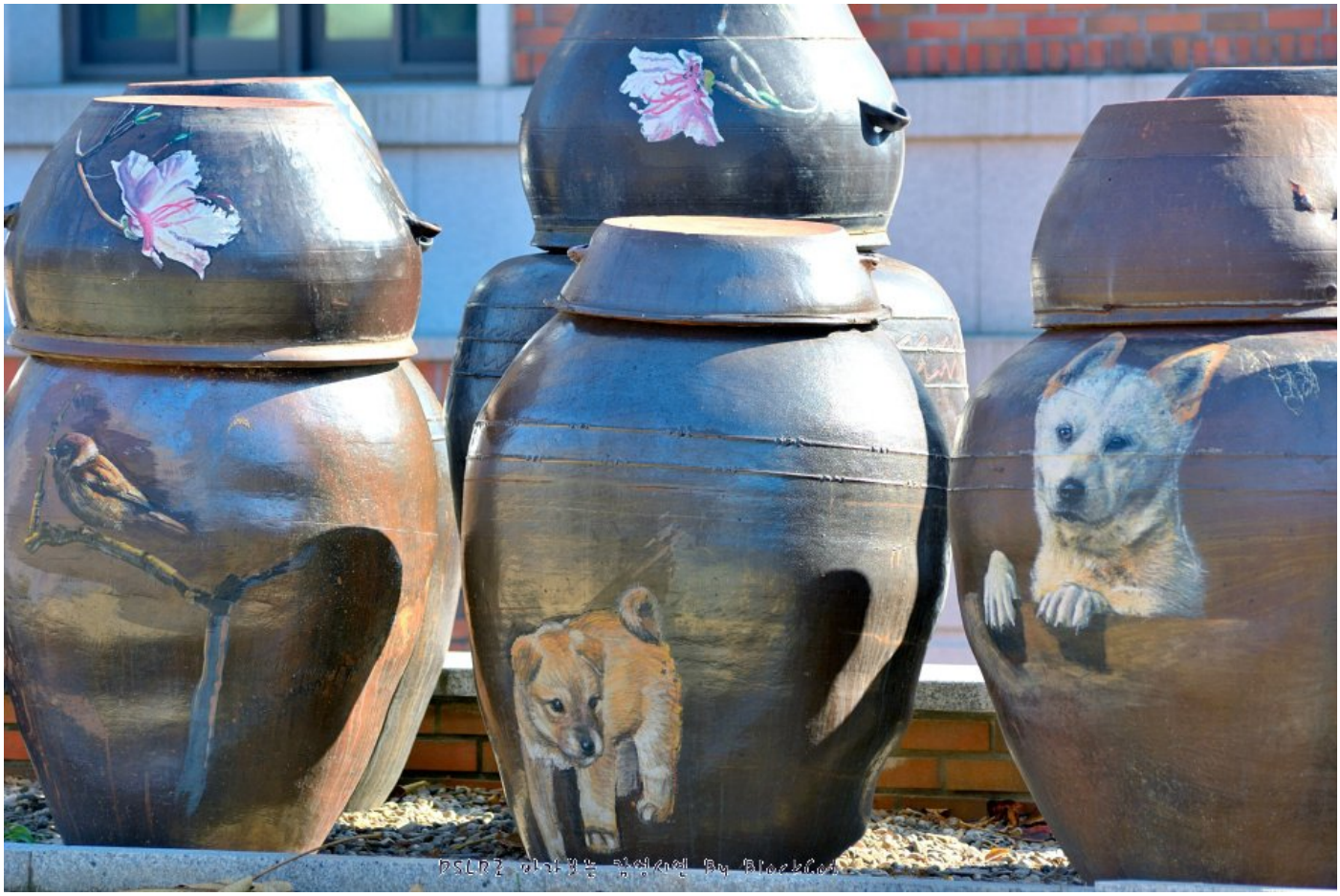
아무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니.... 그게 너무 외로운거라



텅빈.... 그의 자리도 너무 그립고 그리움이 나를 삼켜 슬픔이 차오르고



있을땐 그래 알지못하지... 니가 나를 위해 막아주고 보호하던 많은 것들이



그냥 쳐다보는 너의 시선이 왜 그렇게 힘들고 밉던지 짜증만 내고

나혼자면 엄청 편하고 즐겁고 화려할줄 알았는데

있잖아... 평온한 마음이 된것이 아니라.... 정적... 멈춰버렸다

떠난 빈자리엔 또다른 마음이 금방 들어찰것 같더니

가슴한켠에 진하게 남은 마음의 빈자리는 검게.... 비어버려

그렇게 떠나버린 너의 뒷모습만 자꾸나는 쫓게 되어

떠나갈땐.... 떠나보낼땐.... 그렇게 그냥 그저 그랬는데... 왜 갑자기

지금에야.... 왜 그 그리운 빈자리가 그렇게 떠오르는 건지.....

니콘D7100 + 시그마70-300 + 니콘35mmf2d 계명대학교 텅빈 교정엔 아련함이 남아

"ART Director By Black Cat"

[BlackCat 이야기는 무단복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 및 필요시 댓글로 문의바랍니다-

계명대학교성서캠퍼스 본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2

하얀 눈처럼 순수하게 좋아합니다(DAY 14)

하얀 눈처럼 순수하게 좋아합니다(DAY 14)

2013.12.16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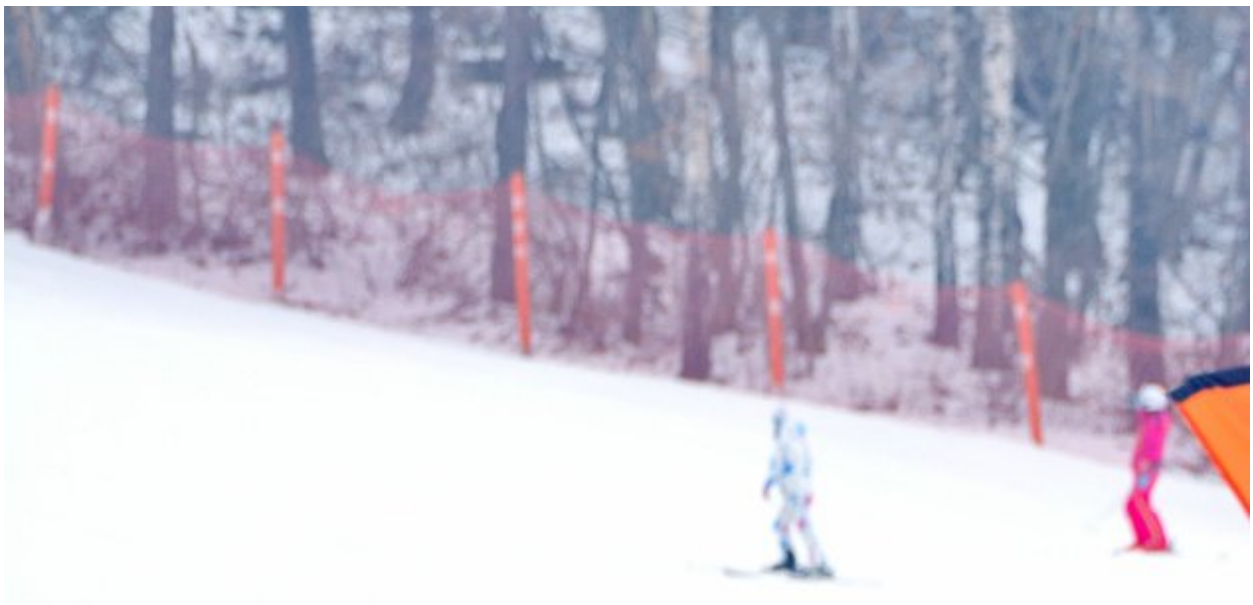
하얀 설원을 꼭 붙잡은 두 손의 체온만큼 따스한 미소가 번져
그 미소를 바라보니 순수한 마음 그대가 참 아름답더라

꽁꽁 얼어붙을것 같은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쳐도 그 마음은 꺾을수 없고

굳이 내가 이곳의 주인공일 필요도 없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향해야 할곳으로 질주하는

때론 정점에 오르는 성취감으로



때론 누군가의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맘껏 나만의 시간을 즐기며 만세도 외쳐보고

호잇호잇! 마법에 걸린듯 즐거움이 마음 가득 차오르는 장소

하얀 눈위에 물든 마음들이 그 열정들이

아프고 힘들고 위험해보일지도 모르지만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 그마음이 있다면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진짜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닳게 된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설원을 즐기는 라이더들을 만난 용평리조트

"ART Director By Black Cat"

[BlackCat 이야기는 무단복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 및 필요시 댓글로 문의바랍니다-

용평리조트 핑크(초중급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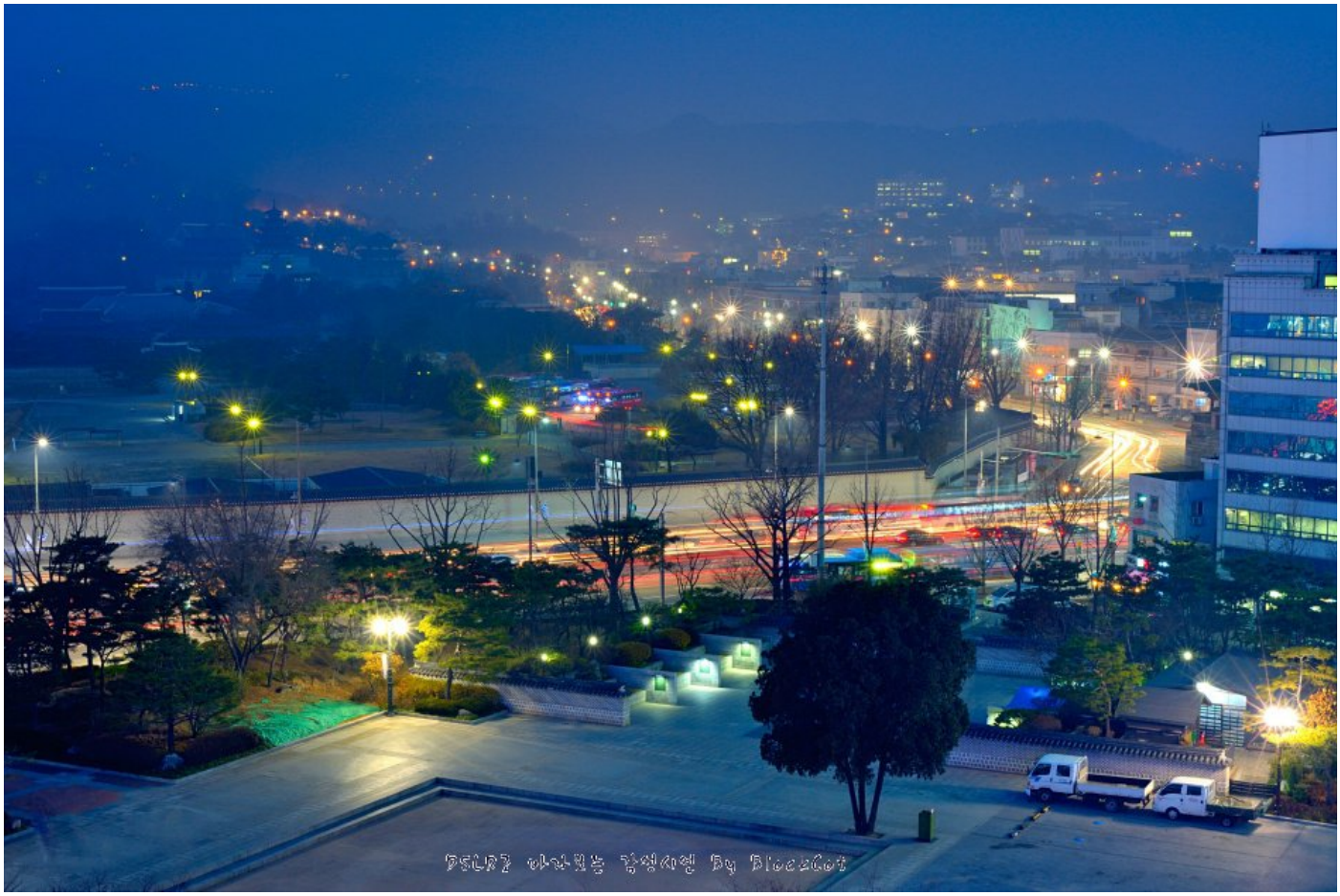
거리가득 쌓인 발자국 소리(DAY 13)

거리가득 쌓인 발자국 소리(DAY 13)

2013.12.15 06:00

12월 31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물씬..... 당신의 1월1일 0시 0분 0초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게될까요

서울에 방문해서 광화문대로를 거닐며.... 수천 수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나갔을



그곳의 발걸음 소리를 차박차박 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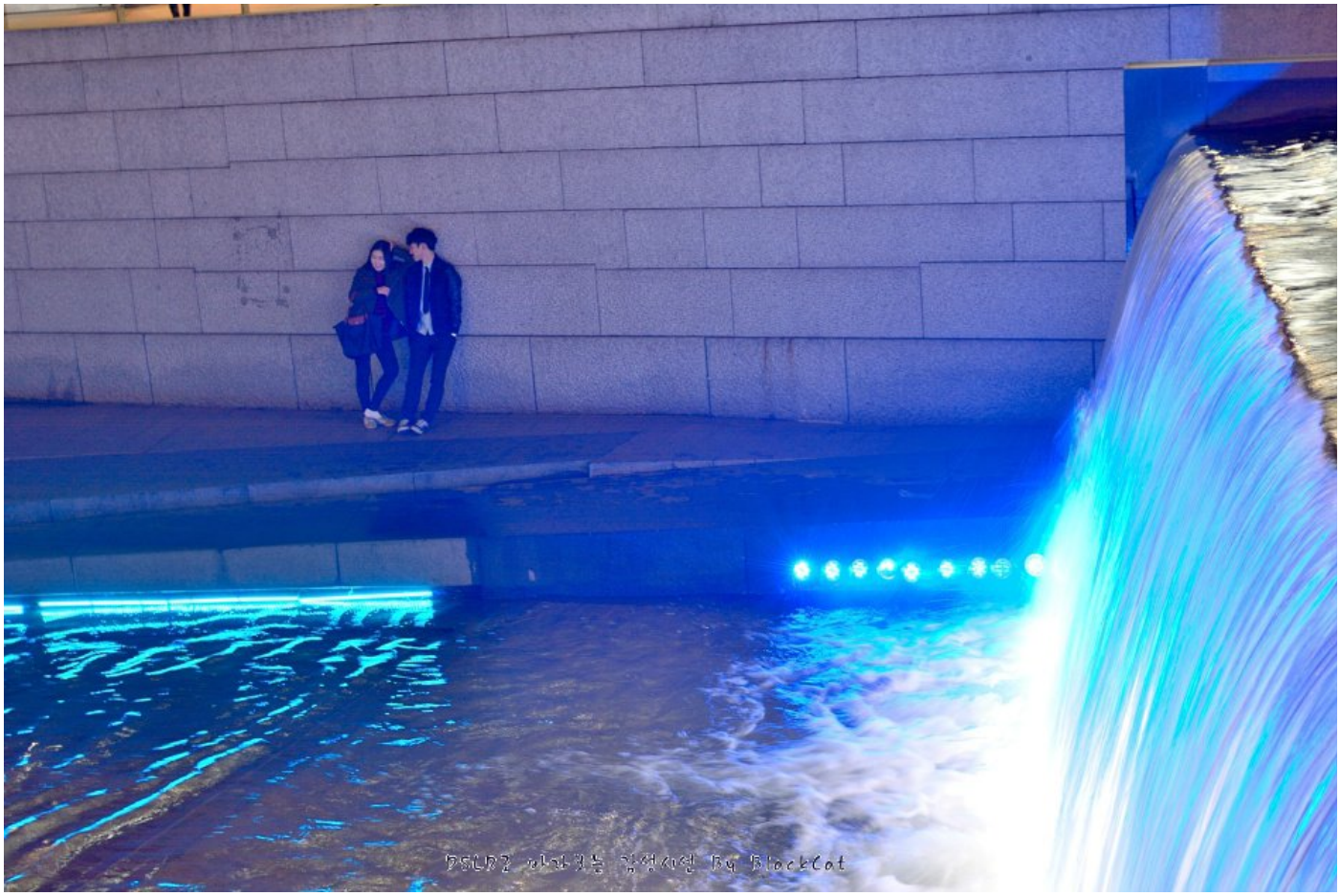
흙길이 거의 없는 대도시의 콩크리트 바닥위엔 아쉽게도 그 발자욱들이 남아 있지 않지만

왠지 어떤 설램들이 기록처럼 남아 서울의 곳곳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것 같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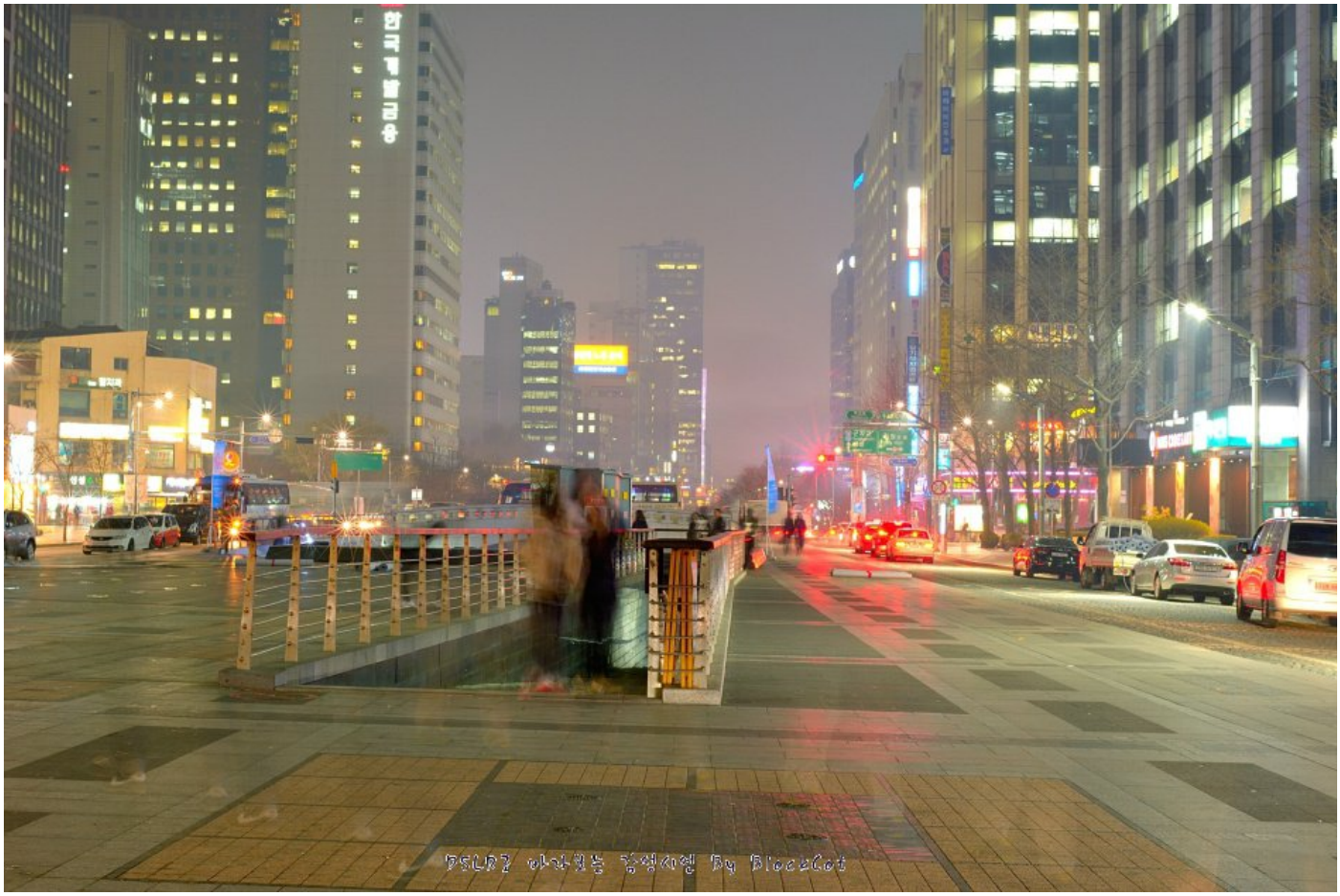
타종식... 월드컵.... 여행객... 등등등 우리가 잘알고 있던 행사부터 관심조차 없는 일상까지

수많은 이야기와 삶을 담은 발자국들이 스쳐가고 또 남겨진 광화문에서

시간은 유수처럼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또 변할테지만



특출난 감정은 꼭히 그자리에 박혀 변치않을 것 같은 느낌일까요



차가운 도시속 뜨끈한 마음과 정.... 그리고 사람들의 냄새가 차곡이 쌓인 서울의 거리들

곧 ....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와 즐거운 날들이 아직 2013년의 발걸음을 잡고 있는 어느날 문득

우리가 스치듯 지나간 많은 풍경속에서.... 그렇게 저도 발자국을 하나 쌓아둡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추억속에선 그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더 생생이 기억되어질 서울 그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 니콘35mmf2D 서울 어느날 발자국 기록을 남기다

"ART Director By Black Cat"
[BlackCat 이야기는 무단복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 및 필요시 댓글로 문의바랍니다-

서울거리와불빛야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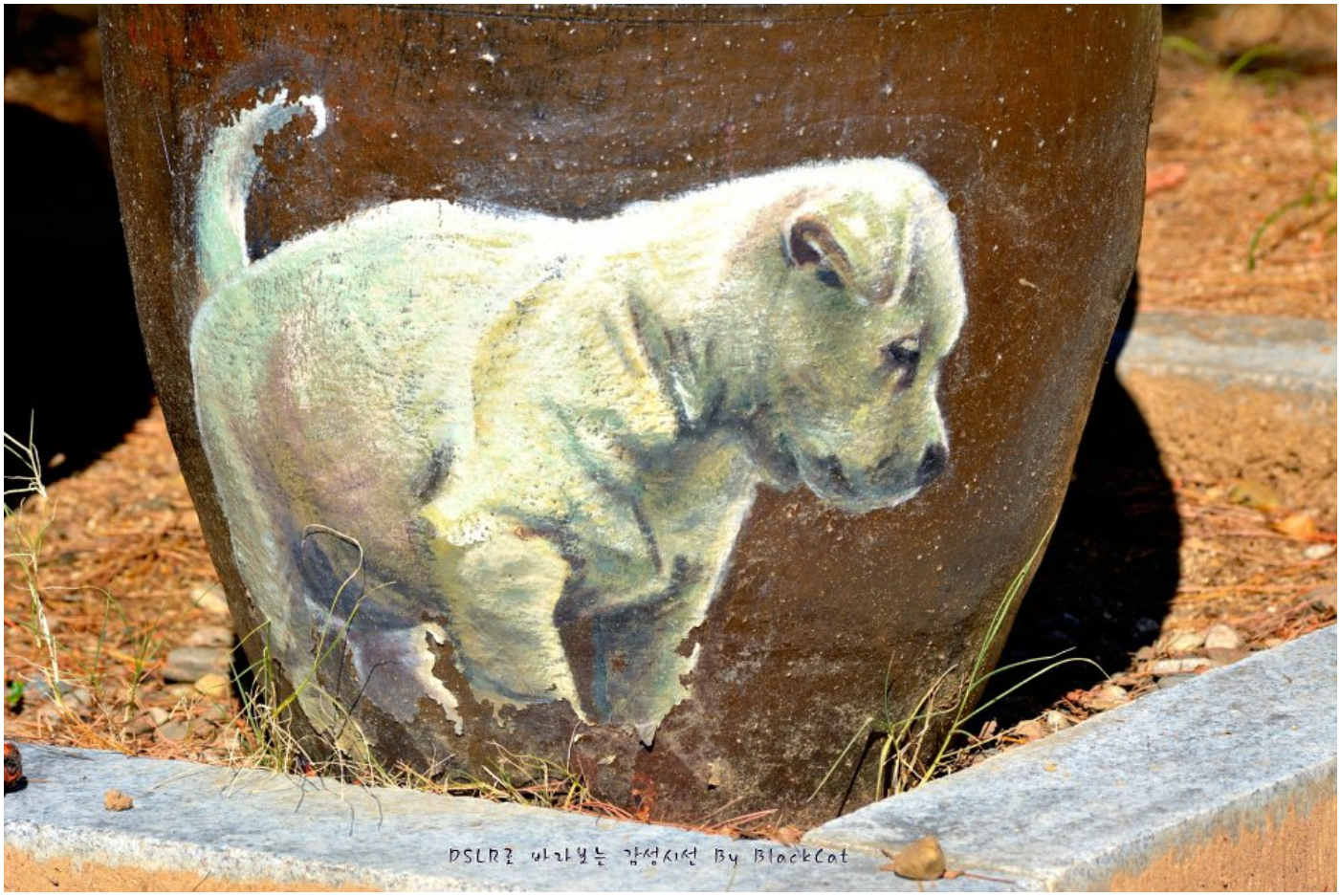
세상은 가진자에게 더 많은것을 보여준다(DAY 12)

세상은 가진자에게 더 많은것을 보여준다(DAY 12)

2013.12.14 06:00

살다보면 당연히 알게되는 것중 하나가 있다

'가진자에게 더 많은것을 보여주는 것'



가지다는 것이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돈 명예 지위.....
분명 그들의 세상은 일반인들이 알수 없는 새로움으로 가득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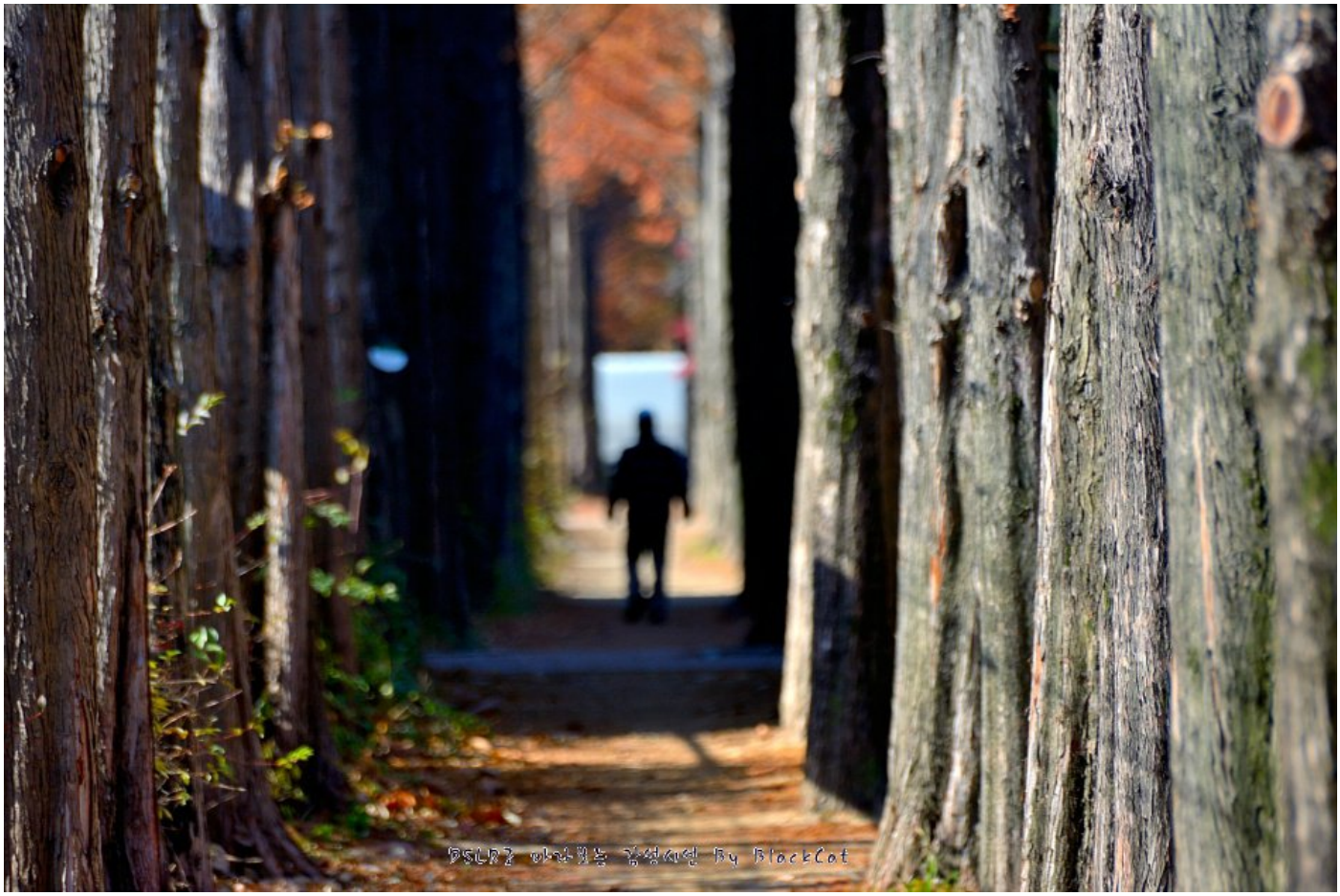
하지만 그 보다... 그런 의미보다 많은 것을 볼수 있는 가진것은!

"관심"

관심을 가진자에게 세상은 더 많이 더 세밀하게 볼 기회를 제공한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도 흙도 나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겐 그냥 거리로 보이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겐 나무의 표정 낙엽의 마음 흙의 감촉이 보이게된다 느끼게 된다



당신에겐 어떤 관심이 있는지.... 무심코 말하는 관심이란 단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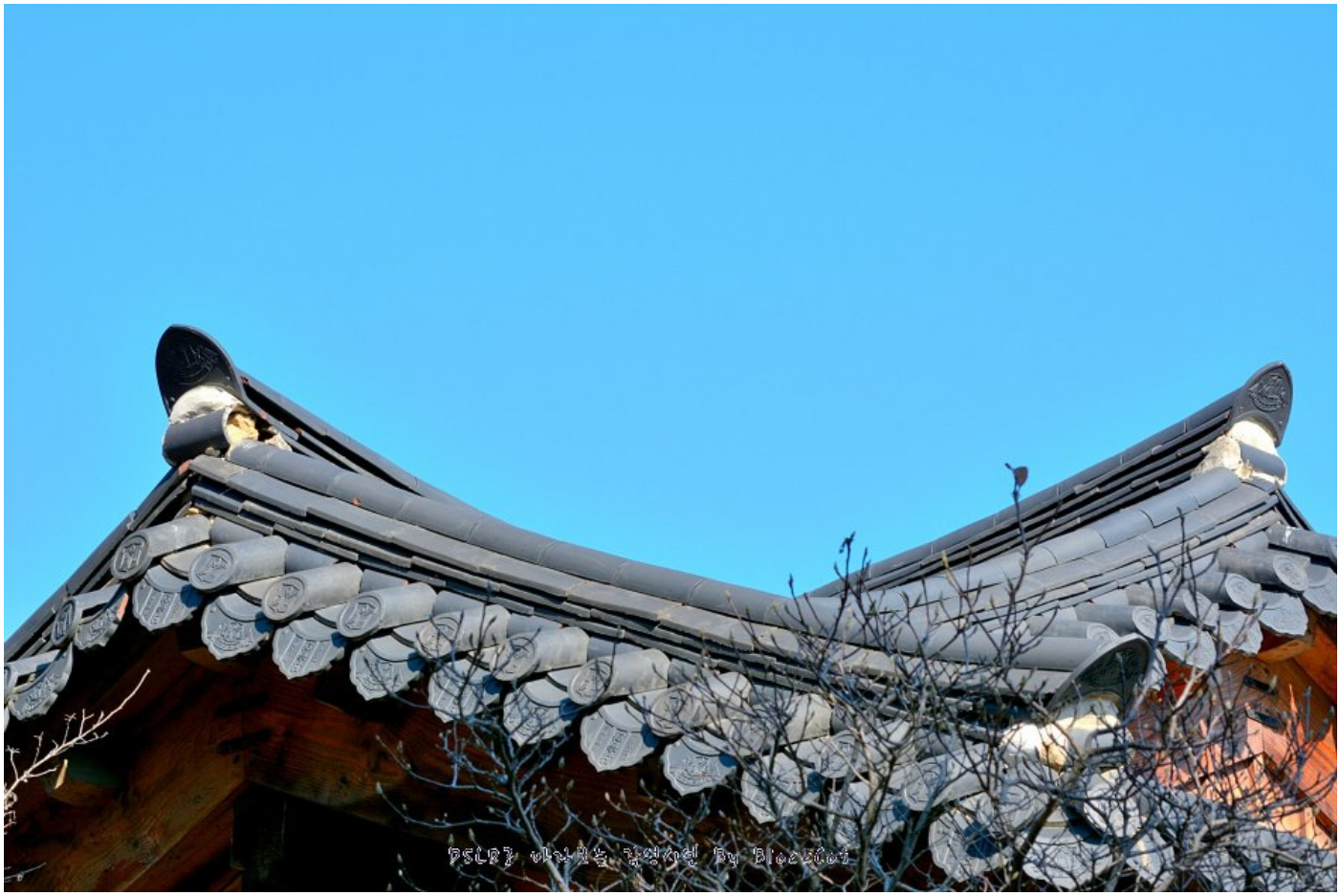
그져 스치는 풍경이 될 수도 때론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혹은 아련한 추억 눈물나는 감성사연

세상은 그런 관심을 가진 자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 관심으로 발전하고 그 발전속에 더 뛰어난 인물 더 전문적인 사람을 길러낸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수많은 시선들 중 수많은 생각들 중
일부가 되지 말자



어떤 것이든 좋으니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 관심에 생각을 더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가진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저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만
관심있는 가진 사람이되면 가치있는 인생을 누릴수 있을테니

니콘D7100 + 시그마70-300 좀더 세밀하게 바라볼 기회가 된 계명대학교 교정에서

"ART Director By Black Cat"
[BlackCat 이야기는 무단복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 및 필요시 댓글로 문의바랍니다-

늦은단풍&시선들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5

[2013다음우수블로그]이웃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DAY Happy)

[2013다음우수블로그]이웃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DAY Happy)

2013.12.13 06:00

여러분..... 블캣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인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들어와 보니.... 떡하니 이런....

블캣이는 그렇습니다.. 다른 블로거분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특별히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데

Romanticismo FotÓgrafo
By BlackCat

제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즐거움을 누려도 될지... 툭하고 떨어지지 않을지
오히려 더 걱정이 되어버렸어요

시크한 도시남자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술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짱짱한 사진도 아직은 모자란

그런제가.... 그냥 멀뚱히 바라보던 우수블로그란 타이틀을 달았으니

운수 좋은날이 생각나는 마음을.... 여러분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승같이 못생겼어요

이웃분들처럼 부지런하지도 ... 아니 오히려 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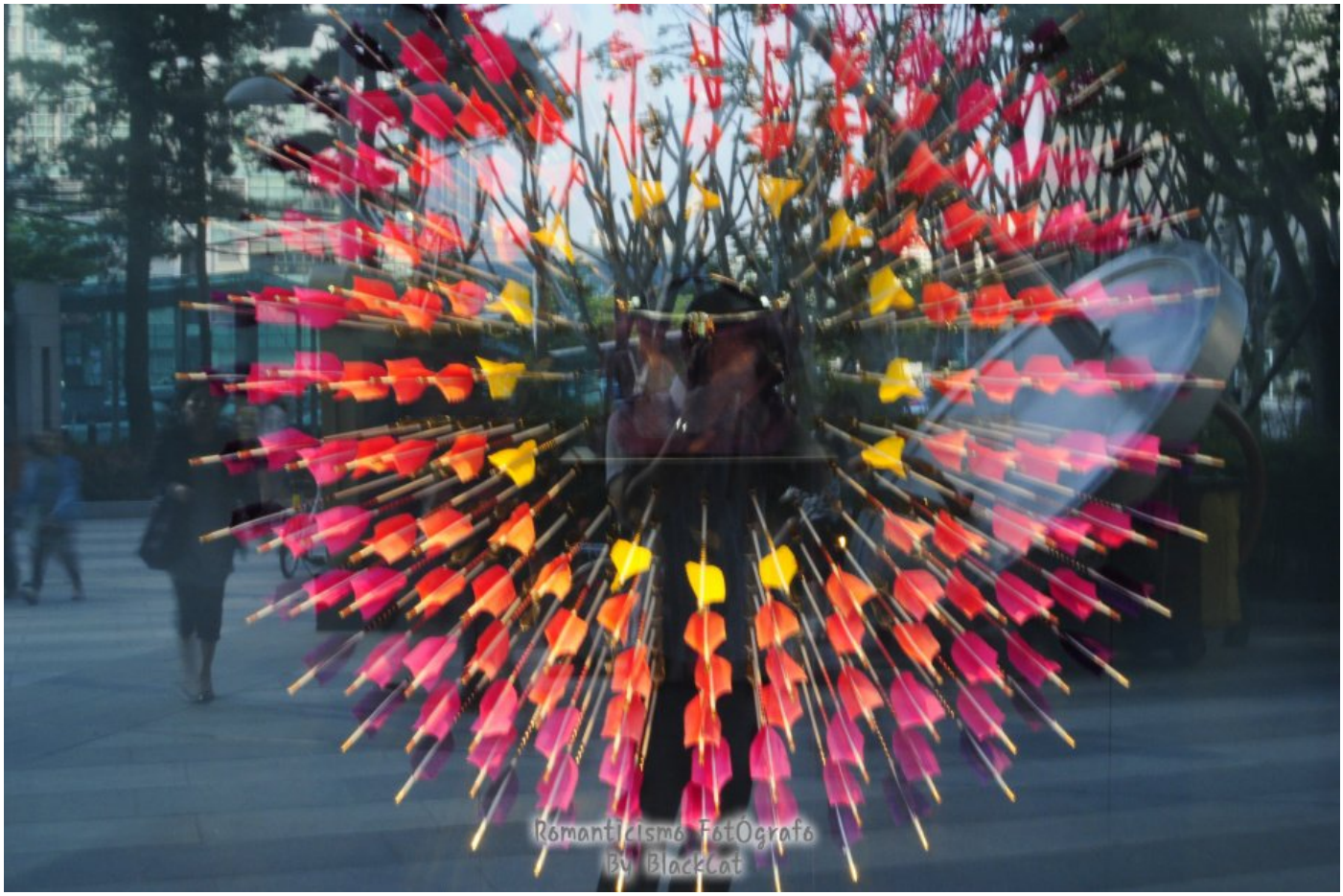
그런제가 사진이라는 취미... 블로그라는 특수한 환경을 접하면서

조금더 부지런해졌고.... 조금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구요

아무것도 아닌 나따위가.... 과연 어디까지 오를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조용히 바라봐 주시고 용기의 눈빛을 보내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신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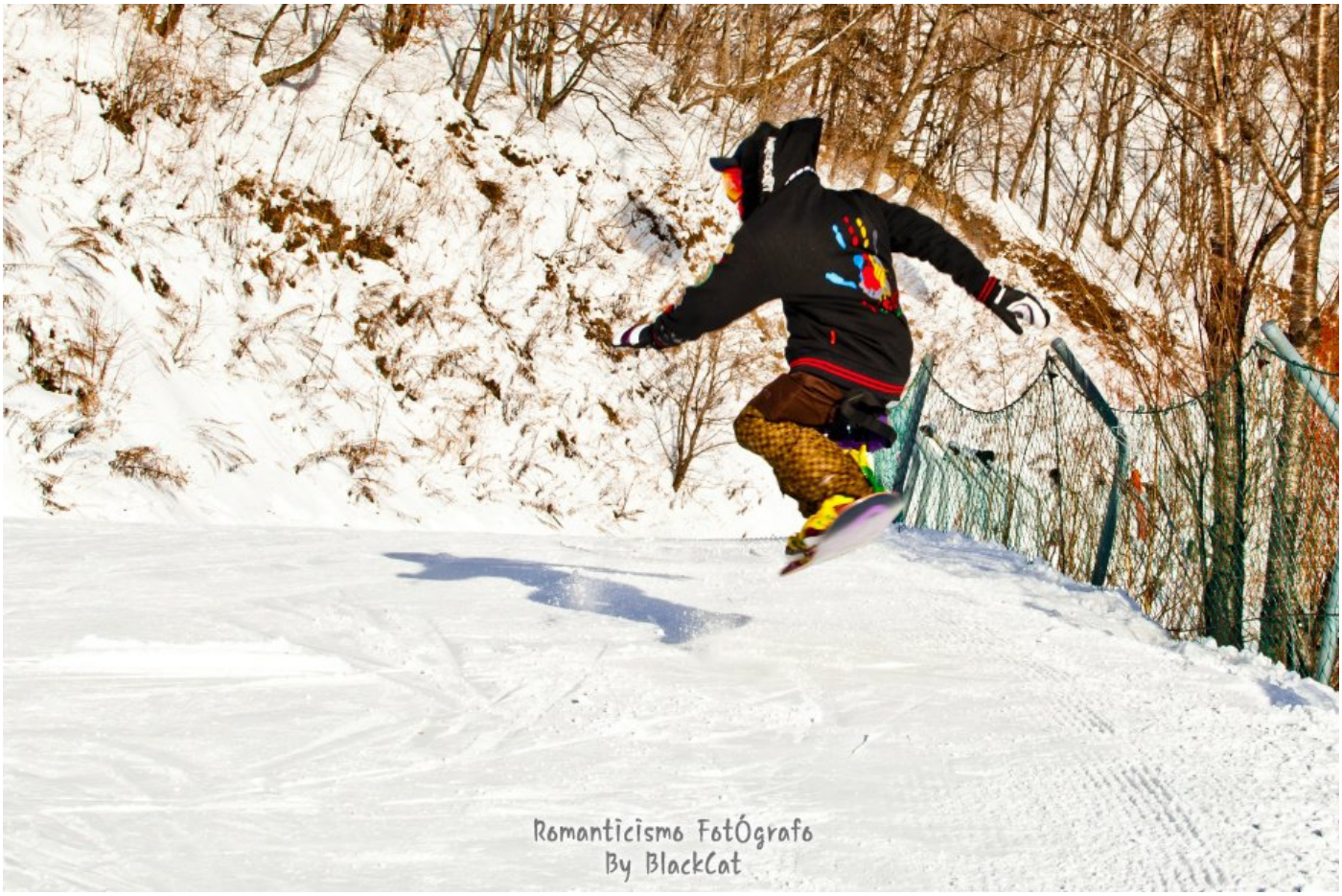
부끄럼 많고 어두운 저를 빛으로 이끌어낸 여러분의 마음 덕분에



명품은 아니더라도..... 사랑을 받았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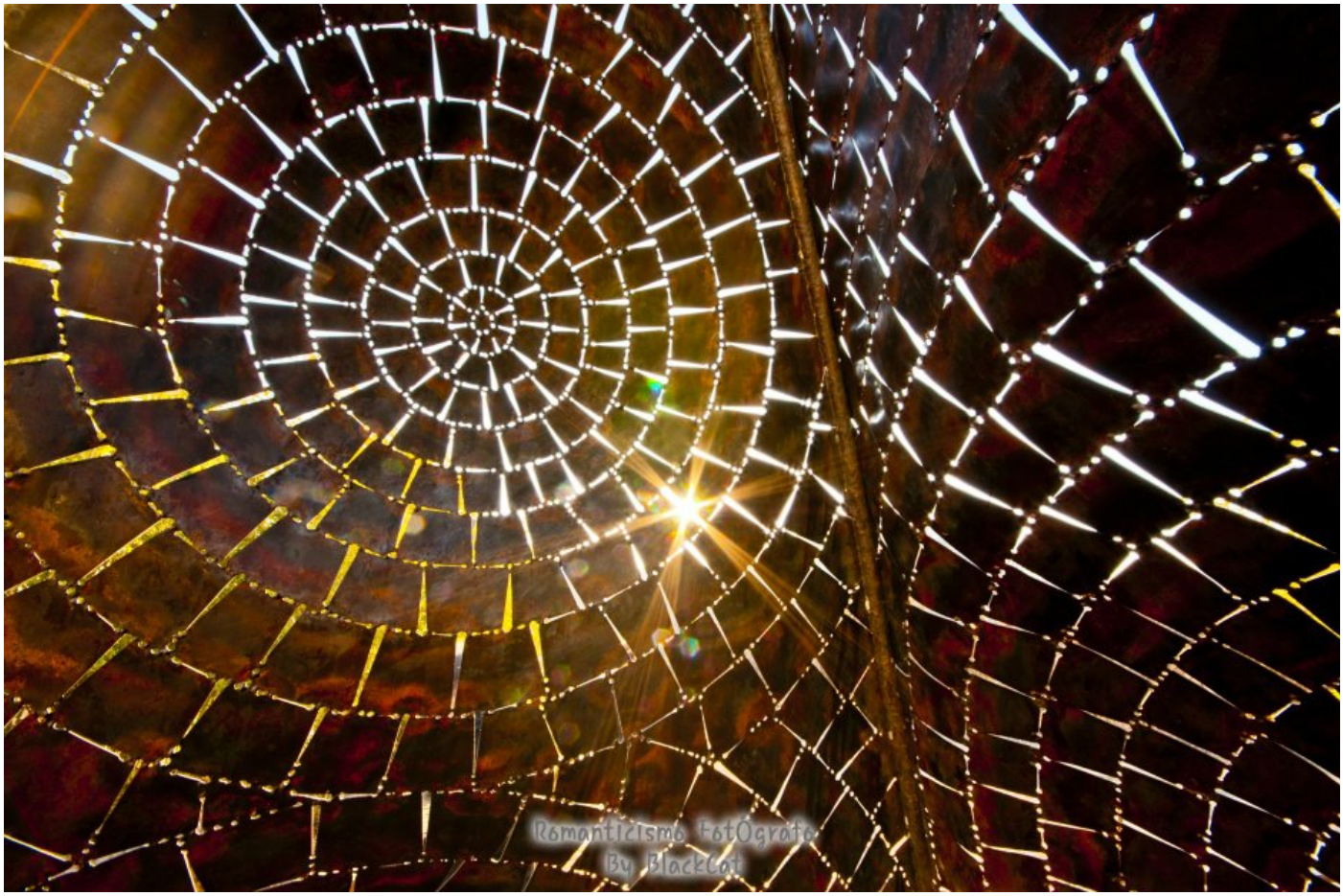
그 마음들을 조금씩 표현해서 다시 글을 쓰고 따스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구요

그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된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힘껏 뛰어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어쩌면 더 높이 뛸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구요

나름 인고의 시간 일과를 마치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편집하고 짜낸 나름의 결과물



부끄러워 아직 꺼내두지 못한 많은 사진과 이야기들

여러분.. 블캣이는 그런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때론 상처도 잘받는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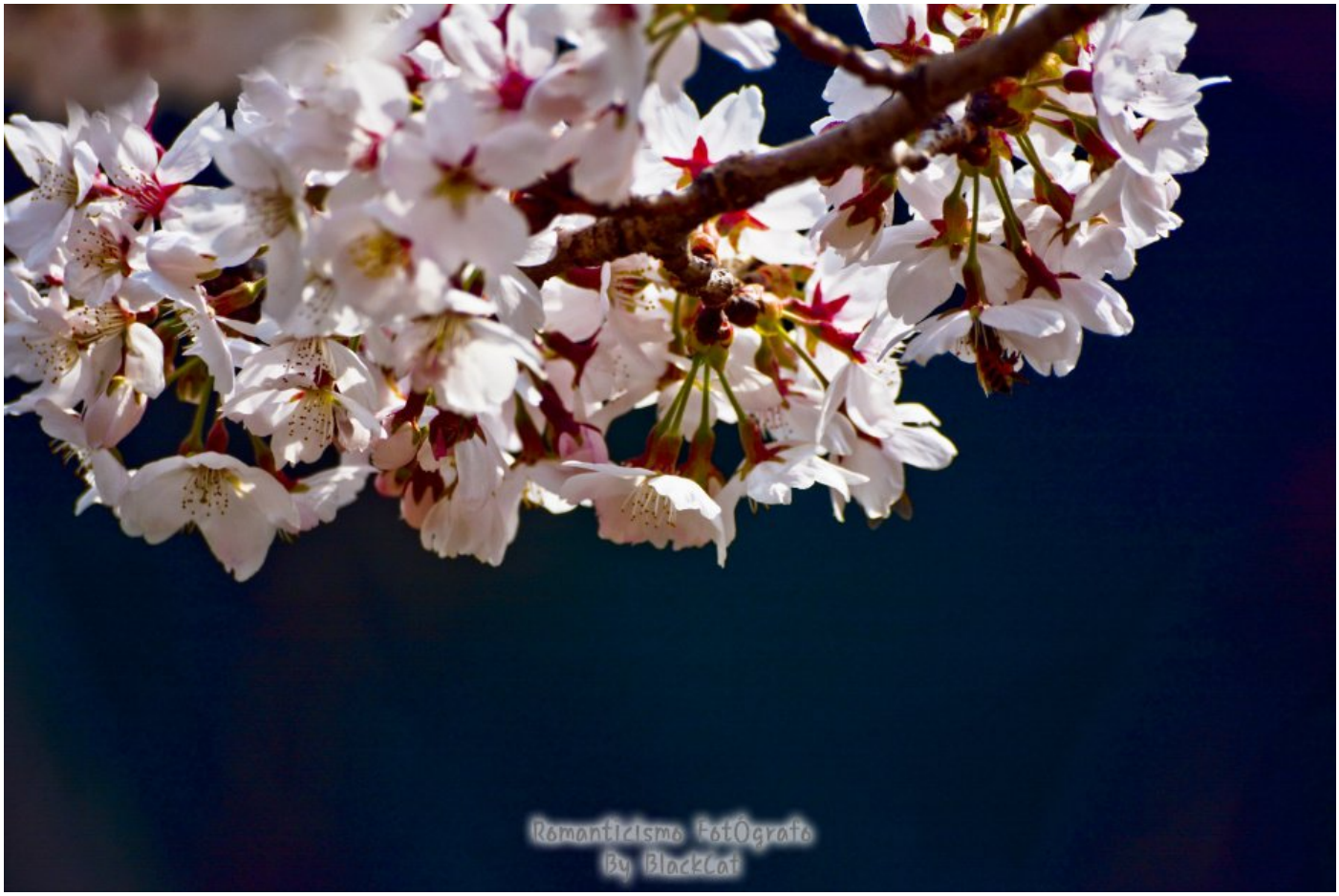
이사진 너무 못찍었네...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런사람이 왜 우수블로거야
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아주세요

왜 제가 우수블로그인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내가 왜 된거지 라며 볼을 아직도 꼬집고 있는데.... 아프긴 하니.. 꿈은 아니고....

아.. 그냥 그런가보다... 이사람도 노력은 하는 모양이군아....

그냥 소닭보듯 그렇게 봐주세요.... 타이틀이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를 봐주세요



감동은 아니더라도.... 그냥 사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그냥 들어주세요

혹시 또 압니까! 어쩌면 저도 더 멋진 더 즐거운 더 화려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죄송합니다..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는 인생인데 ㅎㅎ

앞으로도... 지금처럼 쭈욱.... 하던대로 돌고 도는 그런 생활이 될겁니다

타이틀때문에 먼가 틀려지는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때론 즐거움 행복한 풍경을 담고

때론 가슴아프고 뭉클했던 기억들을 꺼내놓을거구요

좋아하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풍경을 또 함께 바라볼겁니다

수천 수백만들의 눈이 바라보는 것에 함께할 것이고

수천 수만명이 걸은 그길위에 저도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짧고 굵고 화려하게 사는 인생.....

아니요 저는 오래도록 항상 이웃여러분 곁을 조용히 지키는 건전지 같은 사람이고 픕니다

그냥 가끔 생각나면 들려주고... 또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뿌리내린 깊이만큼 여러분을 향해 저는 계속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을거니....

헬로 하이 반갑습니다... 블로그에 찾아주셔 감사드립니다

것도 배꼽인사 90도로 고맙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사진과 안개같이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는 블로그지만

조금씩 조금씩.... 선배님 이웃님들처럼 저도 제 공간을 맞춰가고 있으니

어쩌면.... 어쩌면 깜깜한 제 지식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튼... 이 기분이 너무 행복해서 어떤글을 남길까 고민하다가
그간의 고마운 마음 따스한 마음에 인사를 드리고 싶어

어젯밤은 그렇게 사색처럼 한참을 제 사진을 들여다 봤습니다

하루하루.... 또 제 이야기를 기다려주실 이웃분들께....
블캣의 방이 작은 휴식이 되길 바라며
2013.12.13. 감성사진을 꿈꾸는 블캣이 올림

"ART Director By Black Cat"
[BlackCat 이야기는 무단복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 및 필요시 댓글로 문의바랍니다-

해길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봉무동 | 053-983-8502

〈사는곳과는 상관없습니다. 제 본명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26

빙그레 웃음이 나는 설원위에서(DAY 11)

빙그레 웃음이 나는 설원위에서(DAY 11)

2013.12.12 06:00

스키장에 가면 두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얀 설원위를 질주하며 짜릿짜릿한 스릴감을 만끽하는 사람과

설원위를 신나게 달려가는 이들을 빙그레 웃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다른점이라고 하면 글쎄... 그냥 바라보는 것의 차이랄까요

어차피 하얀 설원을 즐기는 마음이야 다 똑같으니깐!

언제보아도.. 하얀 설원을 멋지게 라이딩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나 걱정들이... 진짜 하얗게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런 마음때문인지... 하얀설원을 찾는 사람들도 내일은 어쩌나 하는 것보다

그래 준비됐어.. 준비 시작!

춥네 추운데 재미있자나! 여긴 어떨까 저코스도 재미있어 보이는데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잘탄다 멋지다.. 나도 연습하면 탈수 있을까

우와!!!! 감탄 감탄 엄지손가락 착!

그런것 같아요.... 하얀 설원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부자와 거지 나이의 차이보다
그냥 하나의 동일한 즐거움을 위해 모인 친구!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심정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음을요

니콘D7100 + 시그마70-300 설국의 용평 즐거운 웃음이 가득 피어나는 곳에서

"ART Director By Black Cat"
[BlackCat 이야기는 무단복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 및 필요시 댓글로 문의바랍니다-

용평리조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 010-2231-0555

27

도시가 아름다움을 입을때(DAY10)

도시가 아름다움을 입을때(DAY 10)

2013.12.11 06:00

대한민국 제1의 도시, 문화와 유행의 도시, 한국의 수도....

참 다양한 서울의 이름 중 나는 ART in 서울이란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

청계천을 비롯해 서울의 많은 하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외국의 어느 나라들 처럼.... 무한의 산업발전만이 대도시의 풍경을 지배하던 것과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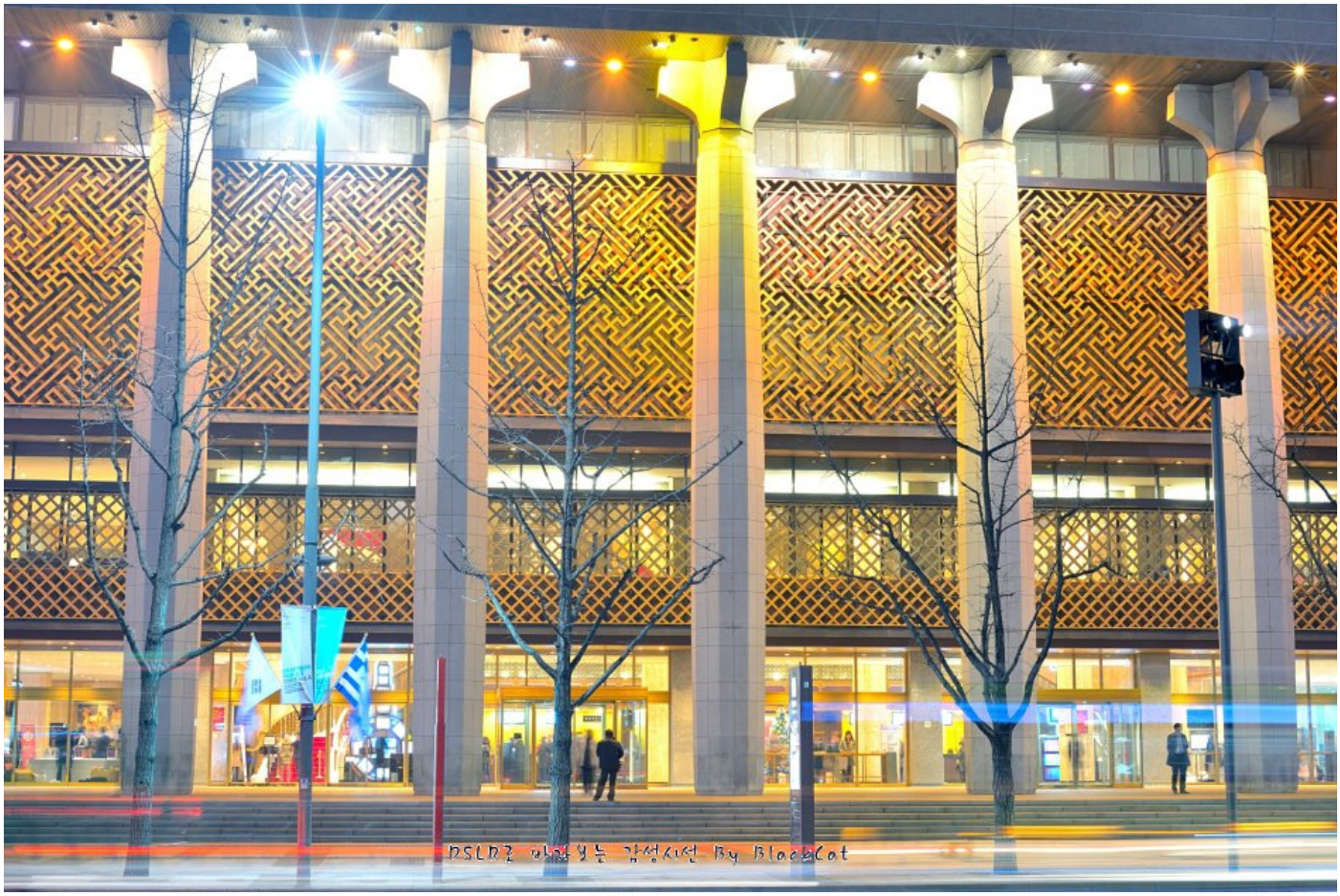
회색의 도시모습은 점차 옅어지고 알록달록 예술과 자연을 덧입어 가는 서울

복잡하고 무엇인가 가득차있는 공간에 새로이 무엇인가를 더 집어넣기 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가득차있던 공간이 비워감으로

오히려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추억들을 다시 부활시키던 서울의 모습에서

딱히 선진국을 모방하는 예전의 사고방식이 어쩌면 우리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 같아



아직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는 있지만....

예전의 추억을 다시 찾아 그것에 예술을 더해가는 모습들을 보며

머지 않은 날..... 외국의 여행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원더풀을 외칠것 같아
기분좋은 상상이 되더라구

물론 그렇다... 모습이 다가 아니듯.... 그들이 우리나라의 모습에 반할지라도
그들을 맞아주는 따스한 마음이 없다면 결국 그들의 마음에
어글리코리아가 기억되겠지만... 차츰... 바뀌는 모습과 역사속
우리들의 인식도 바뀌어질것을...

니콘D7100 + 시그마70-300 + 니콘35mmf2D 한국적인 예술을 입은 서울의 풍경

"ART Director By Black Cat"

[BlackCat 이야기는 무단복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 및 필요시 댓글로 문의바랍니다-

광화문야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_____^

눈도 많이오고 날씨도 춥지만 마음이 따스합니다 헤헷

28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어 지는건..(DAY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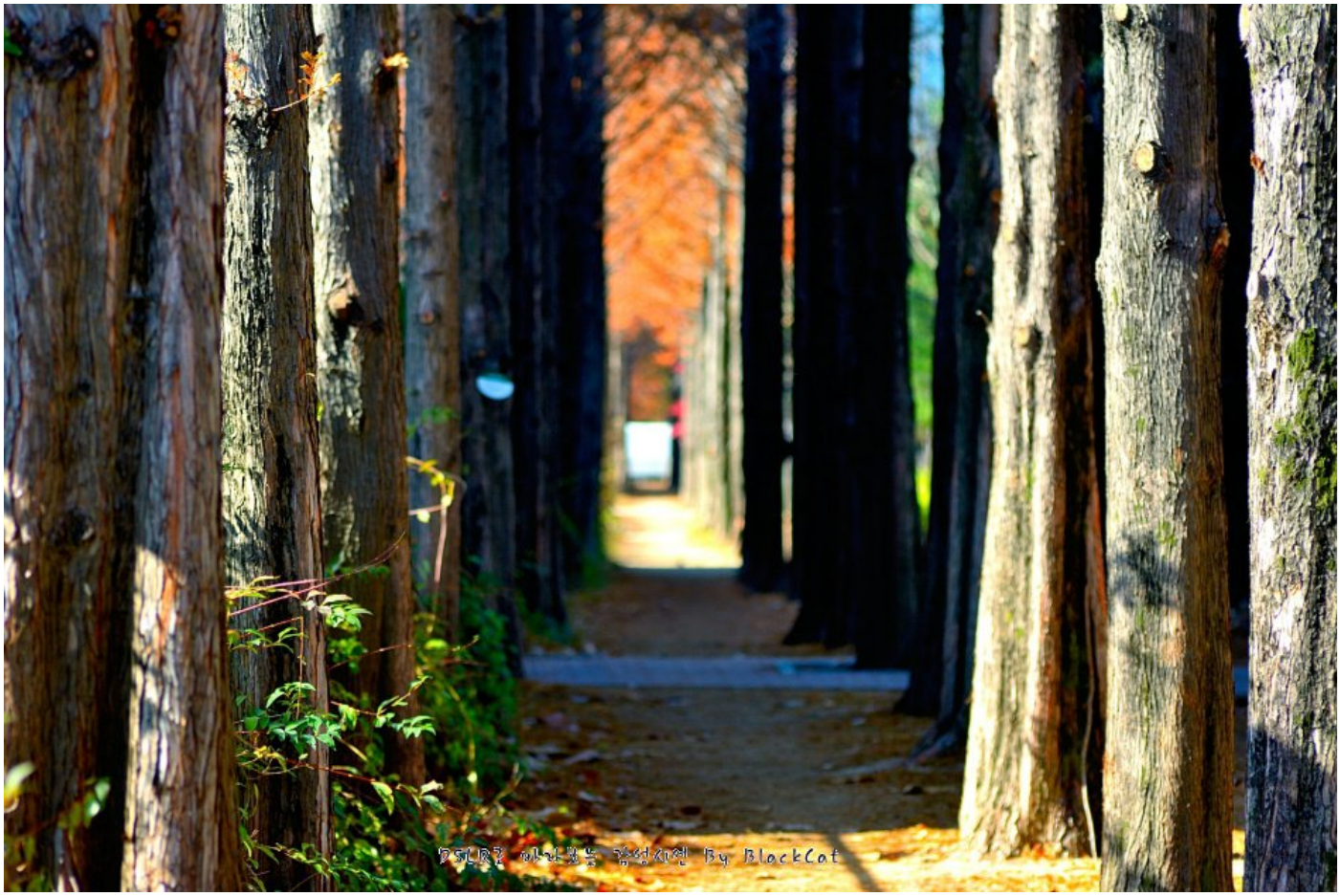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어 지는건..(DAY 9)

2013.12.10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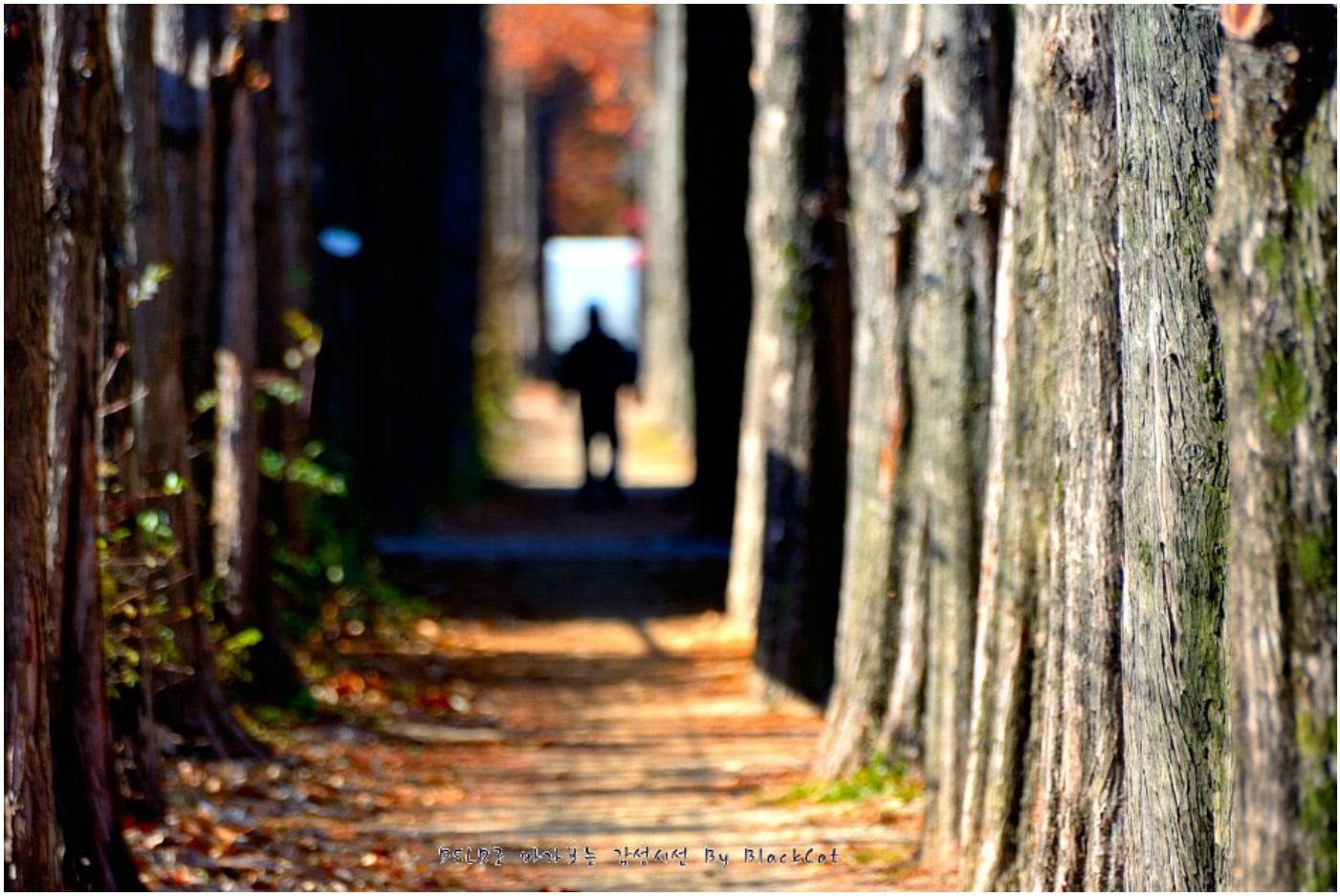
엔틱크라는 단어가 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자체의 품위와 기품... 오래된 멋을 간직한 것

너무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 반질반질한 새것이 주는 느낌이란

나라는 존재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내 삶의 위치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닐런지



하지만 굳이 새것이 좋은것이란 생각은 맞지 않는것 같다



아주 오랜시간 비바람과 풍파에 다듬어지고 올곳게 자란 나무들이나

태양빛과 찬서리를 몸으로 막아내어 그 윤기와 고고한 멋을 더해가는
장독대들을 바라보면은 말이죠

그렇다고 오래된 것들이 다 멋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변화에 부합을 하는지에 따라

고물이 될수도 있고 유물이 될수 있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젊고 어리고 쌩쌩할때의 모습은
그사람이 어떤 삶을 살건 그저 아 젊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좋은 시간과 기회를 어찌 이용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지에 따라
가치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집니다

있을때 잘하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음도 마찬가집니다.
누릴수 있을때 누려야하고 즐길수 있을때 즐겨야 하지만,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행동 그 책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니콘D7100 + 시그마70-300 시간이 주는 의미에 대하여 [대구 계명대학교 캠퍼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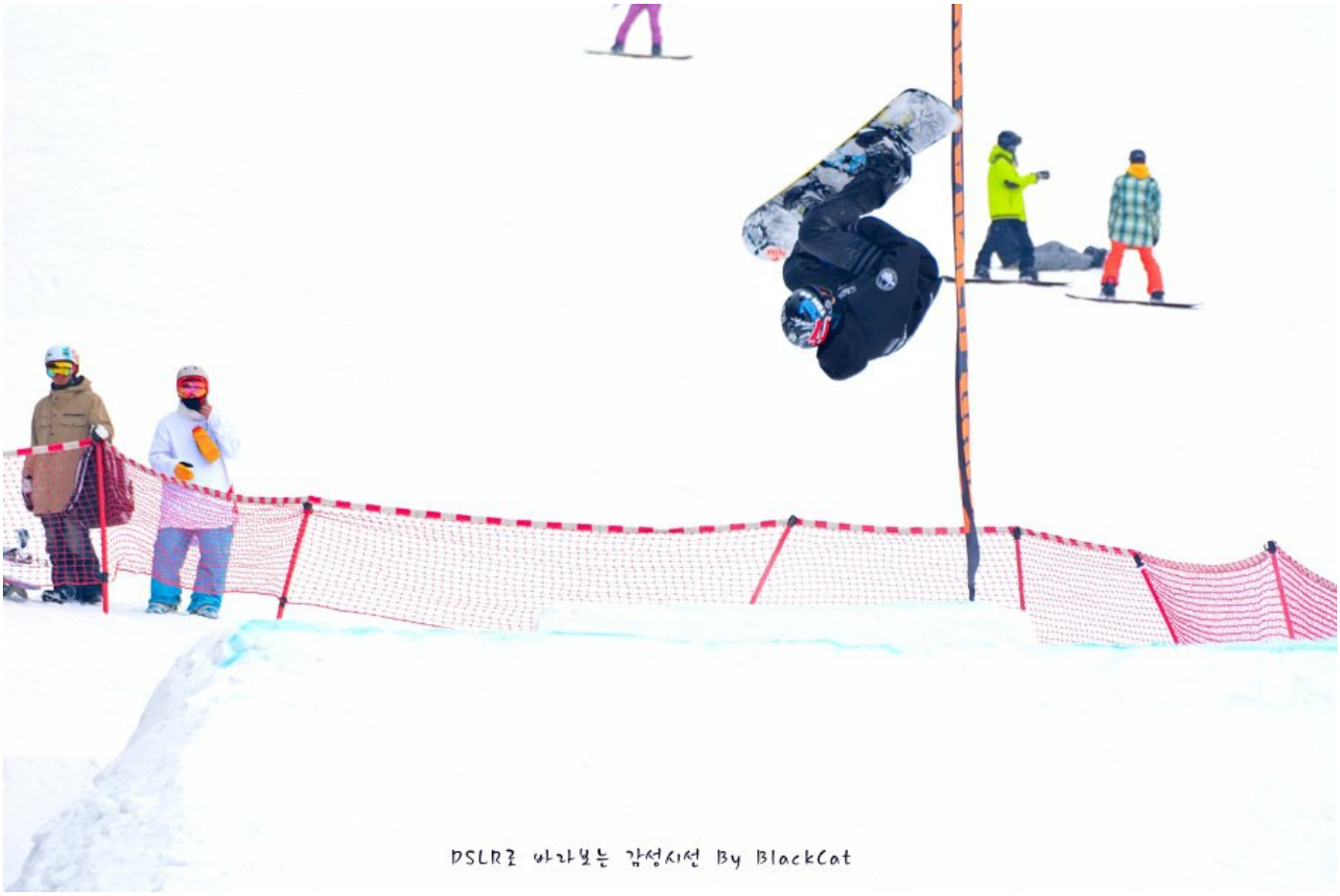
삼나무길&항아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29

즐기는 것에 한계는 없다 용평 D-Container(DAY 8)

즐기는 것에 한계는 없다 용평 D-Container(DAY 8)

2013.12.09 06:00



무엇이든... 즐기는 자 앞에서 한계는 있을 수 없다!

이웃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블캣은 스키장을 좋아합니다

추위는 정말 엄청 싫어해서 이불을 둘둘말고 살아가고픈 겨울이지만
유독.... 맹추위에도 갈 수만 있으면 스키장을 꼭꼭 챙겨서 가는데요

작년부터는 대구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용평스키장으로 다니고 있지요

잘타냐고 물어본다면 ... . 글쎄요... 잘탑니다! 열심히 타구요!

단지 남들이 보면 글쎄요.... ㅎㅎ 잘 타지도 못하면서 추위도 싫으면서 왜 스키장엘 가냐고 묻는다면

스키장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게 단 한가지를 즐기는 즐거움이 있기때문입니다

프로선수처럼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몸에 멍이 들고 넘어지고
춥고 힘들어도.... 하얀 겨울속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분이란

지난 주말은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는 도전자들을 만날 기회가 용평에서 있었는데요
D-Container in 용평! 용평스키장에서 열린 아마추어 파크 대회를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엄청난 높이로 하늘을 비상하고.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묘기를 구사하는 참가자분들께 다시한번 박수를 !!!

DSLR로 바라보는 감성시선 By BlackCat

착지할때 넘어지고 심하게 부딪쳐서 걱정스런 눈빛을 받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한번 도전 하는것을 보니

확실히 무엇이든 즐기는 자 앞에 한계따위는 있을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스키나 보드를 떠나.. 모든 일들이 그러하죠

난 이정도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 그일 혹은 그무엇에 심취하지 않았다는 말을 핑계처럼 말하는 것일뿐!
즐기고 싶다면 일단 푸욱 빠지시길.. 한계라는 단어가 하얗게 잊혀질 정도로!!

니콘D7100 + 시그마70-300 용평리조트 하늘을 나는 스노우보더들을 바라보다

미니파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30

[다음뷰]심플하고 단순하게 그것이 멋진것(DAY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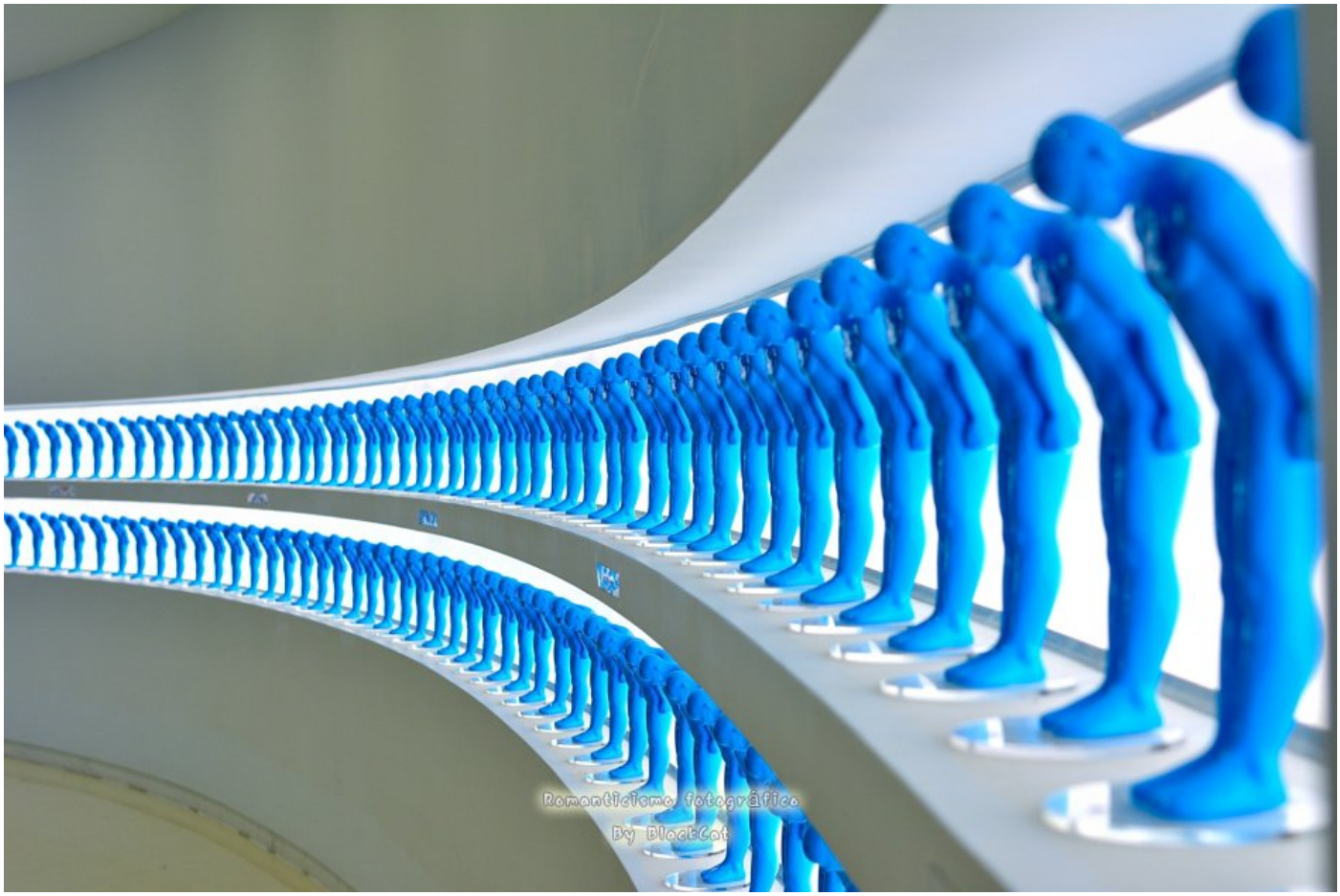
[다음뷰]심플하고 단순하게 그것이 멋진것(DAY 7)

2013.12.08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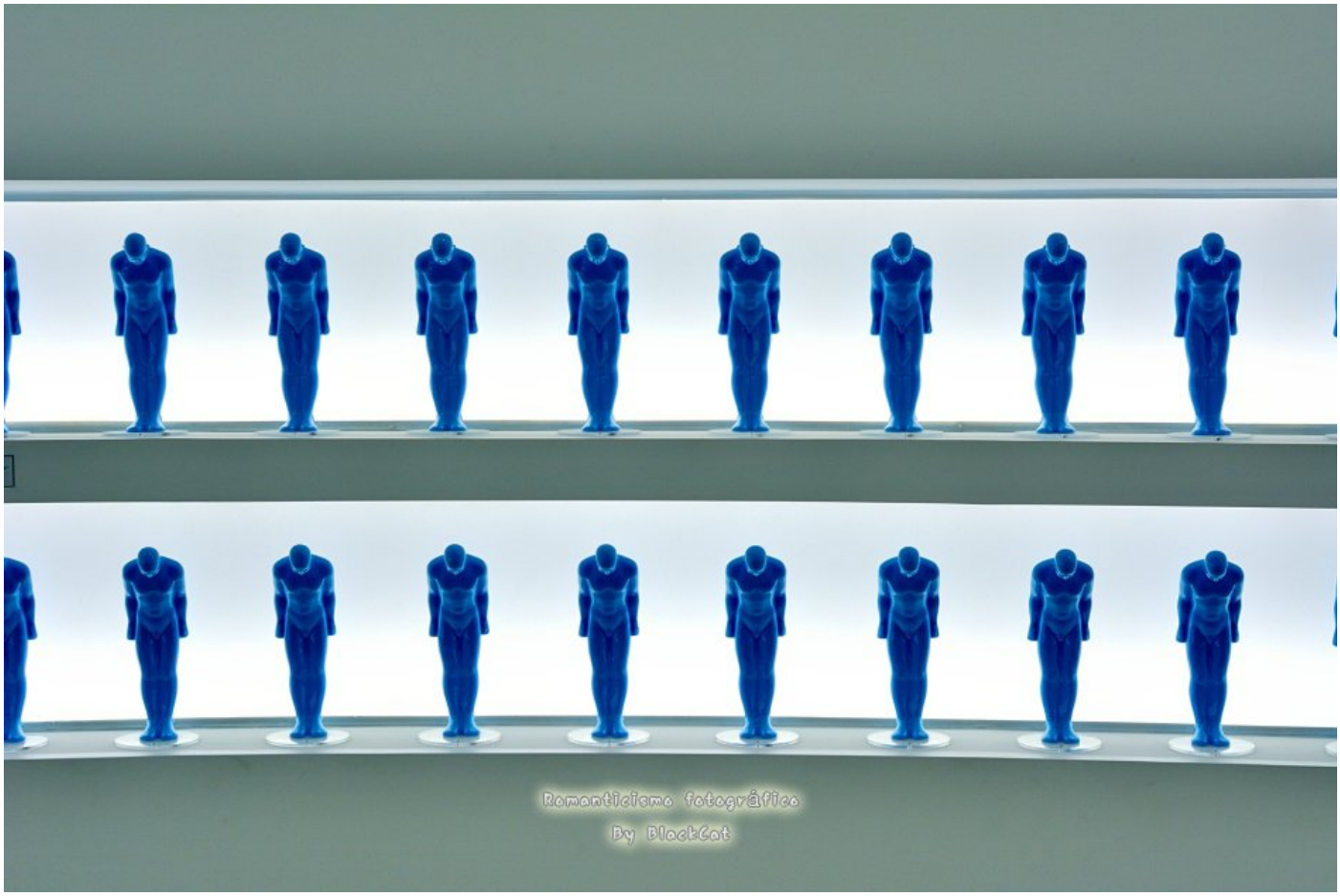
일이라는것이 그렇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된다
잘못한것은 죄송합니다 사과를 잘한것은 감사합니다 인사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필요한것을 하면 된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좋은것들로 가득채워버린다면 도대체 무엇이
독특하고 아름다운것인지 오히려 알수가 없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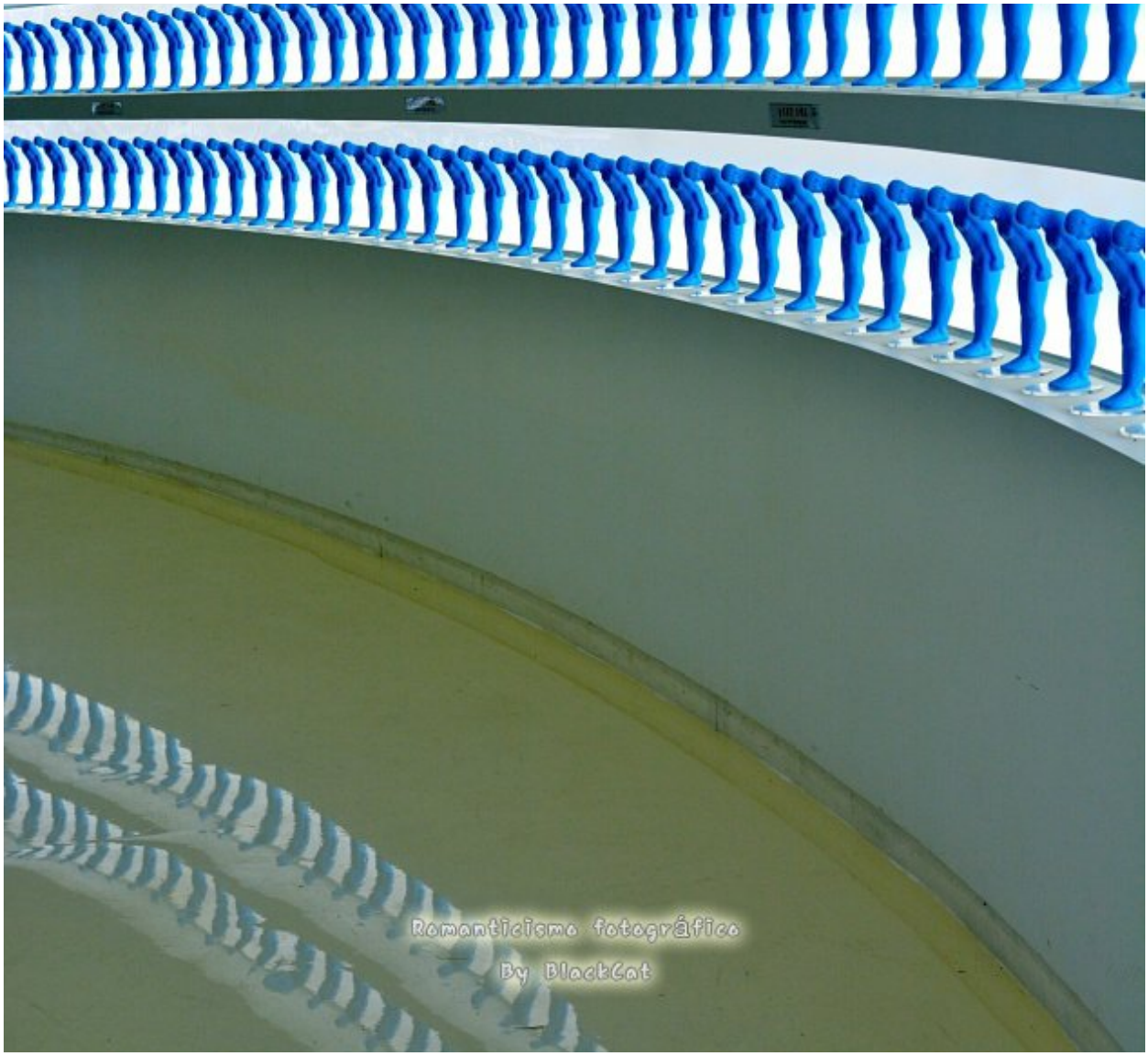
하얀 도화지 위에 점하나는 눈에 띄게 보이지만
화려한 색들로 칠해버리면 구분을 할수가 없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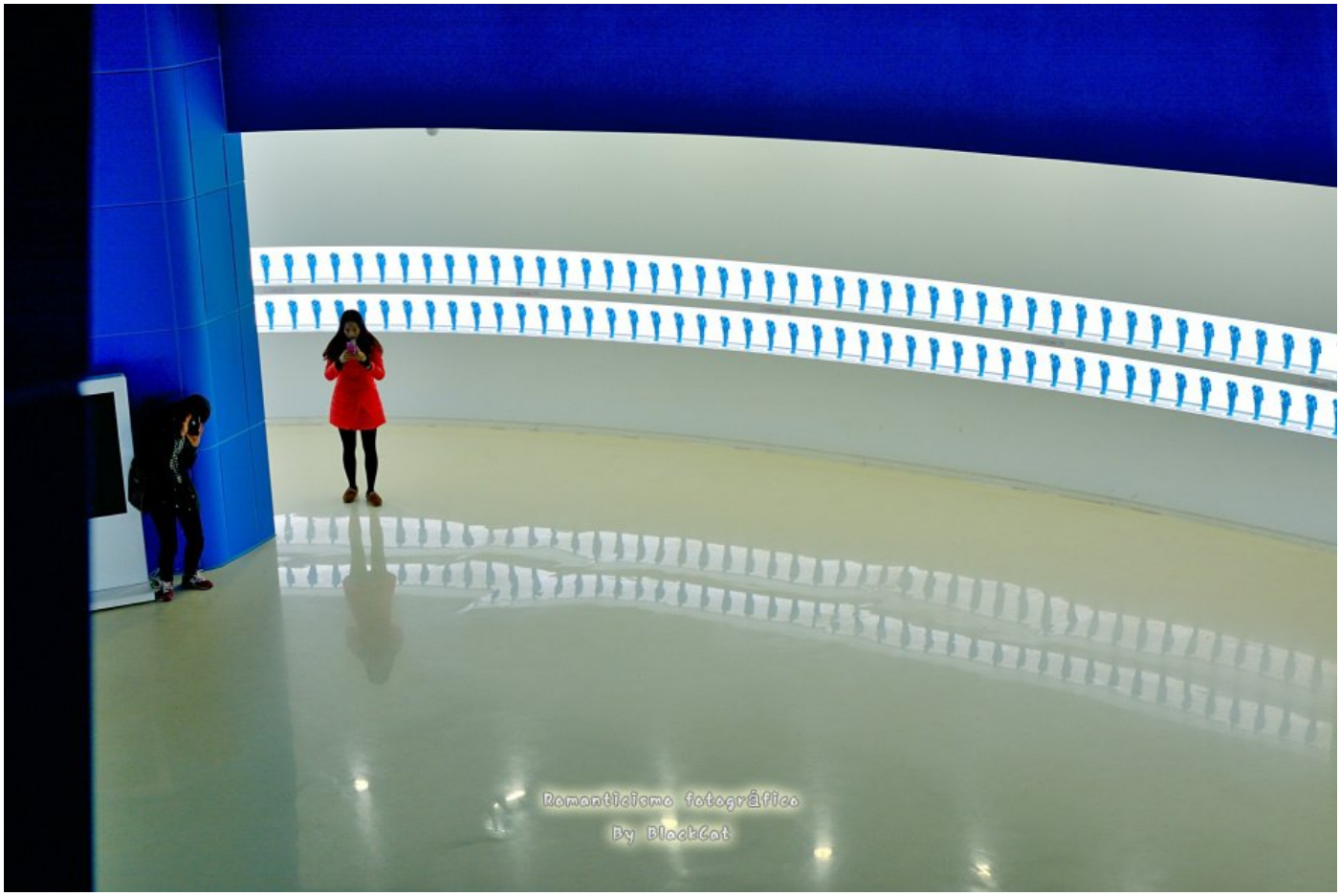
유일무의 독존의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복잡하게 사고하고 일부러 튈려고 포장하지 않는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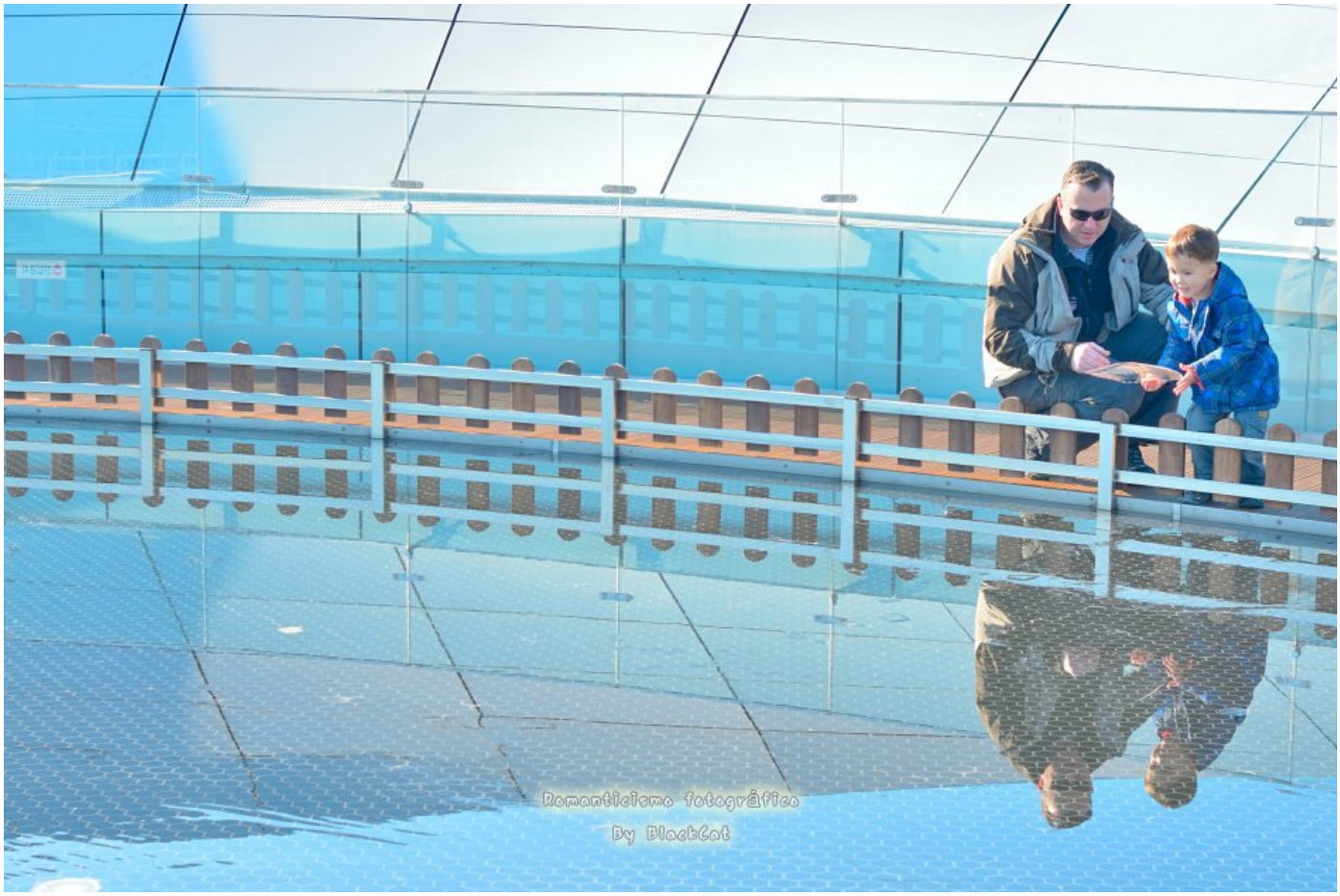
오히려 더 포장하는것 보다 빼내고 간결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것이 더 멋진것이다



모두가 예라고 할때 아니요를 외친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될것이라는 이야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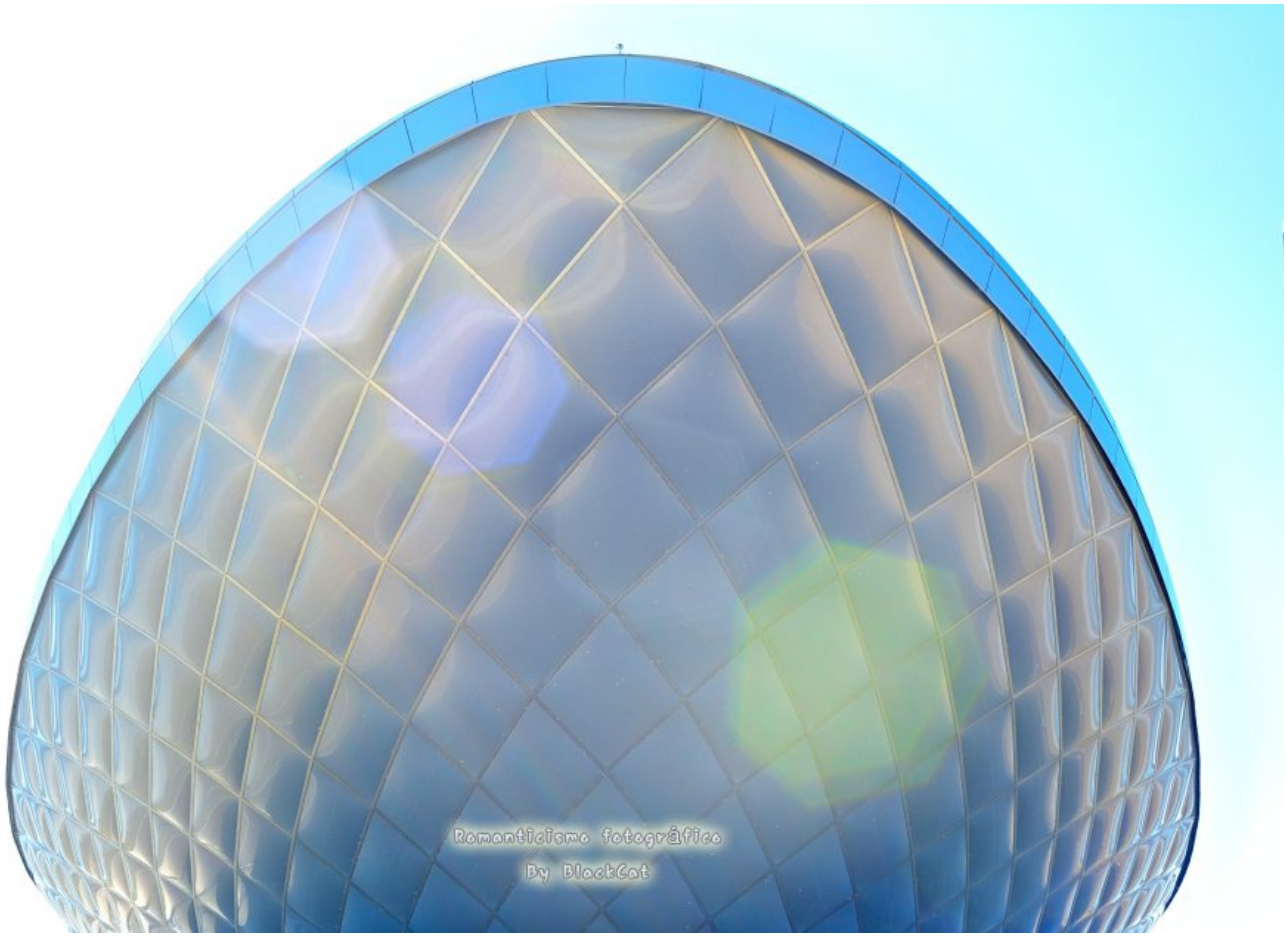
이제는 왜면되고 오히려 사람들의 등을 돌려버릴지 모른다
모두가 예라고 할때 예라고 하지만
예?가 될지 예!가 될지에 따라 당신의 모습도 달라진다



사람의 시선이 그러하다. 바라보는것에 치중을 두는 이와
만지고 경험하는 것의 의의를 두는 사람

그리고 그 본질에 가까이서 탐구를 즐기는 사람!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따지고 맞추기보단
그중 하나만을 심플하게 선택하고 단순하게 밀어붙이자



오히려 단순한 색과 간결한 당신이
세상엔 둘도 없는 가장 유니크한 사람으로
정말 멋진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 있게!

니콘D7100 + 시그마70-300 단순하지만 그것이 매력적인 [대구 금호강 디아크에서]

디아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 053-585-0916

사진감성..고맙습니다

블로그

BlackCat[DSLR&시선]

http://blog.daum.net/hegil12

저자

BlackCat

발행일

2013.12.13 09:20:03

Daum 블로그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